

정념 스님(오대산 월정사 주지)
수행, 문화, 복지의 조화
산중불교의 미래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금 현재를 관찰해보면
순간 순간 변화하고 있다.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9월 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11호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동국대 108주년 불사 '눈길'

10월 8일 기념관 건립불사 선포·후원의 밤 개최

동국대가 건학 108주년을 맞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10월 8일 서울 그랜드앰버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건학 108주년 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밤 행사를 연다.

동국대가 건립을 추진하는 '건학 108주년 기념관'은 지하철 동대입구역부터 혜화문 부지에 거쳐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27,088㎡ 규모로 건립된다. 동국대는 이번 첨단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108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건학108주년 기념관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불교와 전통문화 콘텐츠를 융화시킨 불교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산발적으로 자리한 박물관, 불교학술원 등을 한 군데로 모아 한국불교 연구, 교육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불사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앞장섰다. 진제 스님은 9월 13일 동화사에서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의 예방을 받고 '불광동대(佛光東大) 보조발원(普照發願)'이라는 친필 휘호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야 말로 불교를 살찌우는 것이며, 동국대학교를 육성하는 데 모든 불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108주년과 기념관 불사를 널리 알릴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었다. 9월 17일 동국대 본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동국대 출신 연예인 이덕화, 강석우, 이경규, 김상중, 남성진, 유준상, 조여정, 소유진, 윤아, 서현, 허가윤, 손나은 등 19명이 위촉됐다.



진제 스님의 '불광동대 보조발원' 휘호

기념관, 불교 연구 산실로
스타 동문들 홍보대사 위촉
10월 25일 불사봉행대회도

홍보대사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머그컵 사인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이덕화 씨는 "졸업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행사 때마다 학교에서 불러줘서 고맙다"며 "후배들과의 향기로운 만남이 자주 이어지길 바라며,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국대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사인(sign) 머그컵을 축제기간 동안 총학생회에서 개최하는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10월 25일 오후 3시 교내 운동장에서 불사봉행법회를 열고 대대적인 모연에 나선다. 불사 증명은 조계종정 진제 스님을, 고문은 이사장 정련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을 위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가난한 이들도 장애인도 함께 살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17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시민 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와 빈곤사회연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무차대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단체 회원, 쪽방주민, 홈리스야학 학생, 빈곤층 어르신, 거리노숙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송담 스님 탈종부터 주지 인사 논란까지 조계종·용주사 '큰 부담'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월)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용주사 문중의 가장 큰 어른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과 문도 스님들 10명이 제적원을 제출했고, 지난 주지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성관 스님이 주지로 있던 수원사의 주지 교체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탈종 진의 파악 못해 전전긍긍

(재)법보선원 이사장 송담 스님과 문도 이사 스님 등 10명은 재단 법정 대리인인 허은강 변호사를 통해 9월 19일 제적원과 승려증을 당해 본사인 용주사에 제출했다.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탈종공고도 다른 교계 언론에 게재했다.

이를 통해 송담 스님과 문도 스님들은 제적원을 제출하는 사유로 "재단법인 법보선원의 수행전통과 조계종의 수행전통이 맞지 않아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로써 의무와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탈종한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용주사는 제적원을 처리하지 않고 용화선원에 돌려놓고 반려했다. 제적원 접수 직후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상 접수했지만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중 최고 어른의 제적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 중 용화선원을 찾아서 제적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담 스님 등 제적원 제출
총무원장·수좌회 면담 위해
동분서주… 성과는 없어

조계종, 17일 종무회의서
수원사 주지 세영 스님 품신
신도회 18일 비판 공개서한

종단 선지식의 탈종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송담 스님을 만나기 위해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용화선원과 평소 주석처를 찾았지만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해결에 나서겠다는 전국선원수좌회도 송담 스님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모두 탈종의 진의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결국 스님의 제적원 제출을 막지는 못했다.

"주지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 용주사의 갑작스런 수원사 주지 교체는 혼란을 가중시켰다. 조계종 총무원은 9월 17일 종무회의에서 수원사 새 주지로 호법부장 세영 스님을 품신했다. 수원사 前 주지 성관 스님은 지난 5월 임기를 마무리하고 재품신을 받았고, 용주사 주지 선거에 출마했다.

무엇보다 이번 주지 교체는 사실상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용주사는 수말사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새 주지를 품신해왔다. 이는 문중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수원사 주지 품신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반발을 우려해 관례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비판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용주사는 19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담 스님의 탈종 이유 중 하나가 용주사 주지 선거로 빚어진 잡음이었고, 이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수원사 주지 품신은 총무원과 용주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원사 신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사는 1986년 성관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래 30년 동안 끊임없는 불사를 통해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사찰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선거 한달만에 특별한 이유없이 주지를 교체한 것을 신도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수원사 신도회는 9월 17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18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주지 인선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수원사 신도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본사주지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본사 주지 스님은 화합하는 교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진정한 화합의 모습인지 궁금하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말사 주지를 인선하고 해임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신성민 기자

"달라진 종회 선거법 숙지해 주세요"

조계종 중앙선관위, 개정 선거법 숙지 당부

오는 10월16일 열리는 제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법을 숙지해줄 것을 종도들에게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경우 스님은 9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첫 선거"라면서 "개정된 선거법 절차를 숙지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제16대 중앙종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자격심사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은 9월30일~10월1일 예정된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가 끝난 직후부터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다른 교구에서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자가 직접 서면신청을 해야 한다. 투표구를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교구에서 투표할 수 없다.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권에 대해 당해교구의 재적승과 본말사 주지, 교구본사에서 국장이상의 종무원을 1년 이상 상근한 자, 당해교구에서 4년 이상 거주승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0월6일까지 교구선관위원회로 신청해야 한다. 투표구 신청이 없을 경우 1순위는 재적교구로, 2순위는 재직교구로 선거권이 한정된다. 다만 재적교구에서 투표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격심사후 선거운동 가능
원하는 곳에서 투표하려면
10월 6일까지 서면 신청해야

또 유념해야 할 것은 4년 이내에 종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했거나 산중총회에 참석해 점명을 한 경우 투표구 신청에 관계없이 4년 이내 투표권 행사 교구에서 투표해야 한다.

이에 2010년 10월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후 본이니 종회의원 보궐선거 및 산중총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한 교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본인이 4년 이내에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구 신청을 선거권 행사교구로 해야 한다. 타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구를 신청하더라도 선거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거주승 투표권도 크게 제한된다. 지난 15대 선거에서는 다른 교구의 스님이라도 해당 교구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선거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4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해당교구에서 시행한 결계포살에 8회 이상 참석하거나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을 한 자로 한정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거주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11호 INDEX



함께가요 강의실 크리스토퍼 거머 하버드대 교수의 '마음챙김-자기연민의 힘' 8

종합 2·3
규제 개혁에 밀린 전통사찰 보존
선학원, 승적업무 등 독자 행보
'교황 방한' 주제 불교평론 열린논단

신행 6
사찰·신행단체 가을맞이 강좌

학술문화재 9
봉은사와 추사 주제 세미나·전시회



1369주년
개산대재
불기 2558년 10월 2일 本(음 9월 9일)

10월 1일 부도헌다
10월 2일 괘불이운, 법요식, 작은 음악회
10월 3일 어린이 수계식, 작은 음악회, 재롱잔치
10월 4일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10월 5일 다문화공연, 작은 음악회
10월 1일 ~ 10월 5일 국화장엄, 체험행사, 가사배견, 괘불탱전
문 의 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 055) 382-7182 F 055)382-7196 W www.tongdosa.or.kr



가사 불사
입 재 2558년 9월 28일(음 9.5) 오전 10시
회 향 2558년 11월 14일(음 윤 9.22) 오전 10시
동참금 스님 지정 50만원, 대가사 10만원, 오조가사 5만원
*스님을 지정하여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전 예수재
입 재 2558년 9월 28일(음 9.5) 오전 10시
회 향 2558년 11월 16일(음 윤 9.24) 오전 8시
동참금 설판 100만원, 동참 5만원, 영가 1위 1만원
문 의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 명 합장

승적 · 신규사찰 등록… 선학원 독자 행보

(재)선학원, 10월 1일부로 관련 업무 개시 공고

조계종, 이사장 법진 스님 '멸빈'
양측 관계 개선 촉구 주장 제기도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10월 1일부로 승적과 사찰등록업무를 개시한다. 조계종 법인 등록을 거부하고 사실상 독자 행보를 가겠다는 것이다.

선학원은 9월 12일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법인 등록 거부를 재차 확인하고 승적과 사찰등록업무를 개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은 9월 16일부로 승적 업무 개시와 신규사찰 등록을 시작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선학원은 10월 1일부터 창건주 및 분원장과 도제들을 대상으로 승려증을 발급하는 등 독자적으로 승적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또한 소속 승려의 교육과 새로운 승려 양성을 위한 계단도 독립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선학원은 신규사찰 등록도 공고했다. 대상은 선학원 설립 이념과 취지에 부응하고 재단 정관 동의하는 사찰이며, 개시일자는 10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혜자)은 9월 15일 열린 제116차 심판부에서 법진 스님에게 멸빈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진 스님은 조계종의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거부하고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했고 조계종 호법부는 이를 해종행위로 규정했다.

이 같이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종단에게 강경보다 상생적 대응을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은 9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선학원이 이사회 결정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고집한다면 종국에는 종단 재산의 망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분종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조계종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숙고하여 조계종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에 韓 최대 뮤지컬 공연장 선다

설앤컴퍼니와 4일 협약… 1900석 규모

동국대(총장 김희옥)에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들어선다. 김희옥 총장은 9월 4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D-씨어터 컨소시엄(주관사 설앤컴퍼니) 설도윤 대표를 만나, 뮤지컬 전용 공연장 및 교육시설 건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수영장 부지를 개발, 19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교육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동국대에 들어설 공연장은 뮤지컬 전용 공연장으로는 국내 최대인 1900석 규모로 건립된다. 공연장이 완공되면, 동대문 DDP를 시작으로 장충체육관과 국립극장에 이어 한남동 블루스퀘어로 연결되는 서울시 문화벨트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세월호 광장 24시간 합류"

조계종 노동위 등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 법회로 동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계가 재협상에 나선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얼마 전 출범한 2기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노력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노동위 스님과 집행위원들은 9월 22일부터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 합류해 24시간 상주하며 기도와 절, 법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9월 22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의 간단한 입재식을 시작으로 노동위는 향후 세월호 광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실천승가회(상임대표 퇴휴)도 함께한다.

노동위는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불교는 언제쯤 참여할 것인지 묻는 일반인과 종교인들이 많았다"며 "세월호 사고 5개월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촉구에 지금이나마 힘을 보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심주완) 역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단식을 결의했다.

9월 26일에는 팽목항을 방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실종자 귀환을 위한 기도를 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규제 개혁에 밀린 전통사찰 보존

정부, 지난 8월 '역사 보존구역 300m로 축소' 입법예고

정부가 전통사찰을 비롯해 역사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역사문화보존구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입법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8월 21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을 비롯한 역사와 문화지역을 보호하기 위하 지정되는 구역으로 이번 정부의 역사문화보존구역 축소 시행령이 통과되면 앞으로 전통사찰 인근 지역의 난개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사찰 500m이내 지정되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사찰 외곽으로부터 300m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또 지정 때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재산권을 규제하는 내역으로 보고 규제 철폐를 골자로 회의를 열어왔으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토지소유권과 같은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업계획에 대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형태가 전통사찰이나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허가 대상에는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용도 변경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9월 17일 문화재청에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조계종의 공문에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300m로 줄이는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과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하는 부분에 전통사찰 측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입법 통과시 사찰 난개발 우려
지역민 재산 보호만 중점 두고
전통 보존 뒷전… 불교계 반발

조계종, 문화재청에 공문 보내
구역 축소 반대 입장 분명히 해
"현행대로 가야 입법 취지 살아"

전통사찰보존법 중 전통사찰보존구역은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하면 지정해야 하지만, 역사문화보존구역의 경우 요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역도 500m 이내로 임의적으로 정해지기에 규제라는 시각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의 가치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지만 아무래도 보존구역의 상한선이 축소되면 수행환경이 침해받고 사찰 주변이 난개발이 될 위험이 있다. 원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도 "시행령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통사찰들과의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시행령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9월 2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인천아시안게임 동안 운영되는 선수촌 내 불교법당.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아시안 게임 선수들 불교 법당서 힐링하세요"

불교국가 선수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질 불교관이 마련됐다. (사)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종연)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경기에 참가하는 불교국가 선수 임원들이 신앙생활과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불교관을 운영한다. 조계종 포교원, 인천불교조계종사암연합회 등 불교단체들은 불상과 후불탱화, 다기(茶器)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 불교 영문홍보책자를 비치하고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불교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다도체험, 만다라그리기, 명상, 연꽃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글= 이나은 기자, 사진 제공=인천불교총연합회

포교사단 팔재계 수계 법회 연다

9월 27~28일 조계사서…21일엔 울산지역단 창단

포교사단(단장 곽명희)의 연례 행사인 8재계 수계실천 대법회가 9월 27~2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재가자인 포교사들이 하루 만이라도 8재계를 지키면서 출가생활을 체험하는 행사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해는 전국의 4천여 포교사와 함께 5천여 전국 포교단체 소속 재가불자 등 1만 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첫날인 27일 오후 5시 대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입재식 △제8기 전문포교사 및 19기 신규포교사 품수식 △붓다로 살자 동참선언 △8재계 수계식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촛불철야정진을 비롯해 새벽예불과 보살계 수계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품수식에는 일반포교사 752명, 전문포교사 79명, 국제포교사 28명이 품수를 받는다.

곽명희 포교사단장은 "출가한 스님들과 같이 재가의 불교신도들도 일정기간 동안 청정행을 닦게함은 물론 포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 및 바람직한 포교사의 상을 확립하고, 자리이타 정신을 통해 사회적 실천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울산지역단을 창단했다. 울산 · 경남지역단로 통합 · 운영해오던 포교사단은 인적 · 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통도사에서 울산지역단 분단 추진회의를 거쳐 9월 5일 울산지역단장으로 김미경 씨를 선출했다. 울산지역단 창단식은 9월 21일 오후 2시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이나은 기자

"문중 화합 선출, 교구발전으로 이어져"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임명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에 종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17일 경주 불국사 신임 주지 종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종우 스님은 9월 5일 불국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자승 스님은 "문중 화합을 통해 원만하게 신임 주지를 선출했다. 오랫동안 불국사 선원을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도 교구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은 "선원에서 정진하다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면서 "전임 주지셨던 회주 성타 스님과 관장 종상스님이 그동안 불국사를 탄탄하게 잘 이끌어 온 만큼, 그대로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직영사찰에서 해제된 직할사찰 서울 약사사 주지에 무언 스님을 순천 선암사 주지에는 법원 스님(전 호법부 조사국장)을 임명했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이 9월 17일 불국사 신임주지 종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공 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지난 9월 12일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승적 및 신규사찰 등록 업무를 10월 1일부로 개시한다는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승적업무 개시 안내
 가. 대상
  1)재단 승려 창건주 및 분원장과 도제
  2)신규등록 사찰의 승려 창건주 및 분원장과 도제
 나. 개시일자
  불기 2558(2014)년 10월 1일부터

2. 신규사찰 등록 안내
 가. 대상
  1) 선학원 설립이념과 취지에 부응하는 사찰.
  2) 본 재단 정관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에 찬동하는 사찰
 나. 개시일자
  불기 2558(2014)년 10월 1일부터

※ 선학원 승려증 발급을 원하시는 창건주 및 분원장과 도제들은 선학원 홈페이지(www.seonhakwon.or.kr)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재단 사무처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8년 9월 16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성역화·순교史 일반화 등 이면을 보자"

불교평론 열린논단, '교황 방한' 주제로 토론

"교황 방한 이면에 한국천주교의 성지화 작업이 가려져 있다. 가톨릭 순교사를 일반화 시키고 있다." - 이창익 교수

"교황 방한에서 한국불교의 현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화쟁을 얘기하며 사회에 개입하지만 안으로는 더 썩어가고 있다. 진정한 화쟁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 동출 스님

"교황 방한은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일종의 쇼다. 우리도 이러한 감동의 쇼를 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방영준 교수

교황 방한이 불교계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불교계 지성인들이 모여 교황 방안의 의미와 종교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불교평론〉이 9월 18일 서울 강남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이 한국 종교계에 던진 화두'를 주제로 연 9월 열린논단에서는 교황방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종교계의 발전방안이 나왔다.

방한 이면에 천주교 성지화 작업

먼저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이창익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가톨릭계가 광화문이라는 국가적인 상징공간에서 시복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 일부는 불편하게 생각했다"며 "이후 광화문 광장이 종교적 의식 장소로 변질될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교황 방한 이면에는 한국천주교계의 '성지화 작업'을 포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며 "조선시대 암자였지만 불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천주교 천진암 성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종교의 성지화 작업이 다른 종교나 시민사회의 공간을 뺏는 것임을 직시해야 진정한 종교화합과 평화가 온다"고 지적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황 방한에 대한 열기도, 정치권의 여론몰이 영향이 컸음을 밝혔다.

장 원장은 "사실 교황은 종교인으로서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라며 "교황 방한일정을 정치권이 서로 이용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열기를 고조시켰고, 미디어에 의한 과한 열기는 오히려 교황 방한 이후 한국사회가 변화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9월 18일 토론을 진행하는 열린 논단 참석자들

교황 방한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톨릭 신자 순교사 일반화 성역화 작업… 천진암 대표 사례"
현대사회 종교들은 희생을 했는가
기존 종교 불만이 '국민 열광' 이유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반대로 이러한 일종의 신드롬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방 교수는 "교황 방한이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일종의 쇼라면 한국종교계가 이렇게라도 감동을 주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들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갖추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가 스스로 희생하는 시대돼야

토론회에서는 국가적인 심적공백 상태에서 종교계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화두로 진행됐다.

배광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종교는 신심을 바탕으로 한 개인을 희생해 유지돼왔지만 이러한 개인들을 위해 종교가 희생하는 모습은 거의 없다. 종교가 대형화되며 서로 평화를 얘기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출 스님도 "불교계에서 화쟁을 얘기하며 쌍용차 문제 등 사회문제에 개입하지만 정작 종단 안으로는 더 썩어가고 있다. 진정한 화쟁은 우리부터 깨끗해 질 때 시작된다"고 말했다.

하춘생 박사도 "교황방한에 시민들이 열광한 것은 기존 정치지도자나 종교계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세월호 사태로 인한 심적 공백 상태에서 종교적 대응이 미흡했고, 그 이후 과정에서 교황 방한이 이뤄졌다. 앞으로 국가적인 심적 공백 상태에서 종교계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찾는것은 남은 과제"라고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숭산 스님 전 세계 제자 '한곳에'

계룡산 무상사, 숭산 스님 열반 10주년 세계일화대회

한국불교 세계화의 산증인인 숭산 스님〈사진〉의 열반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제자들이 한국에 모인다.

국제 관음선원과 계룡사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대봉)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 충남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10회 세계일화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덕숭총림 수덕사와 화계사가 공동후원한다.

세계일화대회는 1987년 숭산 스님이 전세계 제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불교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펴기 위해 시작한 국제선불교장으로 3년을 주기로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개최돼 왔다.

올해 대회 주제는 '세세생생 보살도'로 미국, 독일, 호주, 이스라엘,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300여명이 등록했다. 여기에 숭산 스님의 열반 10주기와 맞물리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세계일화대회는 본회의와 워크숍, 부대행사 등으로는 나눠 이뤄진다.

10월 18~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참선수행과 직업'과 '젊은 층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10월 25일 서울대에서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참선 실수 워크숍이 열린다. 또한 10월 20일에는 계룡산 무상사에서 숭산 스님 열반 10주년 추모 다례재가 봉행되며 석남사, 범어사 등 한국 사찰을 순례할 예정이다.

대회 본회의와 워크숍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대봉 스님과 리쳐드 쉬로브(뉴욕 공인 심리요법가), 신성림(미국 하버드대학교 학생 심리상담사), 크리스탈 고(런던대 신경과학 박사), 쟌 세츠미르(환경기후통제 연구학자)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10월 18~19일 대회 본회의
10월 20일 숭산 스님 추모재
서울대서 참선 실수 워크숍도

무상사 주지 대봉 스님은 "이번 대회는 불교적 가르침으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또한 젊은 세대에게 참선수행이 어떻게 직업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되고 적용되는 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20년 위한 제언 사부대중 토론회 열린다

조계종 종단개혁2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0월 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단개혁불사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향후 종단의 미래를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4월 10일 '94년 종단 개혁의 의미와 성과' 주제 1차 세미나, 7월 10일 '개혁불사 20년, 무엇이 변화했는가' 주제 2차 세미나에 이은 세 번째 세미나다.

추진위는 "종단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조망하고 종단의 미래 지향을 정리함으로써 종단개혁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종단의 미래 지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개혁정신에 근거한 종단의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94년 개혁의 주체로 참여했던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종단의 미래 20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윤승룡 교수와 일문스님(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류지호 월간 불광 주간,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신성민 기자

손 맞잡고 한마음…종교화합·희망 노래

종지협, 제18회 종교문화축제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 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서울 청계광장에 국민·종교간 화합을 기원하는 '뭉게구름' 노랫소리가 30명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에 의해 울려퍼졌다. 제18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가 9월 13일 개막한 것.

매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자승)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참여한다.

올해는 '너, 나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종교 체험관, 종교문화사진전, 희망엽서쓰기, 콘서트 등이 개최됐다.

자승 스님은 개최사를 통해 "종교문화축제는 상생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다.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한 아픔과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이번 축제덕분에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9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8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사진은 불교 등 7대 종교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오후 6시부터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희망콘서트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소외계층 2백여 명이 초청돼 여성성직자 모임인 '삼소회', '레인보우합창단', 비보이 '라스트포원', 퓨전국악 '하나연', 아이돌 그룹 '레인보우' 등의 공연을 즐겼다.

앞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종교 체험관에서는 종이 연꽃 만들기, 티셔츠 프린팅, 묵주 만들기, 한복 입기 등이 각 종교 특색에 맞춰 진행됐다. 불교 부스에서는 이날 준비한 1천개의 연꽃과 단청이 동날 정도로 연꽃 만들기와 단청 그리기가 가족 단위 체험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엄연한 '寺址'인데 연등 철거 요구라니

여주지역 성당 "주어사지 연등 제거" 요구 '물의'

2교구 신도회 14일 철거 막아
"가톨릭 전파에 불교 도움"

가톨릭계가 여주 주어사지 원형복원 기도를 위해 불교계가 설치한 연등에 대한 철거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회장 민학기)는 최근 여주지역 한 성당으로부터 주어사지에 설치된 연등을 철거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회가 정한 '순교자 성월'을 맞아 14일 60여명의 신도들이 주어사지를 방문하니 불교관련 설치물을 거둬달라는 요청이었다.

주어사지는 조선시대 스님들이 가톨릭 신자들을 보호하다 폐사된 곳으로 7월 6일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의 복원기도 입재 이후 수원 용주사 등 지역 사찰들이 월 2회 정기 순례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14일 교구신도회 관계자들은 주어사지를 방문해 천주교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연등 철거를 막았다.

천주교 수원교구 최덕기 주교는 "이곳이 종교화합의 성지로 가꿔갔으면 한다. 이웃종교 입장에서는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시설물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등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학기 제2교구신도회장은 "가톨릭이 이 땅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한국불교의 희생도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함께 복원돼야 한다"며 "지난 가톨릭 성역화 사업으로 불교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천진암에 대한 재조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교구신도회는 경기도와 여주시에 주어사지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제2차 임시총회 결과 공고

■ 총회 일시 : 2014년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 총회 장소 :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 회의실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세종로 4928)
■ 참석 인원 : 총원 104명 중 93명
■ 참석총회 주관 : 임시의장 상원(이동규) 부이사장
■ 총회 진행 : 사회 – 총무부장 광은, 집전 – 교무부장 법광
■ 총회 공증 : 청암 법무법인 도병수 변호사

▶ 안건 및 의결 결과 ◀

1. 前 이사장 성각(오주상)스님 해임의 건

□ 발의 : 법인정관 제23조 제1항에 의거, 이사장 및 이사직의 사임과 탈종공고를 했으므로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오주상 전 이사장의 해임 건.

■ 의결 : 제명처리 (전원 찬성)

2. 법인 종명 개정의 건

□ 발의 : 법인정관 제30조 제4호에 의거, 법인 인감 분실로 인한 추후 사고 예방과 군소종단을 벗어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종명 개정의 건.

■ 의결 : 제1안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제2안 사단법인 한국불교 선교종으로 종명 개정 의결 (전원 찬성)

3. 법인정관 수정의 건

□ 발의 : 법인정관 제30조 제4호에 의거, 정관의 오타 및 중복 등재된 내용 수정과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추가, 변경의 건.
제4조(사업)불필요한부분 삭제, 제7조(회원의 의무) 신설, 제9조(회원의 상벌) 보완, 제11조(임원의 선임)신설, 제12조(임원의해임)보완, 제17조(이사장의직무대행)보완, 제19조(총회의구성)삭제, 제21조(총회의소집특례)보완, 제22조(의결정족수)보완, 제23조(총회의기능)보완 및 신설, 제26조(구분및소집)보완 및 신설, 제27조(이사회소집의특례)보완, 제28조(서면결의)보완, 제29조(의결정족수)보완, 제30조(이사회의의결사항)보완 및 신설, 제33조(수입금)보완, 제41조(법인해산)보완, 제42조(정관변경)보완, 부착신설. 이상 19개 항목에 대한 수정 보완.

■ 의결 : 수정 보완 의결 (전원 찬성)

4. 신임 이사장 선출의 건

□ 발의 : 본 법인의 신임 이사장직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출 : 화엄(김광옥)스님 (추천에 의한 전원 찬성)

신임 이사장 화엄(김광옥)스님의 인사말씀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정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원만한 대화와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 한마음으로 하나되는 종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불기 2558(2014)년 9월 18일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일 주 문



조계종 제24교구신도회 창립법회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9월 21일 고창 선운사에서 제24교구신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보살계 합동수계식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10월 18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보살계 합동 수계식을 연다.(063)548-4441



정각원, 토요법회 7돌 기념법회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9월 20일 토요법회 7주년을 맞아 정각원에서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별, 미래를 수놓다' 기획전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혜거 스님은 12월 21일까지 서울 탄허기념박물관 방산굴에서 탄허 사상을 조명하는 '별, 미래를 수놓다' 기획전을 개최한다.



대구불교사원주지聯 회장 추대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은 9월 2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별관 2층에서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12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산청 보림선원 추계 철야정진

산청 보림선원 전근홍 거사는 10월 17~19일 백봉 김기추 거사의 녹취집을 교재로 추계 참선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한다.(055)972-9555



불교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10월 10일~11월 14일 '불교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를 진행한다.



한글대장경 구성과 번역 발표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9월 26일 연세대에서 열리는 언어정보연구원 학술발표회에서 '한글대장경의 구성과 번역의 문제' 를 발표한다.



여의도포교원 특별강좌

강형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은 9월 18일 여의도포교원에서 열린 9월 언론인 정기법회에서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화촉 극단 나마스떼 양우성 대표

불교 극단 나마스떼 양우성 대표는 10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성균관대 유림회관 파티움 실내전통홀 지하 1층서 안선영 씨와 화촉을 밝힌다.

"新 불광운동 펼치는 계기로"

'佛光' 창간 40주년 맞는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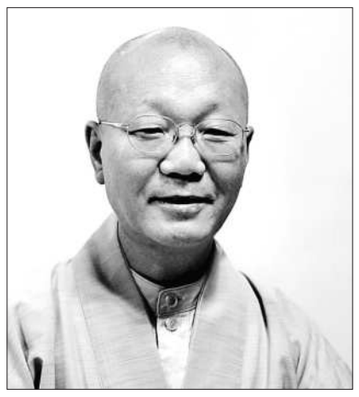
재가불교, 도심포교 활성화에 선구적 역할을 해온 전법지 〈불광〉(佛光)이 창간 40년을 맞았다. 〈불광〉은 광덕 스님(1927~1999)이 1974년 11월 홀로 창간한 이후 이독자들이 불광법회를 구성하며 현재 불광법회와 불광사의 모태가 됐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사진〉은 9월 16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광 40주년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지홍 스님은 "40년 전 광덕 스님은 우리 민족과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썼다"며 "이제 지난 4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발전 방향에 앞서 지홍 스님은 〈불광〉 창간 당시의 어려움을 회고 했다. 스님은 "광덕 스님께서는 몇몇 도반의 손을 빌리긴 했지만 직접 글을 쓰고 편집해 홀로 만들다 시피 했다"며 "당시 〈불광〉을 접한 43명의 불자들이 이듬해 법석을 열자며 대각사에 모인 것이 불광법회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이어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이 모이며 현재 1만명의 불광공동체가 형성됐다"며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전법에 모범과 전례를 제시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74년 창간, 75년 불광법회 모태
지난해 불광법당 신축 불사 완공
수행공동체와 승가복지 비전 제시

지홍 스님은 "지난해 불광법당 신축불사로 제2의 불광운동을 펼쳐나갈 근본도량이 마련된 만큼 전법을 위한 새로운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특히 수행공동체 구성과 승가복지의 기반 마련 등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불광운동의 새 비전으로 △수행공동체 건설 △신행공동체 건설 △송파 문화공동체 건설 △불광정신 계승 및 강화를 제시했다.

수행공동체로는 출가자 교육지원 및 승가복지 제도 마련이, 신행공동체에는 불자종합노인요양시설 마련 및 노인돌봄 제도 마련, 장례 천도제도 내실화, 복지법인 설립 및 복지업무 전문화, 송파 문화공동체 형성으로는 불광자원봉사센터 내실화 및 도서관 운영, 유치원 및 어린이 교육 다변화, 불광정신 계승으로는 2015년 교육교재 발간 및 뉴미디어 전법단 구성 등을 들었다.

"불광은 600년 동안 핍박받고 소외받아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불교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광덕 스님의 원력을 이어 기복불교에서 탈피해 지혜를 배우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새로운 불광운동이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불광사는 〈불광〉 창립 40주년을 맞아 광덕 스님의 전법 정신과 불광 운동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먼저 10월 12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불광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연다.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법사로 나서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19일 오후 7시에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광덕 스님이 작사하고,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작곡한 보현행원송 대공연이 열리며, 앞서 9월 27일에는 불광교육원이 개최하는 광덕 스님 사상 재조명 세미나도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화 주역' 청담 스님 동상 건립

모교인 경남과기대 교정서 9월 17일 제막식


청담 스님 동상과 선시비

한국 불교 정화운동을 이끌었던 청담 스님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스님의 모교인 경남과학기술대 교정에 세워졌다.

경남과학기술대 청담사상연구소(소장 허익구)는 9월 17일 교내에서 청담스님 선시비에서 스님의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과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스님, 청담문도회 스님을 비롯해 권진택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진주지역 재가단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스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운 자가 승리자가 되는 법을 알라며, 항상 남에게 좀 지고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면서 "스님의 사상이 모교 후학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동상을 조성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청담 스님의 동상 제작은 청담장학문화재단과 청담사상연구소, 청담문도회가 뜻을 모아 조성했으며, 3개월 제작기간을 거쳐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아랫줄 왼쪽부터 4번째 이영채 일념장학회 이사장, 5번째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9월 19일 동국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일념장학회 장학금은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10명의 학생이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2014학년도 2학기 일념장학금 수혜자는 정원준(해운 스님, 불교학 4년), 엄경현(현조 스님, 불교학 2년), 박도경(영어영문학 3년), 김남경(조경학 4년) 등 총 10명이다.

일념장학회는 1995년 이영채 이사장을 중심으로 11명의 불자들이 불교인재 양성에 뜻을 두고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승가대학 및 종립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에도 2009년 일념장학회를 설립하여 2014년까지 총 71명에게 7,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덕현 기자

관음종, 수계산림 및 개산조 다례재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9월 18일 총본산인 서울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홍파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영산계단 수계산림 구족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식에 앞서서 지난 9월 15일부터는 수계산림 입재에 들어가 사미 4명, 사미니 6명에 대한 교육과 습의를 실시했으며, 18일에 비구 4명, 비구니 6명 등 총 10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또한 수계법회를 마친 후에는 원통보전으로 자리를 옮겨 개산조인 태허조사 탄신 110주년을 맞아 다례법회도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광주불교방송 신사옥 첫 송출식



광주불교방송(사장 이민수)이 신사옥 이전과 함께 첫 송출식을 가졌다. 지난 9월 18일 서구 치평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광주불교방송은 20년간의 임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전 기념식과 송출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스님, 울산불교방송 오심스님,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박주선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와 100여 명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사장 인사말, 축사, 송출식, 생방송 프로그램 견학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인 재능나눔 활동사업 발대식

고창군사회복지지설(관장 대원)은 9월 19일 고창 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노인 재능나눔 활동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재능나눔 활동사업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 재능나눔 활동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개요 설명에 이어 선서문 낭독,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권익증진 소양교육, 고창군보건소 치매예방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선발된 30명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거나 10만원 미만 수급자로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지역사회 재능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3회 이상, 10시간 활동으로 1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주요활동은 사회복지시설 탁구, 바둑, 당구 등 생활스포츠 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위문공연, 노인인식개선사업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 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15일 발표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4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사 1부
- 최종석적증명 1부(영문) • 여권용사진 10매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10월 31일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南京中醫學大學 1954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천상의 왕국을 찾아서, 부탄
행복한 나라 1순위 부탄,
부탄국왕초청 혜인스님과 함께

네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기도드리는 신도들


▲룸비니동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룸비니동산 입구

◆날 짜 : 10월 예정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조계종은 9월 17일 조계사에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시민 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차대회에서 조계종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이 같은 연대의 첫 걸음으로 12개 사찰은 12개 관련 단체와 후원 결연을 맺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대회 참가 스님들이 초청 시민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삼화사 국행수륙재 보존위원회가 가난과 장애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十匙一飯' 가르침 통해 빈곤문제 해결"

〈십시일반〉

조계종, 9월 17일 조계사서 빈곤문제 해결 위한 무차대회

한국은 고도성장사회다.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양극화와 사회소외계층으로 대변되는 그림자도 분명 존재한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인 '사회임금' 은 가처분 소득의 12.9%로 OECD 평균인 40.7%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 소외계층 복지정책이라고 시행하고 있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는 오히려 빈곤과 낙인의 사슬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게 사회의 그늘진 곳에 시름하고 있는 빈곤층과 장애인, 홈리스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17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시민 초청 무차대회' 를 개최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와 빈곤사회연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무차대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단체 회원, 쪽방주민, 홈리스야학 학생, 빈곤층 어르신, 거리노숙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의 시작은 가난으로 세상을 등진 사람과 장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재가 알렸다. 삼화사 국행수륙재 보존위원회가 진행한 위령재를 통해 대중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장애인과 빈곤층의 명복을 빌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현 시대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높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양산되는 양극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소위 복지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 극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은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불자들은 매일 '중생무변서원도' 를 서원하고 있다. 부처님도 '여럿이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있어도 하나가 여럿을 처다보기 어려우며 모두가 십시일반해야 한다' 고 설했다"면서 "이는 오늘 무차대회의 깊은 뜻이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자는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적지 않은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에 대한 성토와 빈곤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강동진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정책위원은 '한국사회 빈곤실태와 빈곤해소를 위한 제안' 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투기 규제 · 재벌 개혁 등 실질적 재분배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이야기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제 때문에 빈곤층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400만 명에 달한다"면서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이뤄졌다. 김성태 노년 유니온 위원장은 "아직 일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퇴직하면서 '시니어 보릿고개' 를 겪고 있다"면서 "보편적 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종교인들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서원문과 발원문을 대표로 발표한 박경석 빈곤사회연대 대표와 기획실장 일감 스님. 스님은 단상까지 박 대표의 휠체어를 끌었다.

장애인 · 홈리스 등 300여 명 참여
부양의무제 · 장애등급제 폐지 주장
"빈곤과 낙인의 사슬을 끊어달라"

자승 스님 등 배식봉사… 情 나눠
12개 사찰 · 단체 결연맺고 지원 약속
'사회정의실천불교위원회' 구성 모색

조성래 노숙인공동실천단 살림팀장은 빈곤의 사슬로 천륜까지 져버리게 하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했다. 조 팀장은 "건강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50대 가장은 이혼한 아내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의 교육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면서 "허울만 있는 복지제도인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불교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인과 가난한 시민들의 서원과 불교계의 노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발원문이 각각 발표됐다.

박경석 빈곤사회연대 대표는 서원문을 통해 빈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빈민 · 장애인 문제 해결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부터 시작된다"면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원조로 이뤄지지 않는다. 장기적인 계획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호소에 조계종 무차대회 참가대중은 꾸준한 관심을 다짐했다.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한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우리 불교인들은 그동안 빈곤문제 해결에 대해 다소 부족했던 점을 금번 무차대회를 계기로 깊이 성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대와 빈곤해소 · 인권 정의를 위한 '사회정의실천불교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이 같은 연대의 첫 걸음은 빈곤 등 사회 소외계층 단체와 사찰의 후원 결연이었다. 이날 무차대회에서 금정사, 봉인사, 대관음사, 흥천사, 장경사, 자재암, 마하사, 대성사, 대원정사, 봉림사 등 12개 사찰은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노들야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단체에 대해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 형식으로 2년 후원을 약정했다.

결연식 후에는 이날 참석자들이 각자의 소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이뤄졌다.

대회는 훈훈한 정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총무부장 정만 스님 등 대회 참가 스님들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초청 시민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나섰다. 배식 이후에는 스님과 초청 시민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초청 시민들은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준호(72) 씨는 "오랜만에 사찰에 와서 맛있는 공양까지 할 수 있으니 기분이 좋다. 스님들도 매우 친절하시다.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39,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는 "사찰에 온 것이 처음이다.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오늘 서원했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연을 진행한 강동진 위원은 "빈곤문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는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수순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는 불교계 내부적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사"고 평가했다.

글=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다문화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지혜로운여성 회원들이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9월 14일 펼치고 있다.

9월 14 · 21일 조계사 봉은사서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정경연)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혜로운여성은 9월 14 · 21일 두 차례에 걸쳐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여성가족부 2014년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의 다문화 시민성 함양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이 행복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활동으로 준비했다.

한편 지혜로운여성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 다문화가족법회를 열고 있으며, 9월 28일에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임진각 나들이를 할 예정이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아동 정서지원 멘토링 희망 기관 모집

자비의 전화, 오는 11월까지 아동마음자람 멘토 파견

사단법인 자비의전화(대표이사 도현)는 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재단 및 지역아동복지센터 등에 아동마음자람 멘토 20여 명을 파견한다.

자비의전화는 지난 7월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아동 마음자람 멘토 양성교육'을 실시해 멘토 20여 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34시간 교육 기간 동안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동의 정서지원에 필요한 주제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지도하는 집약적 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서지원 멘토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서부터 아동기의 심리적 발달 특성과 성교육, 공감과 지지기법을 익히고 가족 및 친구관계를 돈독히 하는 의사소통 기법과 더불어 통합예술치료기법도 함께 배웠다. 멘토들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의 심리 · 정서적 지원을 도울 예정이다.

자비의 전화는 "전문심리상담사와 일반적인 멘토의 중간 단계로 심리상담을 해줄 수 있는 멘토링으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자비의 전화로 접수하면 되며, 멘토 1인당 8회기에 걸쳐 파견될 예정이다. 파견 비용은 여성가족부 기금에서 지원된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제35기 기초불교 영어강좌 열어

국제포교사회, 9월 27일~12월 6일까지 10주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는 '제35기 기초불교 영어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9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간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부처님의 생애, 불교교리, 불교문화 등 불교전반에 대해 진행되며,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고자 원하는 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 과정은 조계종 교육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스님 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과정을 수료할 경우 국제포교사자격고시 시험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9월 27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신청서는 이메일(ipogyo@buddhism.or.kr)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제포교사 홈페이지(www.idia.or.kr)를 참조하거나 국제포교사회로 문의하면 된다. (02)722-2206

이나은 기자

천고마비, 교리공부로 내 마음도 살찌우자

사찰 및 신도단체 불교강좌 풍성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청명한 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는 삶을 돌아보고 사색하기 좋은 때다. 올 하반기에는 공부로 마음을 달래보는 것이 어떨까.

사찰과 재가신행단체에서는 불교기초교리, 마음치유 강좌, 불교영어강좌 등 다양한 강좌로 불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인문학 열풍을 반영해 철학 · 심리학 · 물리학 등 인문학을 접목한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다.

동국대는 서울시 후원으로 동국대 시민대학 '마음의 인문학'을 12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강좌는 매주 목요일 서울 동국대 사회과학관에서 열리며 △특화과정 마가스님(동국대 정각원)의 '깨닫는 마음'을 추구하는 불타(佛陀)인문학 △심화 과정 홍윤기 교수(동국대 철학과)의 '깨어있는 마음'을 추구하는 시민인문학 △자율 과정 남성일 강사(동국대 철학과)의 '욕망하는 마음'을 위한 경제인문학이 마련됐다.

마가 스님의 강좌는 생활에서 겪는 괴로움을 〈숫타니타파〉 〈아함경〉 〈반야심경〉 등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가능성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남성일 강사의 자율 과정은 경제발전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욕망을 충족하는 능력은 확보했지만 불균등과 양극화 등 위기를 겪게 된 인간의 삶을 짚어보는 시간이다. 홍윤기 교수의 심화과정은 지배층의 무능력과 비리로 국가위기에 봉착했을 때 항상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였던 시민의 '깨어 있는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됐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다.

동국대는 "강좌들은 서울시민이 자긍심



사찰과 재가신행단체는 다양한 강좌를 열어 불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인문학 열풍을 반영해 철학 · 심리학 · 물리학 등 인문학을 접목한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동국대 시민대학, 마음인문학 강좌
김성구 교수, 불교과학 아카데미 개설
봉은사, 불교영어강의 마련
여성개발원, 죽음 주제 웰다잉 특강

과 교양을 갖추어 세계시민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02)2133-3966

불교과학을 공부하는 템플스테이도 진행된다.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함양 약천사에 **'불교과학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매월 첫째 토요일 1박 2일 일정 '불교와 현대물리학' 및 '불교와 인지과학' 등을 강의한다. 매월 둘째 일요일에는 수원 장안구 이목동 장안힐스테이트 211동 1601호에서 같은 주제로 불교과학 강좌를 연다.

김성구 교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000년 전 인도인의 지적 수준에 맞게 설법한 불교교리를 현대적 용어와 개념으로 할 것"이라며 "강의에서는 연기법, 공, 중도, 일심사상 등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현대물학적으로 해설하고, 불교 수행법의 의미를 인지 과학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과학아카데미의 모집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숙식이 제공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과학아카데미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healingwe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9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내 수련원에서 글로벌 포교와 불교영어 희망자 저변확대를 위해 불교기본교리, 불교문화 등을 영어로 교육하는 강좌를 마련했다. 강좌는 '부처님의 일생(Life of the Buddha), 부처님의 가르침(Buddha's Teaching)'을 주제로 봉은사 템프스테이국장 혜연 스님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2시간동안 강의하며 불교영어에 저명한 스님 및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도 진행한다. 불교영어에 관심이 있는 일반 불자를 비롯한 기본적인 문장을 읽고 해석이 가능한 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02)3218-4895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10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지혜실에서 승만경 강좌를 진행한다.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을 강사로 승만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행실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와함께 12월 4일까지 '웰다잉지도자 고급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김윤덕 서울북부병원 전문의의 '죽음의 유형' 강의를 시작으로 이경욱 원광대 교수의 '발달 심리학과 노인심리', 성태용 건국대 교수의 '불교와 유교의 죽음관', 하수경 전주대학교 명예교수의 '민간신앙에서 본 죽음관', 미카엘 신부의 '천주교 죽음관',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의 '기독교 죽음관' 등 종교별 죽음관에 대해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02)722-2101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 〈직지심체요절〉 강좌를 진행한다. 범준 스님이 강사로 〈직지〉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또한 불광사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불광교육원에서 초기경전 읽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번역된 니까야 책을 읽어나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417-2551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이 진행하는 토요 명상반은 티베트 스님들의 저서를 읽고 공부하는 모임을 진행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불교영어도서관에서 아남툽텐 린포체의 〈알아차림의 기적〉을 읽고 마음의 본성에 대해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30~55세 청장년층 대상

날마다좋은날,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본부장 박주언)는 불교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8기를 모집,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주에 걸쳐 운영한다. 강좌는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매주 화 ·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창업아카데미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30~55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강의 내용은 불교사회적경제 콘텐츠 개발 및 소셜 미션 수립을 위한 중점 교육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진입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실전위주의 교육 및 멘토 지원과 전문성을 강화한 강의도 마련된다.

교육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 설립 프로세스를 시작으로 실질적 사회적기업 창업과 운영의 기본을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사회적기업가 육성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의 현장 강의를 통해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전위주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과정에 70% 이상 출석 한 사람은 (사)날마다 좋은날에서 수여하는 수료증을 발급받으며 창업 팀별로 1년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진입을 위해 교육 후 집중 컨설팅과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사)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는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총 7기까지 진행, 21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그 중 70%가 50세 이상으로 시니어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교육과 멘토링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해 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불교의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개발 · 발굴하는데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해왔으며 그 성과 또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과정'의 운영기관으로 첫 선정돼, 수료생 25명 중 4팀(해피마중물, K-bridge, 강사테라피스트 협동조합, 엄마놀이터)이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진출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1년간 2000~4000만원 사업비를 지원 받아 현재 사회적기업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인 7기 아카데미 시니어 수강생 28명 중 3명이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창업부문 예선 진출의 쾌거를 이루었다.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일반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 성공을 목표로 하는 스타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2-7273

이나은 기자

제43회 일붕문도의 날 봉축대법회 및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탄신 1백주년 기념비 제막식

제21대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 임원진 취임식 (고문단, 총재단, 회장, 부회장단, 각지회장)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탄신100주년 기념비 모습

초대의 말씀 - 아 래 -

귀의 삼보하옵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부처님의 가호아래 일붕 존자님의 가피가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대학원장, 경주 불국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국가보위 입법의원 등 수많은 직책을 역임하시고 국내외 유명대학교에서 126개의 박사학위를 받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 되어있는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 탄신 1백주년을 맞아 기념비를 건립하고 공익법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에서 제43회 일붕문도의 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어 일붕 존자님의 사상을 고취 시키고 일붕문도가 화합 단결하여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2558(2014)년 9월

초 청 인

고문(대표)	봉암 장연종	상임부총재	지공 엄외출
총 재	무찰 김태현	부 총 재	청운 박청운
수석부총재	지산 김노	회 장	송산
		사 무 총 장	서병열

◎ 행사제목
- ●제1부 : 세계법왕일붕 존자상 점안식 (오전10시~)
- ●제2부 : 세계법왕 일붕존자 탄신 1백주년 기념비 제막식 및 제43회 일붕문도의 날 봉축대법회 (오전11시~) (제21대 일붕문도중앙회 임원진 취임식 및 추대장, 위촉장, 선임장, 임명장 수여식)
- ●제3부 : 축하공연 (12시30분~)

◎ 일시 : 불기2558(2014년) 양력 10월 5일 (음력9월12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안성 영평사 (031-676-3960)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길 74-2)
◎ 전화 : (02)777-0901, 777-0959
◎ 주최, 주관 : 공익법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 후원 :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 (사)대한불교수미산문 조동정종 총본산 영평사, BTN불교TV, 일붕신문사, 일붕방송

◎ 중앙회 : 경기도 하남시 학암로 29(감이동)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내) ◎ 사무처 : 서울 중구 서소문로 81 혜명빌딩 6층 ◎ 전화 : 02-777-0901 ◎ 전송 : 02-756-1227

불교 사회복지인들 화합위한 첫 한마당

9월 26일 제1회 붓다복지향기축제



급여에 비해 과다한 업무, 서비스 민원인들과의 마찰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돼온 사회복지사. 소외계층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복지는 뒤로 미뤄왔던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지난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주최한 혜민 스님 초청 마음치유강좌에 이은 놀이마당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소속 조계종시설장협의회(회장 상덕)는 제1회 붓다복지향기축제를 개최한다. 9월 26일 동국대 실내체육관에서 조계종시설장협의회 소속 복지인 5백명이 참석하는 축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친 복지사들의 심신을 힐링하는 동시에 불교계 복지인들이 함께 모여 신명나고 즐거운 축제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선 복지사들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민지 사회복지사는 "재단산하직원이 하나되어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꾸준히 진행되다보면 타 복지사들과 교류하며 유대관계도 돈독해지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붓다복지향기축제는 문화공연과 체육대회로 소박하게 이뤄진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풍물패, 서울예대 치어리딩 · 밸리댄스 · 옥수복지관 청소년 댄스 동아리 등이 출연한다. 이어 복지사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시설장협의회장 상덕 스님(옥수복지관장)은 "부처님께서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구원하듯, 이번 축제는 복지 보살행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불교복지인들을 격려하고 긍정의 힘을 충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


직무 스트레스에 심신이 지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산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혜민 스님 마음치유 콘서트. 참가자들은 이날 혜민 스님 덕분에 마음껏 웃으며 일상의 무거움을 털어냈다.

조계종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 주최
78기관 5백여명 참석 문화체육대회
복지전문성 위한 연수·정보 공유도

조계종시설장협의회는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 시설장 모임으로 2005년 창립, 현재 78개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전문 복지센터 등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다. 복지시설간 네트워크를 강화, 서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생겨났다.

상덕 스님은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나 정보 공유 시스템이 미약해 홀로 고군분투하다 지쳐서 그만두는 분들을 여럿 봤다"며 "같은 재단에 소속돼 있는 만큼 상부상조하며 고충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인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부터 후원개발, 직원관리 등 복지관 운영에 대한 실질적 팁을 공유한다.

창립이후 활동이 정체되어 있다 올해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영남, 호남, 강원, 경기, 서울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서로간 유대를 강화, 사업 아이디어도 나눈다. 물적,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복지관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지역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직이 일찍 활성화됐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방의 한 시설장은 "지역 복지법인들은 아무래도 서울 중앙에 비해 사업규모 등에서 위축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자연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 · 협조에 있어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근 그가 속해 있는 법인 시설 중 한 곳은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전환됐다. 자부담을 들여 10년간 살뜰하게 운영해왔지만 지자체에서 '한 법인이 다수의 시설을 운영한다' 는 이유를 내세우며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앙협의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덕 스님 역시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행보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총회에서 협회장이 된 조계종시설장협의회는 제5대 회장으로 상덕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스님은 2년간 회장으로 협의회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상덕 스님은 최근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시장상을 받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초콜릿 가득 도넛먹고 기부도 하고

합천평화의집–도넛플랜트뉴욕시티 협약

한국원폭2세환우의 쉼터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이 도넛 전문점 '도넛 플랜트 뉴욕시티' 와 9월 17일 후원 약정을 체결했다.

도넛 플랜트 뉴욕시티측은 이번 후원 약정을 통해 판매상품 중 '마르코 세트' 판매액의 10%를 원폭피해자와 2,3세 지원활동을 하는 합천평화의집에 후원하기로 했다.

도넛 플랜트 뉴욕시티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는 창업자 마크 이즈리얼의 이념에 따라 천연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해 직접 손으로 만드는 도넛 전문점으로 유명하다.

마르코 세트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초콜렛 도넛' 의 프로모션 상품으로, 도넛을 좋아하는 주인공 다운증후군 소년 마르코의 이름에서 따왔다.

도넛 플랜트 뉴욕시티의 조선익 상무는 "영화 상영 기간이 끝난 뒤에도 마르코 세트의 판매액 10%를 지속적으로 합천평화의집에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前환경부장관인 합천평화의집 윤여준 원장은 "도넛 플랜트 뉴욕시티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에 동참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힘을 갖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밝혔다.

합천평화의집은 원폭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활동, 원폭피해자와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핵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비핵 · 평화의 실현을 위한 평화운동에도 힘쓰고 있다. **배현진 기자**



합천평화의집과 도넛 플랜트 뉴욕시티의 협약체결식에서 윤여준 원장(오른쪽에서 두 번)과 조선익 도넛 플랜트 뉴욕시티 상무(왼쪽에서 두 번째)

송산복지관–동대 연우회 양한방 무료진료


동국대 일산병원 봉사단인 연우회가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어르신에게 운동치료를 해주고 있다.

의정부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일)에서는 9월 13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봉사단인 연우회와 함께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위한 양 · 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연우회 봉사단원 24명은 이른 아침부터 접수 및 기초건강체크를 시작으로 건강 상담, 물리치료, 침술처방, 약 처방 등의 질 높은 맞춤형 양 · 한방 서비스를 약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이번 무료 양 · 한방진료를 찾은 한 어르신은 "허리수술 통증으로 고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찾아와 진료도 봐 주시고 침도 놓아주고 약도 처방해주니 너무 편하고 좋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연우회 관계자는 "이번 무료진료를 통해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찾아와 무료진료를 실시, 송산노인종합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불교사회복지대회 유공자 추천 접수

10월 17일까지… 총무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불교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포상하기 위한 유공자 접수를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추천은 불교계 사회복지 법인, 시설, 단체 등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자원봉사자는 총 1천시간 이상 또는 5년 이상 꾸준히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수상자 규모는 부문별 약간명이며 이들에게는 조계종총무원장 표창과 함께 상금 혹은 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또한 유공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상신할 예정이다.

접수는 우편으로 발송 후 이메일로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재단측은 "불교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과 홍보를 통해 불교사회복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불교사회복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2)723-5101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희망나눔 일일호프… 장애인 기금 마련

경기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관장 성행)에서는 저소득 지역장애인 나들이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1% 희망나눔 일일호프' 를 개최한다.

9월 24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일일호프에는 풍성한 먹거리와 음료가 준비된다. 메뉴는 떡볶이, 순대, 어묵, 우거지해장국, 감자튀김, 골뱅이무침, 훈제치킨 등이며 맥주, 막걸리, 각종 음료수가 판매된다.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려 지역주민들에게 색다른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2011년 개관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상담, 의료 · 사회 · 직업재활과 복지,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31)477-8510

채무·상속 등 어르신 위한 법률상담

강북노인복지관(관장 소지)에서는 '단단한 노후 인생만들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단단한 노후 인생만들기' 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채무, 부동산, 상속관련 등 일상생활의 법률에 관한 상담을 해 주는 임시 상담소다.

매달 한 차례 이상 진행되며 이번 달에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복지관 2층 통합사무실에서 법률상담 교실이 열린다. 모집은 수시로 진행된다. (02)999-9179

국태안민 남북통일 / 창조경제 민족화합 / 나라위한 대법회
불기 2558년 율맥대본산 아일다율원

제1회 범종단 용화사 금강계단 구족계 / 국제보살계 戒

석가여래咐囑 : 불자여! 율법의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제방불자 승가여! 재가여! 좋은인연 맺어가는 보살의길 향해
종단을 초월하여 한국불교 계율의 율법을 지키고저 서원세워
갑오년 부처님 지혜력 · 자비력 · 가피력 나라위한 서원 대법회에
깊은 뜻과 마음으로 청정계단에 동참하여 무루복락 지으소서.

● 삼 화 상 / 전계화상 수진대율사 갈마사 혜남대율사 교수사 무관대율사
● 칠 증 사 / 활안. 수법. 수광. 수혜. 수오. 수각. 수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화상

◆ 일 시 : 2014년 10월 16일(음 9. 23) (목) (2박 3일) (구족계)
10월 18일(음 9. 25) (토) 10시 (보살계)
◆ 장 소 : 전남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
◆ 문 의 : 061)381-2683, 055)334-1122 / 팩스 055)328-2762
010-7316-4789 (섭외위원장 수월)
1부] 오전 – 불자위한 보살계 2부] 오후 – 나라위한 수륙재(영가수계)
◆ 공 연 : 중국소림무술단 시범 / 한국태극권단 시범

주 최 : 해동율맥법홍대율사문회 / 주 관 : 한국불교승가단체협의회
계 단 장 법 민 대 회 장 대 광
집행위원장 법 장 봉행위원장 대 풍
협 찬 : 동참종단 / 승가단체 / 각사암 / 현대불교 / 법보신문 / 주간불교

자기연민으로 고통 바라보는 지혜 필요

불교진흥원 강의

크리스토퍼 K. 거머 박사(하버드 의과대 심리학 임상지도자)

인간에게 고통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대부분 그 고통을 거부한다. 부처님은 2500년전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는 불교의 수행방법을 심리과학에 적용, 연민심을 통한 자기 치유 방법을 개발해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돌보고 위로하기 보다는 자학하기에 가까웠던 대부분의 대중들은 자기연민을 통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머 박사. 한국을 방문한 그가 9월 17일 대한불교진흥원 3층 다보법당에서 강의를 가졌다. 불교의 마음챙김에 근거한 불안과 공황 치료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이번 특강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연민의 힘' 을 주제로 대중들을 찾았다. **정리=정혜숙 기자**



크리스토퍼 K. 거머 박사(Christopher K. Germer, PhD.)는 … 임상심리학자이자 개업의로, 마음챙김, 수용, 그리고 연민심 기반 심리치료 전문가로 1978년부터 명상의 원리와 수행을 심리치료에 통합해 오고 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학 임상지도자이고, 명상과 심리치료 연구소의 설립 멤버로 마음챙김과 자기연민에 관해 국제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남한테 연민을 가지는 경우는 78%인데 자기자신한테 연민을 갖는 사람은 2%라고 합니다. 저는 1977년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처음으로 명상을 배웠습니다. 이후 임상심리학자가 되었고 불교명상과 심리 연구를 함께해왔습니다. 전 예전에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강연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말을 더듬었죠. 그동안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제 명상 스승님께 어떻게 명상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니 "당신 자신을 위해 잘 명상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석에 앉아 제 자신이 안전하기를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기원하니 굉장히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이것은 올바른 명상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명상은 무엇보다 어려워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제 방식대로의 명상 수행을 하고 밖을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하고 밝고 환해졌습니다. 내 자신에게 친절하고 연민을 가짐으로써 다른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내 문제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난 후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일어서려는 순간 다시 공포가 밀려왔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 내가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함께 있는 많은 대중들을 둘러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안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순간 25년만에 생애 처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고 강의하는 것에 대한 불안은 일반적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는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문제 안에는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자기 비하의 마음,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끌어안기 전에는 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싸우는 한 불안은 커지기만 합니다. 불안과의 싸움을 멈췄을 때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대개 힘든 감정과 싸웁니다. 불안과 싸운다면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지 않는다고 그 상황과 맞서 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잠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밤새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속에서 무슨 일이 잘못 되어 갈 때, 실패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또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자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자신을 격리시킵니다. 또는 자신의 몸을 내버려둡니다. 영화 보고 술 마시고 하면서 말이죠. 무슨 일이 잘못 되어 갈 때 스스로를 비판하고 격리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안 좋은 일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자기자신에게 쏘는 화살이 됩니다. 이 두 번째 화살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잘못 되어 갈 때 우리 자신에게 쏜 화살에서 고통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불편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이기적이고 게으르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의 동기나 목표 성취를 약화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연민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연민이 높은 학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20%정도가 더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시험에서도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말이죠.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동기 부여 방법이 다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는 능력이 있어'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로 자신을 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연구에 따르면 자기연민은 우울감을 낮게 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높게합니다. 더 많은 지혜와 행복을 얻고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술과 담배를 덜하게 되고 보살핌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텍사스대 심리학과 크리스틴 네프 교수와 공동으로 자기연민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연민에 대한 8주 프로그램 구성을 했죠. 이 프로그램을 거친 사람들은 자기 연민과 타인에 대한 연민이 높아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연민은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연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온 미국 군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기연민의 여부가 외상후스트레스의 강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참혹한 경험이 이런 증세를 낳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경험을 해도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당신은 자신과 싸웁니까? 스스로를 비난합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연민의 직접적인 경험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들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긴장을 하게 되죠. 또 주먹을 펴서 이렇게 둥글게 팔을 모아보면 지기연민을 수용하는 자세가 됩니다. 또 한 손을 심장 가까이에 두고 눈을 감고 심장과의 접촉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죠. 이것이 자기 연민의 몸짓입니다.

이는 8주 프로그램 중에서 고통을 느낄 때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요. 몸을 편안하고 이완되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은 중요한데 종종 잊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챙김의 자기연민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자신 속으로 침잠해 버리고, 비판하고 격리시키고 자기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그거 참 안 됐구나 고통스러웠구나 이렇게 말하며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고통스러울 때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 생각하고 '자신에게 연민의 편지쓰기' 를 해보는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 집단은 7일 동안 자기자신에게 편지 쓰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다른 집단은 어린시절의 기억에 대해 쓰도록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연민의 편지를 썼던 집단이 우울감이 줄어들고 상당히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친절함으로 스스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낮잠, 수다, 가슴에 손을 얹는다거나 하면서 자기자신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고 자애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연민과 마음챙김이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밤에 잠 못 드는 것은 힘들구나. 내일 중요한 미팅도 있는데 이렇게 못 자면 내일 몰골이 말이 아닐텐데"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연민을 보내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 못 드는 나를 돌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연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스코틀랜드의 한 명상 스승님은 수행의 목적은 '자비로운 엉망진창을 위해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온전히 인간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충을 겪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하지만 말입니다.

> "일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스스로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 연민심과 지혜 가지면 마음의 평화 얻을 수 있어"



이날 강연에는 300여 명의 대중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거머 박사의 지시에 따라 자기연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거머 박사의 최근 저서

마음챙김으로 지혜와 연민심 기르자

심리치료에서 지혜와 자비의 역할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 지음 | 학지사 펴냄 | 1만 8천원

하버드대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전하는 '지혜' 와 '자비' 의 역할을 담은 〈심리치료에서 지혜와 자비의 역할〉이 학지사에서 나왔다. '서양의 정신치료와 불교의 만남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이 번역했다.

이 책은 심리치료에서 '연민심' 과 '지혜' 의 역할에 대한 답을 찾고자 모인 각 분야 대표 전문가들의 열정이 담긴 논의 내용과 아이디어 그리고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담고 있다. 불교심리학과 명상의 치료 기제뿐만 아니라, 명상을 구체적 증상에 적용하며, 종합적으로 다룬 실체적 종합서다.



여기서는 다양한 임상 심리 사례 및 동서양의 관점에서 본 개념들을 수록해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지닌 '연민심' 과 정서적 고통을 해결하는 '지혜' 를 기르는 방법을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유구한 세월동안 불교에 근간을 이뤄온 '연민심' 과 '지혜' 가 현대 심리치료에선 과연 어떠한 특질로 작용하며, 이를 기르기 위한 마음챙김 수양법을 통해 친절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정혜숙 기자

화엄경 강좌 모집
원조각성 대 강백 큰스님 직강

귀의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대 강백이신 원조각성 큰스님의 직강으로 그간 4년 동안 대반열반경을 마치고 다시 화엄경을 개설하였습니다.
〈화엄경〉은 화엄부의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앙형태에 영향을 끼친 경전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대승사상의 진수요 광대무변하게 우주에 편만해 계시는 붓다의 만덕(萬德)과 갖가지 꽃으로 장엄된 진리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성큰스님께서 생전에 마지막 화엄경 강의를 통해 후학들에게 전수한다는 마음으로 화엄사상의 핵심만 정리된 내용의 대 강좌입니다. 먼저 법성게 화엄일승법계도, 핵심적인 게송과 화엄경약찬게, 입법계품의 53선지식, 십지품 등 화엄경요지를 요약해 강설하십니다.



• 강의일시 : 2014년 10월 21일 첫 강의 셋째주 화요일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2층) 학명세미나실
• 수 강 료 : 1년 스님 70만원, 재가자 80만원
• 대 상 : 비구, 비구니, 재가자
• 구비서류 : 이력서
• 접수기간 : 2014년 10월 20일까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예금주 : 최재동)
• 전화문의 : 010-4242-7070 / 경남부산 전화문의 010-8563-9377 범철스님 / 사무장 010-5311-5150

주최 _ 동국대학교 정각원 원장 중화법타 합장 주관 _ 통화불교 전강원 경전연구회장 화영법경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9월 15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9월 1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9월 15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봉은사와 추사의 인연, 대중에 공개

봉은사 24일 세미나 · 불교중앙박물관 25일부터 특별전

조선 후기 유교와 불교의 교류에 크게 기여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 불교와의 인연을 조명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개산 1220주년을 맞아 24일 개산대재에 이어 '봉은사와 추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며, 25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를 개최한다.

추사 김정희는 화암사를 원찰로 하는 불교집안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불교경전을 접할 수 있었다. 추사는 33세에 해박한 불교 지식을 종횡무진 구사한 '해인사중건상량문'을 비롯 해붕대화상진영찬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추사가 불교와 유교의 소통에 앞장 선것은 서른살 무렵 초의선사를 만나며 부터다. 만년에는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를 다녀온 그는 해배 후 경기 과천에 과지초당(瓜地草堂)을 짓고는 은거하면서 이곳에서 가까운 사찰인 봉은사를 왕래하다가 나중에는 이곳에 방을 두고 기거하기도 했다. 이 무렵 봉은사에서는 남호(南湖) 영기(永奇)와 운구 한민, 당시 봉은사 주지 호봉 응규를 중심으로 화엄경을 판각하는 판전 불사가 성료되자 추사는 현판 글씨를 썼다.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다뤄지며, 특별전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해인사 대적광전 중건 상량문'을 비롯한 보물 3건, 지방문화재 5건을 포함한 77건 124점이 선보인다. 특히 대구 은해사 소장 편액 '佛光'(불광)과 '大雄殿'(대웅전)과 같이 사찰이 소장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추사의 작품도 전시된다.

추사와 인연이 깊은 봉은사는 추사의 작품 뿐만 아니라 소장품들인 고려시대 청동은입사 향완(1344), 홍무 25년(1392)명 대웅전 동종, 대웅전 삼장보살도(1892)를 비롯해 이곳에서 치른 승과에 합격한 사명당 유정의 대구 동화사 진영(1796) 등도 함께 공개한다.

해인사 중건 상량문 등 124점
각사찰 소장 유품 선뵈
개산기념 국화축제 등 열려


추사가 쓴 '해인사 대적광전 중건 상량문'.

한편, 26일 오전 11시 봉은사에서는 봉은사 판전에 소장된 주요 문화재 화엄경판의 인경본을 머리에 이고 도량을 도는 정대불사가 펼쳐지며 이날 오후 7시에는 가수 서문탁, 호란 등이 참여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이밖에도 개산 1220주년을 축복하는 국화축제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리고, 시민들에게 전통차의 멋과 향을 선사하는 전통차 시연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에 마련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음악 전통성 찾는 자리 마련

조계종 9월 25일, 불교음악 발전 토론회 개최

불교에서 음악은 법열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신심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찬불가가 제작됐지만 서양음악의 방식 차용 등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이 불교음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불교음악 발전 토론회'를 연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일)가 9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 정부기 중앙대 교수, 박상진 동국대 교수 등 한국불교음악계의 거장들이 발제자로 나서며 불교합창단 지휘자 및 작사 · 작곡가, 불교계 언론관계자 들이 대거 참석한다.

주제는 크게 세가지로 △1주제 전통불교음악의 발전적 전망(박상진) △2주제 한국불교음악에 있어서 의식곡 현황 및 발전적 개선방향 제언(정부기) △3주제 찬불과 회고와 발전 제언(박범훈)으로 진행된다.

전통 · 현대 아우르는 세가지 주제
박범훈 · 정부기 · 박상진 교수 발표
지휘자, 작곡가 등 토론자로 나와

먼저 1주제를 맡은 박상진 교수는 '전통불교음악의 발전적 전망'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통해 한국의 음악성이 글로벌화되는 과정을 살피고, 이를 통해 전통불교음악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통합되고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박범훈 교수


정부기 교수


박상진 교수

2주제에서 정부기 교수는 '한국불교음악 의식곡 현황과 발전'을 통해 불교음악의 역사를 짚고, 찬송가 유사곡 의식곡 배제, 전문제정위원회에서의 선정 및 홍보 등을 제안한다. 특히 정 교수는 한국정서에 맞는 화성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이에 따른 불교음악의 재편곡을 주장할 계획이다.

박범훈 교수는 '찬불가 회고와 발전 제언'에서 찬불가 창작에 있어 '범패'와 '화청'의 전통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함을 강조한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찬불가가 불교음악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는 것이 그동안 '율'에 있어 전통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하고 특히 일반 찬불가와 달리 의식 찬불가를 따로이 제정해야 함을 역설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 중 1주제에는 김희경 오느름국악관현악단 단장, 남수연 법보신문 편집국 부장이, 2주제에는 강양화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수석부회장, 황학현 작사가가, 3주제에는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덕신 스님, 가수 김현성 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노덕현 기자

생사문화산업 발전 위한 연구소 설립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연구소, 9월 25일 창립

불교의 생명존중, 자살예방과 상장례문화 등 다양한 생사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문을 연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연구소(소장 신성현, 동국대 교수)는 9월 25일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개소식 겸 국제학술세미나를 연다.

연구소장을 신성현 동국대 교수는 9월 15일 동국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사문화연구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웰다잉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불교계 내 콘텐츠를 개발하는 곳"이라며 "다양한 연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연구소는 정부 연구용역 등을 수주하며, 관련 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인역을 양성하는데도 일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책임교수로 학과 출신의 다양한 상장례 연구인력을 가동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철학 종교 심리의학을 연구의 생사문화연구 △상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사산업연구 △교육과 콘텐츠를 연구하는 웰다잉 및 자살예방 연구의 세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와 함께 개소식이 열리는 25일 오전 10시에는 학명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상장례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도 열린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왕푸즈 장사민정직업기술학원 교수의 '중국대륙의 장례 비지니스 현황과 장례교육' △이오우에 하루요 동양대 교수의 '일본의 현대 상장례 산업 현황과 과제' △이범수 동국대 교수의 '한국 상장례 산업 발전과 종사원 역할' △김석제 한국장례업협회 회장의 '한국 장례문화산업의 현황 전망' 등 1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02)701-2586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대회

재단법인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연구원장 법진)은 9월 29일오후 2시 서울 정법사에서 '제8회 선리연구원학술상 시상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학술상은 우수상에 고려대 철학과 이상민 박사가, 학술상에 서울대 철학과 이해임 박사와 전남대 철학과 우동필 박사, 동국대 윤영호 강사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학술상 수상자 3명에게는 각각 3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 이후에는 동국대 前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을 좌장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차차석 교수의 사회로 학술회의가 이어진다. 이날 학술상 우수상 수상자 이상민 박사는 논문 '〈입능가경〉주석서에 나타난 지론사상의 한 측면'에 대해 발표하며,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반야학술상 공모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학회장 이진오)는 제4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반야학술상은 불교학 및 불교문화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8월 제정된 상으로 논문상과 저역상의 두 분야를 선정한다. 논문상은 2014년을 기준으로 2년 안에 〈동아시아불교문화〉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학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저역상은 2014년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간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400만원이다. 접수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학술연구자 지원서류 1부와 저서 및 역서 1부를 부산 동아대 철학과로 보내면 된다.

심사결과는 10월 중 개별통지되며 불교계 언론에 공고된다. 문의 (011)4731-3471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불교와 언어' 학술대회

중앙승가대(총장 원행)는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와 언어'를 주제로 제7차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에서의 언어를 철학, 수행, 문헌학, 서지학 등의 주제로 나눠 다각도로 고찰한다.

학술대회에는 △박창환 금강대 교수의 '불교에 있어서 언어의 철학 · 사유 · 비판' △정진일 독일 괴팅겐학술원 박사의 '아함전적에의 문헌학적 접근' △김준호 부산대 교수의 '아가마를 중심으로 한 남전과 북전에 대한 대조 연구' △안재철 제주대 교수의 '범한대역방식 고찰' △정재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각필과 현토의 시대별 · 지역별 전개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과학아카데미, 함양 약천사서 열어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1시까지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약천사 인기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불교과학아카데미를 실시한다. 불교과학아카데미에서는 '불교와 현대물리학', '불교와 인지과학'을 주제로 불교수행법의 의미를 인지과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불교과학아카데미는 총 24회 매 회 독립 주제로 진행된다.

김성구 명예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소립자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로 20여년을 재직했다.

퇴직 후 동국대 불교학과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 현재 동국대에서 '불교와 현대물리학'을 강의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회, 2014 추계학술 논문 공고

한국불교학회(학회장 권탄준)는 11월 7일 금강대 사이버강의실에서 열리는 2014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발표할 연구논문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한국불교학회 정회원으로, 10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발표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발표자 선정은 10월 6일 학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예정이며 발표문은 10월 22일까지 이메일로 내야 한다.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한국불교학〉 72집 게재 심사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041)731-3616

노덕현 기자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종회의원 보궐 선거 공고

대한불교 원효종은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궐 선거를 공고합니다.

아 래

교구별 종회의원 보궐 선거 배정

◆ 서울교구 1명 ◆ 부산교구 2명 ◆ 강원교구 2명

단, 교구 선관위에서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다른 교구에서 배정하여 선출 할 수 있다.

종회법 제3장 6조 7조에 의거

교구 선관위 구성	2014년 9월 12일 ~ 10월 13일
교구 선관위 전형	2014년 10월 17일
중앙 선관위 심사	2014년 10월 20일
당선자 확정	2014년 10월 21일

대한불교 원효종 선거관리위원장 석불
선거관리위원 춘명. 선운. 현수. 무공

총무원 :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전화 054)743-0700 / 팩스 054)741-9002

해남군, 대흥사 중심 '힐링산업' 육성

'힐링시티 해남건설' 주제 4년간 중점 추진 예정


해남 대흥사 전경. 해남군은 대흥사 인근 두륜산에 선체험 센터를 건립한다.

전남 해남군이 대흥사를 비롯한 해남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치유숲 조성, 힐링스테이션 구축 등 '힐링산업' 육성에 나선다.

해남군은 '힐링과 치유'를 키워드로 향후 4년 힐링과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9월 16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두륜산 선 체험센터 건립, 치유 기능성 농수산물 개발 · 생산, 진수성찬 힐링 스테이션 구축, 땅끝해남 치유숲 조성, 권역별 치유음식 개발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지난 7월 실천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두륜산 선(禪) 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템플스테이 대표 명소인 대흥사와 지역 특산물을 연계하는 종합 심신 힐링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교 명상과 녹차, 사찰음식, 난대림 트레킹 등의 해남 특화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땅끝 해남 치유숲의 경우 계곡 가학산을 중심으로 30㏊ 규모의 에코 힐링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산림치유단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다.

해남군은 치유센터와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기본골자로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내년에는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찰음식을 비롯한 치유 기능성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권역별 치유음식 개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해 해남 3대 관광지권역에 대한 특화음식 개발로 음식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안이다.

첫 번째 관광권역인 대흥사권은 약초와 불교음식을 활용한 치유음식을 개발하고 땅끝권은 전복, 해초류, 어류를 활용한 해산물 디톡스음식 개발, 해남읍권은 닭, 오리, 한우, 친환경 야채 등을 이용해 보양음식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군내에서는 성인질환에 효과가 있는 미곡과 곡물류를 생산하고 건강식 샐러드용 채소를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음식은 군내 진수성찬 힐링 스테이션을 구축해 제철 치유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선두로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와 체험을 연계할 계획이다.

박철환 군수는 "치유와 힐링을 중심으로 지역 농어업과 문화관광산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며 "건강과 행복의 고장 해남에서 전 국민이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운사, 꽃무릇 시화전 개막



가을이면 선운사 일대를 붉게 물들이는 꽃무릇의 물결로 장관을 이루는 고창 선운사 꽃무릇 시화전이 개막됐다. 9월 14일 선운사 극락교 앞 숲길에서 열린 꽃무릇 시화전은 300여명의 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이 선운사의 명물인 꽃무릇을 주제로 시와 그림이 어울러진 작품을 출품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박우정 고창군수등 지역 기관장들과 고창문인협회, 고창문화원 관계자등 300여명이 참석해 절정을 이룬 꽃 무릇과 시화를 감상했다.

개막식에서 법만 스님은 "꽃 무릇 시화전을 통해 고창 지역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고 미당선생처럼 한국 문학의 큰 인물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유성민 학생(고창초 3)의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만남' 등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등사,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문열어



강화 전등사가 주최하는 제14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일정에 맞춰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린다.

'화(和)-Harmon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개막식은 9월 27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가을음악회가 대신한다. 전등사 가을음악회는 여느 산사음악회와 달리 대중성을 갖춘 음악회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가수 최백호, 권진원, 마야, 김종환 등이 참석해 가을밤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매년 전등사 음악회에는 약 3천여명이 운집할 만큼 지역 내 인기행사로 자리잡았다. 같은 날인 27일 오전 10시 30분 부터는 삼랑성그리기대회와 글쓰기대회가 열린다. 올해로 각각 14회와 4회를 맞은 대회는 초중고등학생 부문으로 진행된다. 그림대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중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개최된다. 9월 25일에는 외신기자단을 초청해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0월 4일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강화지역 이주여성 부부 2쌍에 대한 전통혼례를 열어 아시안의 화합을 상징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와 템플라이프도 상시 운영해 아시아경기대회차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한국문화체험을 제공한다.

9월 28일에는 전등사를 지켜온 아도화상을 비롯한 역대 조사들을 기리는 다례재가 육법공양에 맞게 진행되며 같은 날 역대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를 위한 영산대재도 진행된다.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마당극은 10월 5일 열린다. 이외에도 고(古)기와 그림전, 사찰사진, 시화, 서각, 현대중견작가전 등이 전등사 곳곳에서 열리며 9월 19일과 28일, 10월 4일과 5일에는 도자기 물레, 천연염색, 목예, 단청 등의 주말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화엄사 중창주 도광·도천 스님 추모재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9월 16일 각 화전과 부도전에서 근현대 화엄사 중창조주로 추앙받는 리산당 도광(1922~1984), 도천당 도천대종사(1910~2011)에 대한 합동추모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스님, 영관 스님을 비롯해 150여 대중스님들이 참석했다.

각황전에서 죽비삼배로 시작한 추모제는 헌다, 반야심경 독송, 헌화, 문도대표(명선스님) 인사로 1부 의식을 마치고, 부도전으로 이동해 부도탑 헌화와 추모의식이 진행됐다.

명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의 대중들의 두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부처님의 말씀답게 화합하는 문중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스님은 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앞서 문도들이 화엄사의 전통에 따라 합의를 통해 선거가 진행될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광 스님은 1937년 범어사에서 동헌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산스님, 청담스님을 시봉하면서 참선정진을 시작해 청성산 내원성원, 칠불선원, 영축산 극락선원, 백양사 운문서원, 해인사 해인성원, 금어선원, 봉암사선원, 파계사 성전선원 등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으며, 1952년 담양 보광선원을 도천대종사와 함께 창건하셨고, 불교 정화운동에 헌신했다. 1962년 백양사 주지를 시작으로 범어사 주지, 용주사 주지, 화엄사 주지, 해인사 주지 등 6차례에 걸쳐 본사 주지소임은 맡았으며, 1980년 화엄사 주지에 재취임 후 현재 화엄사의 초석을 다졌다.

도천 스님은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으로 1928년 묵언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였으며, 이후 10여 년간 금강산 마하연에서 보문, 성철스님과 안거 후 신계사,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 법왕사, 상원사 등에서 수행정진했다. 1949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사도반이신 동광스님과 담양 보광사를 창건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마이산 탑사, 지역 청소년 장학금 전달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가 2014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9월 17일 진안군 전통문화 전수관에서 열린 갑룡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는 갑룡장학회 명예회장 혜명스님, 진성스님, 진송스님, 혜광스님을 비롯한 탑사 대중스님들과 나누우리 자원봉사단, 구훈회 진안자원봉사 센터장, 진안경찰서 전근수 계장, 유태종 진안군 주민생화지원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진안제일고등학교 김희준 학생등 33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500만원의 장학금과 기념선물이 전달됐다.

150년 전 신비의 돌탑을 축조한 이갑룡 처사를 기념하기위해 진안의 명소 탑사에서 설립한 '갑룡장학회'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벽 숲길을 걷는 명상의 시간이 최고"

익산불교신도단체연합회 템플스테이 개최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9월 13~14일 1박 2일간 익산불교신도단체연합회(회장 이택회) 소속 신도단체 회장단과 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익산 마한거사림회, 이리불교대학, 가릉빙가 합창단, 봉사단, 포교사단, 파라미타, 천천클럽등 불교단체 회장단과 임원들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입제식 후 참선을 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불교의 전통식사법인 발우공양으로 저녁 공양을 하며 생명과 음식의 소중함을 돼새겼다.

스님과 함께 각자의 발원을 담은 범종타종에 이어 예불에 참여하고 원광대 박순호 전교수의 봉서사 영산작법등 민속놀이 탄생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이밖에 108배 체험, 참선체험, 새벽 명상산책과 숭림사 둘렛길 탐방과 지역 불교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소리과정(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3시 ~ 4시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4시 ~ 5시 30분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일초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 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0월 5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7(부평동)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화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스포츠 포교로 지역사회 돕는다

'달빛고운절 월봉사 축구단' 교리공부 · 봉사도 활발

스포츠로 울산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 화정동 월봉사(주지 오심)가 축구단을 창단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울산 월봉사는 2012년 월봉사 샤프니스 야구단에 이어 올해 5월 '달빛고운절 월봉사 축구단(단장 오심)' 을 정식 창단하고 동구청 및 울산해양경찰서와의 첫 경기를 가졌다. 월봉사 축구단은 축구연습 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 공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월봉사 축구단 회원은 35명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또한 주지 오심 스님을 포함한 총 3명의 스님이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월봉사 근처 울산 과학대학교 축구 경기장에서 연습한다.

더불어 월봉사 샤프니스 야구단과 함께 월봉사 대웅전에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불교 교리 수업을 듣는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있으며 점차 대외적인 봉사활동을 늘려갈 계획이다.

달빛 고운절 월봉사 축구단은 주지 오심 스님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시작됐다. 주지 오심 스님과 홍승표 사무국장은 2004년부터 울산지역 내 조기축구모임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꾸준한 스포츠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다 2012년 울산동구축구연합회와 함께 봉축기념 '제1회 월봉사 주지배 축구대회' 를 개최하면서 축구를 활용한 스포츠 포교의 첫 문을 열었다.

매년 대회에는 사찰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내 조기축구회원 1200여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사찰이 스포츠 대회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은 울산지역에 큰 이슈가 됐다.

주지 오심 스님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찰 내 월봉사 축구단을 창단하고 새로운 회원을

2012년 주지배 축구대회 개최
20대부터 50대까지 회원 다양
울산노인요양원 방문 봉사도

모집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사찰 스포츠단은 남성 신도들에게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 판단했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스님은 사찰 특성상 여성 신도들이 많고 남성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겨 남성 신도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을 드나들 수 있도록 달빛고운절 월봉사 축구단을 창단한 것이다. 축구단의 가입 조건도 '적극적인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다. 단순히 축구를 좋아해서 오는 것보다 사찰



울산 월봉사 축구단은 매주 수요일 저녁 울산과학대에서 연습을 갖는다. 이들은 축구뿐만아니라 소외이웃 돕기 교리공부 등도 최선을 다해 주목된다.

행사 및 대외적인 사회활동에도 참여해 궁극적으로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축구단의 창립 이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급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경내가 어수선해지자 가장 먼저 달려온 이들도 바로 월봉사 축구단과 야구단이었다. 이렇게 월봉사의 스포츠 단들은 사찰 내에서 중심 역할을 해내고 있다.

뛰어난 실력으로 축구단의 주축이 되고 있는 최용(29)단원은 "지역주민으로 조기축구에 참여하면서 월봉사 신도회 분들을 알게 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월봉사 사찰봉사에도 참여하게 됐고 불교를 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황기률 축구 감독은 "스님이 일반 재가자와 함께 땀 흘리며 스스럼없이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스포츠를 통해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다.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화합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또한 불자들뿐만 아니라 비불자들에게도 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축구단에 대한 주지 오심 스님의 원력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축구단의 장점을 꼽았다.

한편 달빛고운절 월봉사 축구단은 올해 연말까지 생활체육축구연합회 등록을 완료하고 울산지역부터 전국적인 대회까지 활발히 출전해 불교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 울산 선포식

9월 21일 종하체육관서 전국 100만명 서명운동도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원회는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9월 21일 선포식을 가졌다.

세계평화와 비폭력의 상징인 달라이라마 방한을 촉구하는 법회와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9월 21일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위원장 금강)는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지역 최초로 선포식을 가지고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 의미와 이유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선포식은 달라이라마 일본 법회 동영상 시청, 인사말, 울산지역 결의문 낭독, 서명지 봉헌 등으로 달라이라마 방한을 결의하는 순서들로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에 참가한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덕진 스님은 "한국불교도 국민과 세계를 위해 자비와 평화를 보여줘야 한다. 불교계의 세계지도자를 모시는 일은 여러분의 간절한 발원으로 이뤄지므로 여러분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진위원장 금강 스님은 달라이라마 방한 취지문 낭독에 이어 "2000년 및 2005년도에 방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못하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방한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허나 이러한 아픔과 상관없이 존자님을 모실 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내후년에 기필코 성사되리라 생각한다. 불교인구가 많은 울산에서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원력이 세계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울산지역결의문에서 울산광역시 신도회 대표들은 "우리 사회는 공생, 공존을 말하지만 국가와 국가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사람과 자연사이에 서로 이기려고만 하는 갈등이 존재한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한국방문을 희망한다"며 선포식에 참석한 이들과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는 울산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의 각 사찰 등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100만 명 서명을 추진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팔공산 승시축제'

10월 1일~6일 대구 동화사 일대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이어온 스님들의 물물교환 장터를 재현한 제5회 팔공산 승시축제가 10월 1일~6일 동화사와 팔공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불교문화행사, 경연대회, 문화공연, 장터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된다.

스님들이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소재를 재현한 승시는 스님들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사찰에서 생산한 물자를 유통시키는 시장을 일컫는다. 특히, 올해는 동화사와 대구불교총연합회, 대구불교종단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면서 지역 행사로 거듭나 눈길을 끈다.

팔공산승시축제봉행위원회는 "스님들의 시장이라는 '승시' 의 독특한 역사적 소재를 재현, 사찰이 갖는 문화와 시장이 가지는 교류를 통해 우리의 잊혀진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고자 한다. 앞으로 '승시' 를 지역 문화관광의 킬러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로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취지를 전한다.

이에 위원회는 △10만 송이 국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국화 축제를 동화사 일원에서 △중고물품을 물물교환하는 '승시나눔장터' △스님이 직접 요리해 판매하며 수입금은 교도소 무료급식소 등 소외이웃을 위해 사용될 '착한 스님 짜장' △범용 종근 스님의 희망나눔 달마 선묵화 초대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053)982-0101 정혜숙 기자

"기장군 수해 주민들에게 힘 보태고 싶어요"

기장군불교聯신도회 성금 3천2백만원 전달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와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재순)가 기장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3천2백만원을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전달했다.

9월 18일 군수실에서 전달식을 가진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그리고 백담사 조실 해월 스님은 기장 사찰 신도들과 함께 군청을 방문해 수해복구에 힘쓰고 있는 기장 군수와 군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성금 3천 2백만원은 기장군불교연합회와 신도회, 장안사, 혜광사, 안적사, 보림사, 석탑사, 약수사, 청량사, 고불사 등 기장 내에 있는 사찰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은 것이다.

이 사찰들은 지난 8월에 내린 폭우로 인해 대부분 피해를 입은 도량이지만 피해가 더 큰 주민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 이번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성금 3,200만 원의 금액은 관세음보살 32응신(應身)을 뜻하는 것으로 하루 빨리 주민들의 수해가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은 "기장 내 사찰피해가 많지만 종교인으로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각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마음을 냈다. 우리 사찰이 어려우면 일반 주민들이 더욱더 어려우니 함께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냈다"며 성금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백담사는 기장군불교연합회의 성금전달에 앞서 별도로 천만 원을 기부해 주민들의 수해복구에 뜻을 같이했다.



기장군불교연합회신도회는 기장군수에게 수해민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제6회 음식경연 및 사찰음식 전시

거제 금강사 10월 19일

경남 거제 금강사가 10월 19일 '제 6회 세계 여러나라 음식경연 및 사찰음식 전시회' 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및 일반시민, 외국이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로는 세계여러나라음식경연, 사찰음식전시, 경연음식시상, 체험마당,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이 열린다. 금강사는 "우리 고유의 맛과 수행 정신이 담긴 사찰음식은 물론 세계 여러나라 음식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055)636-8634 정혜숙 기자

"법조인 경험 살려 투명한 운영에 진력하겠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신임 이사장에 김백영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가 신임 이사장에 김백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는 8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백영 변호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확정했으며 9월 18일 부산불교신도회 법계정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백영 이사장은 "신도 중심의 부산시불교신도회가 앞으로는 재정상태 공개를 통해 투명한 운영에 힘쓸 것이며 불법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불자들을 위한 적절한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백영 이사장은 1956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현재 부산불교법조인회 회장과 법무법인 삼덕 대표 변호사,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백영 이사장은 법조인의 경험을 살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에서 체계적이면서도 투명한 운영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김백영 신임 이사장 취임법회

김나영 객원기자



임꺽정과 나한이 공존하는 '오래된 미래'

기도사찰을 찾아서

① 안성 칠장사(나한도량)

"뱉어낸 듯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 있고/ 기러기는 자로 잰 듯 흰 구름 사이로 사라지네/ 나루를 찾는 나그네 발걸음은 응당 급히 재촉하고/ 절로 돌아가는 스님의 지팡이는 한가롭지 않네/ 초원에서 풀 뜯는 소 허리 가운데 그림자 띠 둘렀고/ 댓돌 위에 서방 기다리는 아낙의 쪽진 머리 뒤로 처지네/ 고목으로 저녁 짓는 남쪽 마을에 푸른 연기가 올라가고/ 나무하는 초동은 즐거운 듯 풀피리를 불고 있다."

안성 칠장사에서 하룻밤 묵은 인연으로 장원급제한 어사 박문수가 과거시험에서 써냈던 '몽중등과시' 다. 수차례 과거 낙방 이후 마지막이란 각오로 과거시험을 치르고자 길을 떠났던 어사 박문수, 한양행을 앞두고 나한기도를 올린 박문수의 꿈에 '나한'이 나타나 일러준 이 시 문구에 박문수는 마지막 싯구를 더해 써냈고, 장원으로 급제한다. 안성 칠장사는 이러한 설화를 바탕으로 입시를 앞둔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찾는 나한기도도량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도를 올리는 이들로 번잡할 듯하지만 굽이굽이 칠현산 속에 자리잡은 칠장사는 다른 기도도량에 비해 아담하고 고요하다. 아직 입시철이 아니어서 일까. 주차장에서 일주문까지 가깝다 보니 여타 절에서 볼 수 있는 시끌벅적함이 없다. 기도를 올리는 이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조용함이 길손을 맞는다. 인적이 닿지 않았던 칠장사에 사람의 손길이 더해진 것이 불과 몇 십년 전이었다니 칠장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또 다른 감회에 젖는다.

사실 어느 사찰이든 설화가 없겠냐만은 칠장사에는 특히 많이 전해진다. 앞서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 혜소국사, 궁예, 임꺽정, 왜장 가등청정 등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런 역사성에 사찰 자체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칠장사 나한전 내부의 7나한상, 당시 7명의 도적들이 혜소국사의 법력으로 감화를 받아 불제자가 됐고, 아라한의 위치에 오른 이들은 칠장사의 쇠락을 예견하고, 나한상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알루미늄 덧집이 붙여져있어, 예전과 같은 운치는 없지만 많은 기도객들이 찾고 있다.



안성 칠장사 전경. 칠장사에는 임꺽정, 궁예 등 역사 속 인물에 얽힌 다양한 설화가 전해진다.



칠성각 모습, 칠현산 기운을 담은 산신을 모신 곳으로 많은 기도객들이 찾는 곳이다.

혜소국사 7나한 설화 전해지는 도량
어사 박문수 나한기도로 과거 급제
입시철이면 학부모 기도행렬 이어져
임꺽정 · 궁예 등 역사 얽힌 설화 많아

7명의 도적들이 7명의 현자로 변해

칠장사의 나한설화는 '칠장'(七長)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7명의 나한'과 혜소국사의 인연에서부터 출발한다. 서기 636년(신라 선덕여왕 5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칠장사는 고려 초기 혜소국사가 이곳에 머물면서 근처에 살던 포악한 일곱 도적을 교화하여 현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혜소국사가 칠장사에 머물던 고려시대, 인근의 도적 7명 중 한명이 칠장사의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던 중 바가지가 황금으로 변한 것을 보고 몰래 품에 감춰 소굴로 돌아왔다. 그런데 황금인지 알고 가져온 그 바가지가 평범한 표주박으로 변해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날에는 다른 도적이 또한 이와 같은 일을 겪고 그 다음날은 다른 도적이 똑같은 일을 겪고, 이리하여 도적 7명 모두가 같은 경험을 다 겪고서야, 이들은 이 같은 일이 혜소국사의 도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깨닫는다. 이들은 혜소국사를 찾아가 제자가 될 것을 청하고, 이들이 곧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 절의 이름이 칠장사, 뒷산을 칠현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른 후 혜소국사가 열반에 들자 7명의 나한들은 앞날을 내다보았다. 7명의 나한들이 신통력을 발휘해 보니, 500여년 후에는 칠장사가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여서 '우리가 칠장사의 쇠락을 막아보자' 며 의논했다. 이들 나한이 홀연히 사라지고, 이들의 모습은 나한상으로 남았다고 한다.

사찰 곳곳에 설화의 흔적이, '역사 속 사찰'

이러한 설화의 면면을 사찰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있는 노천약수의 어린 동자상이 일곱 나한의 탐심을 상징하는 표주박을 들고 약수물을 흘리고 있다. 동자상 앞에 서면 7나한이 깨달음을 얻었듯 마음 속의 욕심이 함께 흘러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발길을 돌려 나한전이 있는 뒷언덕으로 향하면 앞서 설명한 7명의 나한을 기리기 위해 만든 작은 전각이 있다. 유과 공양을 올린 박문수의 설화로 입시철만 되면 나한전에는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과자공양이 끊이질 않는다. 수북히 쌓인 과자로 미뤄 그 인기가 대구 팔공산 못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찰 곳곳에 남겨진 각종 문화재도 칠장사의 깊은 내력을 느끼게 한다. 나한전 옆에는 혜소국사의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에 얽힌 설화도 흥미롭다. 임진왜란 당시 칠장사에 들어온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한 노승이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자 화가 나서 이 비석을 칼로 쳤는데 노승은 간 데 없고 비석만 갈라지면서 피를 흘렸다. 이에 가토 기요마사는 혼비백산해 도망쳤다고 한다. 현재 비석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쪼개진 것을 복원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칠장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임꺽정이다. 칠장사는 임꺽정의 스승인 병해대사가 열반에 든 곳으로 가죽신을 만드는 갖바치 출신이었던 병해대사는 이곳에서 백정 신분의 임꺽정에게 무술과 글을 가르치며 '단순한 절도범을 넘어 나라를 훔치라' 는 대의명분을 알려주었다. 또한 궁예가 유년기 칠장사에서 무예를 익혔다는 활터 또한 있다.

고려시대 중요사찰, 주변 폐사문화재도 많아

칠장사에는 현재 대웅전, 원통전, 명부전, 응향각, 천왕문, 요사채 등이 있다. 특징은 여러곳의 문화재를 모아놓은 것이다. 우왕 9년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충주 개천사에 있던 〈고려역조실록〉(高麗歷朝實錄)을 이곳에 옮겼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기도처의 역할 뿐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소실된 여러 사찰의 문화재도 옮겨온 상태다. 칠장사 대웅전 앞 마당의 죽산리 삼층석탑은 원래 죽산에 흩어져 있던 탑부재를 죽림리의 한 목장에서 관리해오다 2005년 11월 이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대웅전 옆에는 안성 봉업사 석불입상이 있는데 보물 제 983호인 이 석불입상 역시 죽산의 봉업사지에 있던 것을 1980년 칠장사로 옮긴 것이다. 비록 파주 용미리의 석불입상처럼 거대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려 초기에 유행했던 경기 남부 불상양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목대비(仁穆大妃)가 광해군에 의해 희생된 아들 영창대군의 죽음을 서러워하며 내린 5불회 괘불과 7언시를 담은 친필 족자 등도 칠장사의 역사를 증언한다. 7언시는 선조의 계비로 광해군 즉위 후 유폐된 인목대비가 그 시련의 날 중 칠장사에 몸을 피한 뒤 억울하게 죽은 친정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을 생각하며 직접 쓴 시다.

1997년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한전 뒤의 노송은 고려 고승 나옹선사가 심었다고도 전해진다.

속세를 떠나 다시 현세로 돌아가는 길, 일주문 바깥에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크고 작은 돌탑들이 눈에 띈다. 칠장사의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기도객들의 간절함을 쌓은 듯하다.

안성 칠장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변 둘러볼만한 곳

▲석남사

서운산 남쪽 기슭에는 청룡사가, 그 너머 동북쪽 기슭에 석남사가 있다. 안성시내에서 마둔저수지 너머 진천방향 313번 지방도로를 타고 호젓한 계곡길로 접어들어 10여 분 올라가면 세월의 무게와 역사의 기품을 간직한 천년고찰 석남사가 푸근하고도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신라 문무왕 20년에 고승 담화덕사가 창건했으며 이후 고려시대 고려 광종의 아들 혜거국사가 크게 중수했다. 이후 이름 높은 스님들이 석남사를 거쳐갔다. 경내에는 16나한이 모셔진 영산전을 비롯해 대웅전, 마애석불 등의 도지정문화재와 석탑, 부도 등 향토유적이 있다.

▲죽주산성

죽주산성은 신라 때 내성을 쌓고, 고려 때 외성을 쌓았다. 언제 쌓았는지 알 수 없는본성은 1.7㎞이고, 외성 1.5㎞, 내성 270m로 세겹의 석성이 지금도 남아 있고 보전상태가 좋다.

죽주산성은 특히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다. 왜군에게 내주고 말았던 죽주산성을 황진 장군이 기습작전으로 탈환에 성공하자 왜군은 더 이상 용인과 이천을 넘보지 못했다. 포루가 만들어진 산정에 올라서면 안성벌, 이천 · 장호원이 한눈에 잡힌다. 충청,전라, 경상도의 삼남과 서울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군사전략적인 요새였던 이곳을 아군의 기지로 삼으려는 시도는 나라마다, 전시마다 치열하였다.

▲금광호수

65년 9월에 준공된 금광호수는 V자 계곡형 호수로서 물낚시와 얼음낚시가 잘 돼 겨울철 빙어낚시터로 많이 찾는 곳이다.

금광호수 주변에는 소문난 맛집들이 즐비하며 호수를 끼고 산림이 우거진 도로변을 따라 진천방향으로 향하는 드라이브 코스도 일품이다.

은해사 창건 1205주년 **개산대재 템플스테이 수련관 개원대법회**

만등불사 · 중악(中岳) 은빛음악회

미타도량 팔공산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5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 조사 스님들의 헌공 다례와 템플스테이 수련관 개원 대법회,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8년 9월

■ 일 시 : 불기 228(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음 9. 4)

■ 장 소 : 템플스테이 수련관 (은해사 경내)

□ 오전 9시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조사전)
10시 30분 템플스테이수련관 개원 대법회
□ 오후 2시 시민과 함께하는 중악(中岳) 은빛 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만등불사 : 동참금 1인 1등 1만원
차량운행 : 동대구역 지하도(오전 9시) → 하양 → 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 9시) → 경산 → 은해사,
포항역(오전 8시 30분) → 영천 → 은해사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치일리 479번지)
전화 : 종무소 054)335-3318~9 /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템플스테이 수련관 개원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중악(中岳) 은빛 음악회

□ 일 시 : **2014년 9월 27일(토) 오후 2시**
장 소 : 은해사 템플스테이 수련관 특별무대
출 연 : 김성환, 오승근, 김국환, 현숙, 신유, 박주희,
랩퍼 알피, 김유리, MC김혜영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치일리 479번지)
전 화 : 종무소 054)335-3318~9 /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간다라 미술 특별전

□ 기 간 : **2014년 9월 27일 ~ 10월 12일**
□ 장 소 : 은해사 성보박물관 제1전시관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매주 월요일 휴무)
□ 전시유물 : 간다라 양식의 사리기, 불상 부조 30여점



www.eunha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 · 말사



“불교 상징한 미래 문화 유산을 만들자”

新 사찰 건축

16. 신 사찰건축의 나아갈 방향

종교건축은 다른 건축들과 여러 가지로 다른 면들이 있다. 그 ‘다른 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종교적 상징성이 건축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일 것이다. 때문에 양식 변화의 속도가 다른 건축에 비해 느리다는 것이다. 한국 불교건축 역시 종교적 상징성을 중심에 둔 건축이다. 1600년이라는 역사를 생각할 때 다른 건축이 변화해온 속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변할 수 없는 종교적 상징성을 반영한 양식이기 때문에 변화의 이유와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다. 최근까지도 한국 사찰의 모습은 ‘기와와 단청’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새로운 형태의 사찰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양식의 건축이 필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불교’라는 대전제를 안고 있는 사찰건축이다.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모두의 고민이 거기에 있다. 그 고민에서 함께 출발했던 본 연재 ‘신 사찰건축’을 마치며 담양 정토사 주지 혜광 스님과 건축가 김개천 교수(국민대 조형대학 스페이스건축디자인과), 김홍일 교수(동국대 건축학과)에게 한국의 사찰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현대 사찰건축의 설계 방향
–김개천 교수

현대적 사찰건축은 전통적 사찰건축과 마찬가지로 불교적 정신과 세계관의 물리적 표현인 동시에 예불, 수행, 포교의 기능이 포함된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화하고 종교건축으로서의 시대성을 함께 나타내어야 한다. 그와 함께 도시 사찰은 도시적 입지성에 따라 건축물의 대형 복합화와 중층화가 요구되며, 예식 · 장례 · 강연 · 지역봉사활동 등 시대적으로 변화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불교 의식의 변화 등은 건축물의 기능, 형태 및 공간에 있어 여러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특히 실내 공간적 변화 요구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현대 사찰건축은 외형적 전통의 모방 및 차용이나 전통과 현대의 도식적 해석을 적당히 혼합한 형태적 현대성을 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통의 사찰건축에서 전달되는 상징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도시사찰에서 불교적 조형 관념의 상징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단지 건축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 정신의 문제이며, 건축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가의 정신은 그러한 공간을 이루어내는 근간인 것이다.

전통의 문화는 현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 결부되어 새로운 현대적 가치를 지닐 때 미래의 삶에도 의미와 효율을 지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개천 교수

“시대적 기능 반영한 설계 필요, 명분 없는 현대성 추구는 지양”

오늘날 우리의 사찰건축 문화는 앞선 개념들과 더불어 현대적 공간 개념을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을 해석함으로써 현대성과 국제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을 동시에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료의 선택과 불교 정신 표현
–김홍일 교수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네 절집은 우리의 건축 언어와 재료로 지어졌다. 주춧돌 위에 올라 선 배흘림 기둥, 기와 얹은 지붕, 겹겹이 빛을 받아들이는 창호와 흙벽, 그리고 장엄한 기운을 표현하기 위한 공포, 화려한 단청장식이 있다. 이러한 모양은 그 시대 사대부집이나 궁궐건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지었고, 그렇게 집을 지으며 조금씩 건축의 형태가 변화하고,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고 공간이 바뀌어 갔다. 그러나 절집은 종교건축으로의 상징적 의미 때문인지 겉으로나 안으로나 그 모습과 공간이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강화도 ‘온수리 성공회 성당’은 1906년에 한옥으로 지어졌다. 정면 3 칸 측면 9 칸의 크기에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종루는 문루의 2층을 사용하여 높은 솟을대문처럼 만들었다. 세월이 지나 그 쓰임이 다하여 그 옆에 2004년에 새로 지은 성당은 현대건축의 기술과 재료로 지어져 확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성공회 성당의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시대의 건축재료와 형식이 바뀜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한 것이다. 쓰임에 문제가 없고 건축을 짓는 비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 형식이 계속되어도 무방하겠다. 하지만 우리 전통 건축은 그 비용이 현대식 건축에 비해 많이 들고, 쓰임에 있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이 있다. 상징성을 지키기 위한 대가로는 너무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시대의 모양을 한 건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사찰건축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시대가 제공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한 집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쩌면 가장 미래적인 재료와 형식으로 이 시대의 틀마저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불교건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사찰건축의 상징성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사찰의 기능은 이미 사무실이나 주택과 다른 것이다. 이 ‘다름’을 표현해 가면 다른 형식의 건축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건축가가 사찰기능에 대한 성찰과 해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건축, 그것이 여느 건축과는 다른 현대적 사찰건축의 모습으로 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옛 형식에 얽매여 부감각하게 끌려가고 걱정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감각으로 불교적 상징성을 해석해 나간다면 이 시대에 맞는 사찰건축이 될 것이다.



김홍일 교수

“사찰 ‘기능’에 충실한 설계하면 불교적 상징성은 저절로 해결 돼”



혜광 스님

“사찰은 수행과 전법 의미 담아야, 근본 충실하면 형식 관계없어”

이제는 콘크리트도 활용해야
–혜광 스님

우리는 1980년대 경제성장은 사찰 건립에도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불사가 진행되면서 사찰건축이 외형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하지만 그 많은 불사들이 철저한 구도심과 시대정신을 품은 정진의 결과물이었는지, 건축불사를 통해 아름다움의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처님의 간곡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과거의 훌륭한 전통을 버리지 아니하고 재해석하여 현대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는지, 그리고 사찰건축이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불사였는지 등 이시대의 불사의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한국불교의 매력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궁극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연기(緣起)를 삶의 내용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매력을 잃어버리고 획일화로 일관된 모습을 보게 된다. 어느 도량에 가면 무얼 배울 수 있는지 어떤 정진을 모시는 곳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은 큰 문제다. 굳이 선재동자의 구도의 정신을 말하지 않더라도 불교의 생명은 다양성의 포용과 통합에 있다. 사찰 건축은 수행과 전법의 의미가 반영되어야 한다. 경주 남산의 수많은 불상과 마애불 그리고 불탑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천년의 세월을 지탱해 오면서 지금도 한결 같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선조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돌과 나무와 흙 등의 재료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온전히 담아 왔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방편으로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대인이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매개체를 적극 활용하여 그곳에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고 본다. 즉 오늘날 대중적 건축 재료인 콘크리트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통에 얽매여 한옥만을 고집한다면 디자인과 종교적 정체성(상징성)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과 많은 유지 관리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시대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생과 공존의 조화를 건축을 통해서 모색해야 할 때이다. 윈스턴 처칠은 “처음에는 우리가 건물들을 모양 짓지만, 그 다음에는 건물들이 우리를 모양 짓는다.”고 말했다.

이는 물리적 주위환경과 사람의 행위 및 태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이해하고 한 말로 받아들여진다. 즉 어떤 의도와 가치를 담아서 건축을 하면 그 건물에서 사람이 살면서 그 건축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서를 인간이 배우고 느끼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현대의 사찰건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어떻게 믿고 이해하고 올곧은 정진을 모시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근본을 바로 세웠을 때 어떤 방편으로 법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무궁하며 또한 결과 또한 아름답게 회향될 것이라고 본다.

‘신 사찰 건축’ 연재를 마치며

새로운 ‘전통’을 기다린다

절(寺)은 많은 ‘의미’들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특히 전통적인 사찰 건축은 불국정토의 극락세계의 구현으로, 여러 경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극락정토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전통적인 사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돌과 나무를 쌓아올린 ‘건축’이 아닌, ‘불사’의 개념이다. 그렇듯 ‘절’이라고 하는 건축의 한 형태는 오랜 세월 그 형식이 바뀔 수 없었던 것이다.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의 건축불사는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 형식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은 피해갈 수 없는 것.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도심 사찰의 모습은 새로운 생각을 필요로 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생각으로 지어진 절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생각으로 지어진 절이란 단순히 기와를 얹지 않고 단청을 하지 않은 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절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상징성 안에서 시대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사찰의 기능을 고민한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한 생각으로 지어진 절을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 그것이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면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오랜 세월을 지켜온 예전의 형식처럼 앞으로 오랜 세월을 지켜낼 새로운 형식이 될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생각’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생각으로 지어진 불교 건축물들의 의미를 찾아 나선 본 연재의 취지와 의미도 거기에 있다 하겠다.

새로운 불사의 현장을 찾을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것은 ‘전통과 현대’였다. 이제 현재의 사찰건축은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전통적 건축과 시대가 요구하는 현대적 건축의 경계에 서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문명과 분명하게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칫 고민 없는 ‘새로운 생각(변형)’으로 인해 종교적 상징성을 이어가야 하는 ‘내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숙제이다. 자칫 잘못하면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절은 많은 ‘의미’들로 지은 집이다.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절이다. 겨우 열다섯 편의 텍스트로 앞으로의 전통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게 연재를 마치면서 드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 열다섯 편의 새로운 생각들 속에는 많은 고민들이 들어 있었으며,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 본 연재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먼 훗날 또 하나의 논제가 될 새로운 ‘전통’을 기다린다.

박재완 · 배현진 기자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0〉 천축산 불영사 대웅보전

신령하고 현묘한 영기의 '文質彬彬'

〈문질빈빈〉



대웅보전 외진주 영역 천정에 장엄된 영기문과 천문별자리 문양이다. 좌우협칸 63칸에 장식된 氣와 별자리문양의 세계로 현묘하기 가이없다.

쌍귀부가 끄는 반야바라밀의 배

산과 물이 서로를 감싸고 휘돌아 나가는 산태극 수태극(山太極 水太極)의 길지에 불영사(佛影寺)가 있다. 불영사 대웅보전은 진리의 바다로 가는 반야용선의 형상이다. 대웅전 기단 아래에 돌거북 두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법당을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건축장치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창조적인 조형이므로 특별히 주목된다. 거북의 등에 얹었다는 것은 천 년의 시공간에 두루 편재하는 생명력을 갖추게 했다는 뜻이다. 건축의 조영순서를 떠올려보면 두 마리 돌거북 장치는 건축의 처음부터 분명한 의도를 가진 상징물임을 알 수 있다. 경주 땅 폐사지 숭복사지나 창림사지, 무장사지 등에 남아있는 쌍귀부 비석받침의 조형원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쌍귀부에 비석을 얹은 것이나, 법당을 얹은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청도 운문사 관음전에서도 그와 같은 조형을 만날 수 있다. 단지 운문사 관음전의 쌍거북은 목조각인데, 불단을 떠받치고 있다. 여러 조형에서 거북의 등을 빌린 일차적인 뜻은 시간의 임계점을 여읜 무량한 생명력의 유지일 것이다. 불전일 경우에는 여수 흥국사나 청도 대적사, 해남 미황사처럼 반야용선의 상징적 의미마저 두루 갖춘다. 반야용선은 물리적인 배가 아니라 마음 속 깨달음의 배다. 사바세계의 고해(苦海)를 건너 번뇌의 불이 끄진 피안으로 가는 배다. 불영사 대웅보전은 상구보리의 반야바라밀의 배이고, 영산회상의 법열이 환희심으로 충만한 법의 집이다.

연화문과 별자리, 사신도…고구려벽화 요소

대웅보전은 3×3칸이고 내4출목의 18세기 조선 후기 건축이다. 천정양식은 외진주 영역은 빗반자이고 내진주 영역은 평행반자이다. 반자틀 모두는 우물 정(井)자로 짜맞춘 우물천정이다. 천정의 문양은 어느 불전보다도 다채롭기 그지없다. 두드러진 특색이라면 내부장엄 곳곳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통이 1200여년의 시간간극을 뛰어넘어 놀랄정도로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화문과 별자리, 구름영기문, 사신도(四神圖) 양식의 서수들, 주악비천 등 고구려고분벽화의 장엄요소들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대웅보전에 베푼 사신도 벽화는 엄격한 방위의 개념에서 자유롭다. 유가의 사회에서 도교적 요소를 흡수한 불교장엄을 고려하면 자유로움의 개연성이 충분하다. 창방, 대들보, 천정 등 불전 내부 곳곳에 용과 백호, 현무, 주작의 사신을 베풀었다. 단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백호는 민화풍으로 묘사되었고, 쌍으로 표현되는 주작은 머리에 붉은 점을 가진 유가적 선학, 단정학(丹頂鶴)의 쌍으로 변화되었다. 불전의 사신도는 벽사 장치임과 동시에 공간에 흐르는 신령의 기(氣)를 드러내는 회화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생명력의 기(氣) 충만한 우주적 필드

동아시아에 공유되는 기우주론은 유안의 〈회남자(淮南子)〉에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회남자〉에 의하면, 천지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모두 기(氣)의 분화 및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가 가진 무형의 에너지에서 유형의 만유가 만들어진다. 소위 '기화우주론(氣化宇宙論)'으로서 동아시아 자연철학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 제40장에 그 구절이 나온다. "천하만물은 유(有)에서나오고, 유는 무(無)에서 나온다." 불영사 대웅보전의 천정은 기의 세계다. 특히 외진주 영역의 빗반자 우물천정의 칸칸은 생명력의 에너지로 충만한 태허(太虛)의 우주를 그리고 있다. 기화우주 세계관은 좌우 협칸의 63칸의 천정에 구현되어 나타난다. 그 표현양식이 지리산 화엄사 원통전 천정과 유사하다. 기(氣)는 생명력의 에너지다. 생명력은 내재적 운동성에 따라 끊임없이 확산하고 순환하며 회전한다. 모든 우물칸의 세계는 서로에게 상즉입하며 운동하고 있다. 칸칸이 붉은 기운 속에, 혹은 심오한 암흑의 천공 속에서 유성이 지나는 금빛 궤적처럼 신령의 기운들이 굽이친다. 마치 현대물리학의 초끈이론이나 초대칭이론의 회화적 표현을 보는 듯 하다. 생명력의 에너지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방위에 이르러 중핵을 이루며 화엄의 꽃을 피우고 있다. 천정은 건축요소의 개념을 초월하여 생명력의 기가 충만한 우주적 필드, 거시적 장(場)으로 펼쳐졌다. 그 장은 서로 관계하며 소통하는 유기체적 세계일화(世界一花)다.

영기와 별자리, 고구려 고분벽화 전통
검은 천공에 핀 화엄의꽃은 '세계일화'
화엄사 원통전 천정 영기문양과 비슷
유불선 습합된 독창적 장엄세계

현묘하고도 현묘한 '현지우현(玄之又玄)'

천자문의 첫구절처럼 우주는 '천지현황(天地玄黃)' 한 법이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우주질서는 〈도덕경〉 제1장의 표현처럼 '현지우현(玄之又玄)'으로 깊다. 현묘하고도 현묘하다. '현(玄)'은 단지 '검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검고도 붉은 심오함의 깊이를 이른다. 검은 것은 '무(無)'이고, 붉은 것은 '유(有)'다. '현'은 마치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신새벽처럼 무와 유가 통일되어 있는 신묘함이다. 신령의 기가 흐르는 대웅보전 천정의 바탕은 검거나 붉다. 그래서 심오하고, 현묘하다. 조형장엄의 바탕과 뜻이 합당한 문질빈빈(文質彬彬)의 전형을 갖추었다.

그런데 바탕과 질의 본말이 상응하는 기우주(氣宇宙)의 세계에다 목화토금수의 오행을 천정 곳곳에 베풀어 두었다. 천정장엄으론 유일무이한 희소성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사찰천정 장엄에 벽화형태로 우주천문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단지 서너곳의 사찰천정에서 둥근 별을 그려놓은 장면이 보인다. 화엄사 원통전과 여수 흥국사 응진전, 범어사 대웅전 천정 등에서 조우했을 뿐이다. 그런데 불영사 천정의 천문도는 고구려고분벽화에서처럼 별자리의 도상이 풍부하고, 조형의지가 보다 분명하다. 우물칸 군데군데 오행에 따라 28수 형식의 별자리를 넣었다. 북두칠성과 삼태육성, 궁수자리 남두육성, 일렬로 늘어선 삼성의 오리온 별자리 등이 묘사되었다. 사찰천정에 오행에 따르는 28수 천문 성수도(星宿圖)가 그려진 경우는 그 예를 찾기 힘들다. 영기의 세계에 별자리를 그려넣은 장엄양식은 5세기에 조성된 고구려벽화고분 덕흥리 고분이나, 덕화리 2호분 등의 천정에서 조형 모티브를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회남자〉의 언급처럼 우주만유에 깃든 도(道)를 펼치면 온 우주를 덮지만, 오므리면 한 줌도 되지 않는다. 우물천정 한 칸에 영기와 천문의 우주, 연기법계가 충만하다. 유불선(儒佛仙)이 습합된 독창적인 장엄세계다.

금빛 보주는 법신불의 삼매야형

가운데 칸의 천정장엄 문양은 앞칸, 중앙칸, 후불벽 뒤 천정에 저마다 달리 나타난다. 앞칸은 24칸의 빗반자 우물천정이고, 세가지 종류의 기하문을 입혔다. 일종의 연기법을 구현한 그물망 문양이다.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으로 관계의 총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후불벽 뒤 천정에는 널판판벽에 쌍룡을 그렸다. 그 쌍룡벽화 역시 필력에 신묘한 힘이 묻어나는 역동적인 대작으로 구도와 골법운용 능력이 탁월하기 그지없다. 단지 어둡고 천정 높은 곳에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가운데 칸 중앙부분은 불교 색채의 화장세계다. 40칸의 우물칸 중에서 36칸은 육자진언이 새겨진 6엽 연화문이고, 4칸은 붉은 바탕에 금니의 영기문을 베풀었다. 붉은바탕의 금니 영기문은 의도된 핵심장엄임을 눈치챌 수 있다. 금강계만다라의 오대오불(五大五佛)의 세계관을 영기문으로 구현한 듯 하다. 연화6엽에 새긴 6자 범자종자는 제불과 보살들의 공덕을 총섭한 존상의 상징이라 하겠다. 중앙부 연화의 씨방부분에서 금빛 보주가 솟아 오르는 바, 법신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매야형으로 합당하다.

40명의 사람 영기화생하는 놀라운 도상

그런데 불단 위 중앙칸 천정 가장자리엔 놀랄만한 파격적인 도상을 베풀었다. 단청에서 '반바탕 반머리초'라 불리우는 연속 영기문 사이사이에서 저고리 차림의 사람들이 영기화생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맨눈으로는 그 존재성마저 파악하기 힘들다. 도상을 보려면 카메라에 담아 확대해서 볼 수 밖에 없다. 낱낱이 세어보니 40명에 이른다.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이 단정치 못하고 개구쟁이 아이들 머리모양이다. 보다 어리고 젊은 삶으로 영기화생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불화에서, 혹은 벽화에서 연화화생의 장면은 종종 있지만, 이렇게 신령의 기운이 뻗치는 영기공간에서 영기화생하는 도상은 극히 드물다. 무형의 기에서 천지만물이 생겨나는데 사람인들 그 자연법의 밖에 있겠는가? 대웅전을 생명력의 에너지로 충만한 영기의 세계로 장엄하였으니 영기화생의 응공은 뿌린대로 거두는 선근의 이치다. 곳곳의 장엄이 '현지우현(玄之又玄)'으로 깊고도 현묘하다. 검을 '현(玄)'을 관하고 절집 뜨락에 서는데 어느덧 천지간에 가을 기운이 서렸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가운데칸의 천정에 그려진 문양들. 앞칸은 세 종류의 기하문이고, 중앙칸은 여섯자 범자종자가 새겨진 연화문이다.



사진의 윗줄은 대웅보전과 내부, 기단부의 돌거북, 비천벽화 등이고, 사진의 아랫줄은 천정에서 영기화생하는 희유의 장면이다.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부산역 상담센터
문의 : 1899-8108. 010-9229-3801

서울, 경기지역 포교원 원장님 모십니다.
모든 기술 전수합니다.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허공으로서 나임을 잊지 말아야

성태를 길러라 ⑤

암만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모습놀이라 하면 뽀르르 해. 거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이 상승설법을 듣다가도 말이죠, 설혹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으면 이걸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 놓으면 그때는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가지에요. 언제 되도 되거든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 다 먹게 마련이라. 그러하니 이거 인연관계도 있고 업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이리 나갑시다. 윤곽을 잡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딱 깨놓고 말하면 여러분 늘 하는 말이 그렇지만은 좌우간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이에요.

물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이다. 산하대지 이것도 허공성이다. 태양도 허공성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로 말이지 여러분들이 설법을 죽 들어나간다면 참말로 이거 허공성인 거 알거든요.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몸뚱이 지가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또 느끼는 자리 밉다 곱다 생각하는 자리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 이것도 허공성이다 이걸 알거든요. 알아도 실감이 안 나. 그건 왜 실감이 안나느냐 말이지 이것이 내다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관리물이라 해 봤든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또 내 소유물이라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지가 별 수 있나요? 그런 건데 도대체 이걸 갖다가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딱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짠 줄만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짠 줄만 알면 나중에 가서는 이 가짜 중에서 참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로 해서 일초 직입해서 여래 땅에 들어가는 이런 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초학자의 분수로 봐서는 그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거다. 이거 어떤 물건이다. 이 지구니 태양이니 어떤 거다. 이런 윤곽 좀 잡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니라요. 또 그리고 이 지구 덩어리가 지금 허공중에 둥둥 떠가 있다 그 말이죠. 또 태양도 그렇고 허공에 의지하고 있어. 나중에 또 이거 없어질 때 허공중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안다면은 그때 가서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말이죠 허공으로서의 내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허공으로서의 내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외우는 걸 갖다 공부라 여기지 마세요. 아난존자가 부처님 회상에서 울었거든요. 속으로도 울고 겉으로도 울었거든요. 내가 다문제일잔데 많이 듣기로는 제일 많이 들었어. 나는 그걸로서 다 된 줄 알았더

> **들은 것 공부로 삼지 마세요**
>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 **'내다 하는' 아만상 없어져요.**
> **허공으로서의 나를 인정하고**
> **늘 잊지 않고 생활하세요**

니만은 아 법이 가섭존자에게 갔단 말이죠. 기가 막힐 일이라. 또 인간관계로 봐도 나는 부처님의 동생이거든요. 종제라, 사촌 동생이라. 동생인데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법이 내게 와야 되겠고, 또 아는 거 보더라도 내가 가섭보다 더 알지 모르는 거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가섭 존자는 잊어버린 거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난존자는 잊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 부처님 법은 내한테로 온다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한데 어어 법이 가섭존자에게 가버렸어. 그러하니 울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문 제일 많이 듣는 거 이거로서 공부를 삼지 마세요. 그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아만상이 없어져. 없어. 실로 아만상이란 뭔가 할 거 같으면 내다 하는 그것이거든요. 나도 아닌 걸 내다 하는 거 그 무엇이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다 하는 아만상 그걸 나는 우리말로 거드름, 거드름이라 해요. 거드름 빼 봐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무엇이 있나요. 사실은 속에 똥밖에 안 들었는데 무엇이 있나요. 거드름 빼 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 거드름의 당처도 빈 건데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첫째 허공으로서의 내. 이거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또 내가 실감이 나든 안나든 말이지, 처음엔 실감이 잘 안 나겠지요. 실감이 안 나더라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가지고서 말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나온 말마디가 내 귀에 다시 들어오도록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의미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그만치 하면 대강 의미는 알게 되는데 그러하면은 사불범접입니다. 잡귀가 범접을 못합니다. 범접 못합니다. 주문 주문 무슨 주문 여기 참 최상승 주문이라고 아제아제바라아제 이런 말씀도 부처님께서 해 놨지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의미 몰라도 좋아요. 의미 몰라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아침에 딱 일어나 세 번만 하고 나가 보세요. 손해 볼 것 손해 안 봅니다. 크게 어디 다칠 것도 적게 다쳐요. 그러고 그날 맘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무서운 주문입니다. 주문이란 것이 의미 모르고 하는 그것만 주문인 줄 압니까? 우리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하는 거 말마디나 뭐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알고 하자 그 말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는 모르는 거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끌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자는 요새 사람은 그리 잘 안속아 넘어갑니다. 알아야 돼. 내 눈으로 봐 버려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말이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크게 말해도 좋아요. 또 아이들이든지 누가 볼 때 비웃든지 이상하게 생각한다 싶으면 내 속으로 속으로 중얼중얼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세 번만 해 보세요. 세 번만. 반드시 그날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한테 쫓아올는지 모릅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무아미타불' … '총섭지의' 진리 내포

13-3. 보은게(報恩偈)

이런 사상은 그가 선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세상에는 집단적인 악이 존재한다. 뚜렷한 사실과 또 스케일이 큰 광범위한 선의 참 모습을 그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므로 이 점은 우리가 퍽이나 생각해 볼 문제다. 이에는 신라 화랑(花郎)의 대종장(大宗匠)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백결(百結)선생이라는 분도 훌륭하였지만, 백결 선생이 자기의 스승으로 성인으로 받들어 모시던 물계자(勿稽子)라는 어른이 있었다. 물계자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하고 칼 쓰는 법, 진 치는 법을 알아 두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자신도 그것을 익혔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칼을 뽑아 들고 휘두르며 '살려지이다' 하는 것이다. '살려지이다' 라는 이것은 그가 칼을 쓰는 것이 결코 사람을 죽인다거나 악업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의 선, 절대의 대 사회라는 목적을 가진 큰 의리 대의(大義)에 산다는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신념의 소리였다. 이것은 또한 중국철학의 근본되는 주역(周易)에 있는 글, 천지의 대지에 살려지이다. 하는 소리다. 그 소리 '살려지이다' 를 불교적으로 본다면 진언(眞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신으로 입으로 육체적으로 삼밀(三密)이 가지해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이러한 큰 진언이 되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 정성스러운 은혜를 얼마나 감사스러운 일인가 느끼고 스스로 어떻게 보은하도록 하느냐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신구의업(身口意業)에 몸으로 입으로 마음 쓰는 것으로 쉴 사이 없이 무유간단(無有間斷)으로 지속하는 기쁨으로서 이러한 생활을 해나간다. 우리들 일상 생활이 늘 이래야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보은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연스러이 생각마다 염불을 외는 것이다. 그래서 십념(十念)이라고 하여 열 번 염불한다.

14. 십념(十念)
나무아미타불(十念)

지금까지 이론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이런 것 저런 것 늘어놓아 퍽이나 복잡하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것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하기 쉬운 것이라야만 이를 받아들인다. 하기 쉬운 것이라야지 복잡하고 어려워서는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생활에 맞추어 간간하고 단순한 진리가 마련되었다. 이것이 나무아미타불이다.

앞에서 풀이하였지만 여기서는 내 나름으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생각해 본다.

남(南)이란 우리가 다들 '바르다' 는 말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것을 남녘남이라 한다. 임금이 바로 앉아서 선정을 베푼다는 뜻. 임금은 군주주의(君主主義)라는 것보다도 단군(檀君)이나 요순(堯舜)의 시대에서 볼 때 나라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어른, 성인(聖人)을 말한다. 임금이 나라 일을 바로 생

> **나무아미타불의 '미(彌)' 는**
> **하나의 큰 것 믿는다는 의미**
> **자신이 깨치고 그 다음에**
> **남을 깨치도록 돕는다.**
> **궁극적으로는 이를 행동으로**
>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다.**

각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는 남쪽을 향해 앉는 것이다. 이것은 남쪽이 정대하고 바르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오행설(五行說)로 비추어 보는 견해다 오행은 중국사상이 아니라고 신채호(申采浩)선생은 말한다. 팔괘(八卦)의 여덟이라는 수가 중국의 것이고 오행은 우리 고조선의 단군 계총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조선상고문화사(朝鮮上古文化史)에서 중국의 수는 8이고 우리는 5가 정수라고 하였다. 알기 쉽기로는 윷놀이가 있다. 처음 하나 도에서 비롯하여 개, 걸, 윷, 모로 끝난다. 이래서 우리의 원시적인 수는 모고 그것이 마지막이다. 모 위는 더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겨레의 사상은 5를 기분으로 하였다. 첫째 손가락의 수가 다섯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을 기본수로 정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여튼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 오행설에 비추어 볼 때 남은 불에 해당한다. 불은 광명과 정열의 상징이다.

또 무(無)는 무엇인가? 없을 '무' 자다. 없다는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다는 뜻이다.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것 중의 가장 큰 것은 허공이다. 그러나 어디로 어떻게 붙잡아서 이것이 허공이다 할 수 없으므로 실상은 이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장 큰 것을 일컬어 없다, 무다 하는 것이다.

가장 큰 것을 우리는 무로 표현하였지만 이것은 뜻의 풀이고 보다 직접적으로 이를 소리로, 발성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항용 소리의 기준은 아(阿)이다. 아 어오우으이 하는 자음이 붙지 않은 기본음인 모음에서 제일 첫째 소리며, 따라서 가장 큰 것이 '아' 다. 아빠, 아이참, 하는 따위로 이것은 감동으로서 발하여진다.

다음 미(彌)는 무엇인가? 나는 이를 '믿음' 이라고 생각한다. '믿다' 하는 것이 미타(彌陀)란 말이 되었다. 믿는 것이다. 하나를 가장 큰 것을 믿는다. 가장 큰 하나의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깨치고 다음에 남을 깨치도록 하고, 그 깨친 바의 행동을 궁극까지 성취시켜 나가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를 나대로 내가 감히 설명한다면 아주 공명정대하게 정열적으로 무형의 것을 붙들어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유형적인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 그러자면 하나의 큰 기둥을 믿어 이를 깨치고, 남을 깨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깨친 바를 행동화하여 실천한다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은 물론 범어지만 우리말로 내 해석으로서 생각해 보아도 역시 재미있다. 이런 뜻에서 나무아미타불은 바로 우리말이고, 우리말의 진언(眞言)이라고 생각한다.

나무아미타불은 진언이기에 총섭지의(總攝之義)가 있다. 모든 것을 두루 포섭해 가진 진리다. 둘째는 독존지의(獨尊之義)가 있다. 홀로 가장 높아야 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삼 보 양 초



①원기등홈 / 원기둥 한 BOX 20개 · 가격 : 9만원 (금초출시예정 11만원)
②돈 타 레 홈 초 40개 · 가격 : 9만원 돈타레홈금초 40개 · 가격 : 11만원
③등신불홈(대) 25개 등신불홈 40개 한 BOX · 가격 : 9만원
④밀대금초 한box · 50개 95,000원 밀대 한 BOX · 50개 75,000원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고 오래 탄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4번길 17 (거제동)
소 원 사 주지 도명 합장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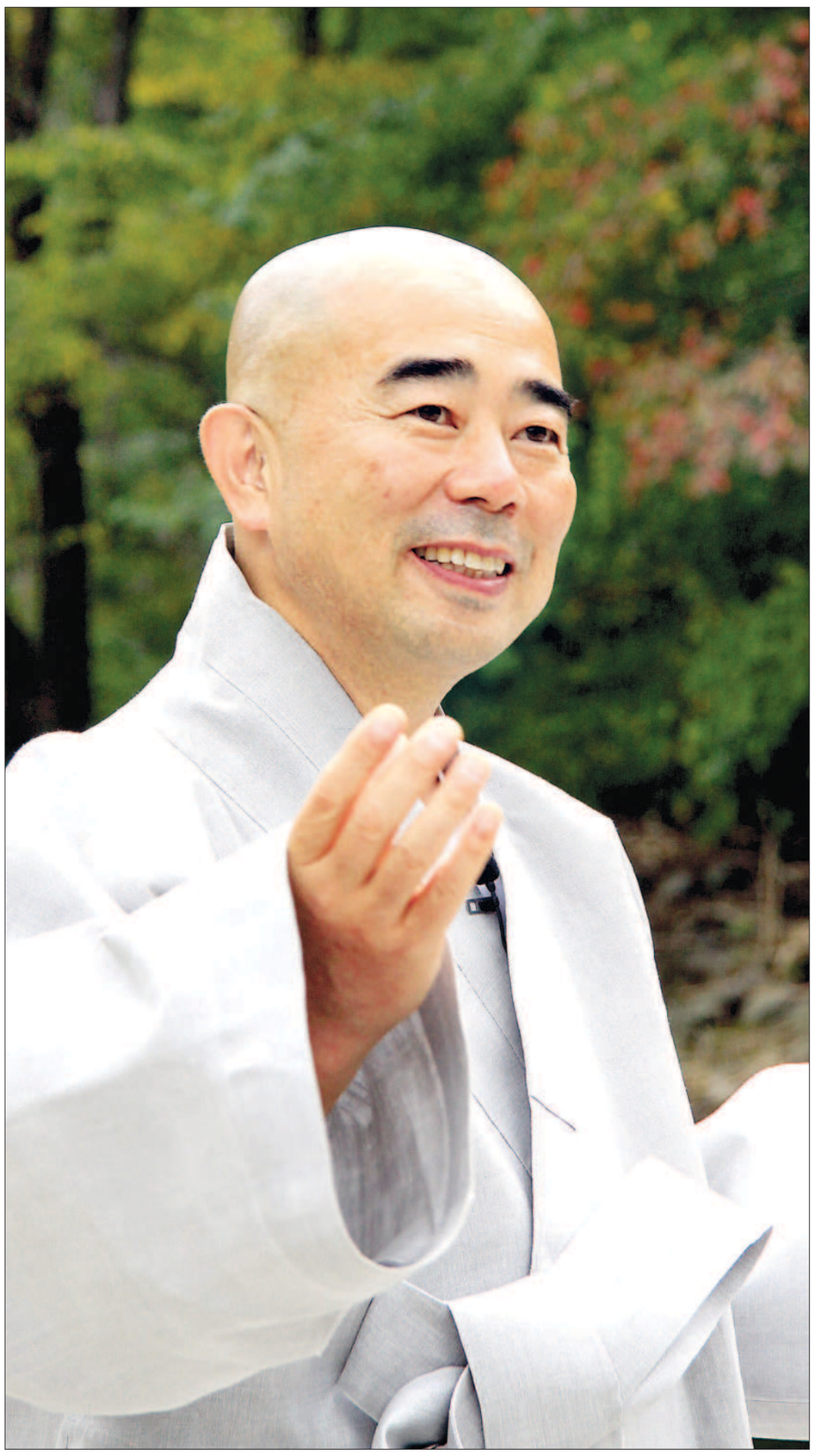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산중불교의 미래 생존전략 …

정념스님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 1980년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오대산 상원사 주지와 나눔의 집 이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호법분과위원장, 강원불교 연합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월정사 주지로 재임해 왔다.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을 벌여온 정념 스님은 또한 2012년에 정부로 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포상을 받기도 했다.

오대산은 1,400여년 전 자장율사가 개산한 후 불교성지로 추앙받고 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월정사는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한암 스님, 도제 양성에 힘쓴 탄허 스님, 가람 복원에 앞장선 희찬 스님이 주석하며 올곧은 수행가풍을 잇고 있다.

이 유서깊은 천년 도량은 해마다 '오대산불교문화축전' 을 개최하면서 전통은 계승하고, 현대의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는 통섭의 공간, 열린 공간으로 발전중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로의 회향' 을 강조하며, 지난 2003년부터 조계종 제 4교구 본사인 월정사와 말사의 종무행정을 진두지휘하는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 스님이 있다.

문화포교 새 모델 제시…오대산 문화축전 등

스님은 단기출가학교와 같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불교계에서 흔치 않는 대박을 터트리는가하면, 때로는 조선왕실의궤환수위 공동의장 등을 맡으며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갈등에 대해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를 통해 오대산으로 많은 이들을 불러 모은다. 문화 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계속 제시중이다.

정념 스님은 "10월 11일부터 약 1주일간 시작되는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은 벌써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문화시대를 맞아 '생명 · 명상 · 치유' 등을 주제로 잡고 많은 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불교문화 축제의 장으로 펼칠 것입니다. 오대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월정사라는 전통 수행공간의 가치를 십분 활용해 자연과 소통하는 생태문화축제,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테마축제, 지역을 활성화 하는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강시원제를 비롯해 오대샘물 합수식, 산사음악회, 승가학인 법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월정사를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인식시키고 불교문화자원을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생명과 나눔, 평화의 한마당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탠다는 것이 올해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월정사의 많은 행사중에 많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또 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오대산 천년의 숲 옛길 따라 걷기 대회' 다. 이 역시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상원사까지 걷는다.

정념 스님은 걷기대회에 대중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위기에 직면한 현대 문명에 숲은 희망을 던져줍니다. 걷기 대회는 천년 숲길을 걸으며 우리 사회의 희망인 숲이 주는 지혜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자리이지요. 부처님께서도 숲길에서 나시고 숲길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불교에서의 길은 수행의 시작이자 완성을 의미하며, 숲은 생명이자 정신적 쉼터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대산 천년 숲길은 가장 한국적인 숲길로서 인공적인 포장을 거부한 생명의 길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전나무 숲길과 복원된 옛길을 걸으면서 가장 한국적인 숲의 향기를 맡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 스트레스에 찌든 도시민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갈 수 있기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11년 넘은 단기출가학교 히트…블루오션 적중

월정사는 조계종 25개 교구 중에서도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사찰로 꼽힌다. 단기출가학교 수련법회 템플스테이 불교교양대학 문화대학 등 불자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된다. 그중 가장 히트를 친 대박상품은 역시 11년전 처음 시행한 단기출가학교다. 월정사가 전국에 가장 많이 알려지게 한 일등공신이다. 유명인부터 소시민까지 2000여 도반(道伴)이 배출됐다.

저마다 크고 작은 고민과 사연을 가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들이 스님과 똑같이 한 달간 행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단기출가학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수행을 통한 마음 치유와 더불어 사찰음식을 통한 몸 치유 프로그램 때문이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다는 후문도 들린다. 누구도 이 어려운 체험을 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건만 무엇이 이들을 단기출가학교로 이끌었을까.

2003년부터 주지 맡으며 월정사 탈바꿈
문화축전, 걷기대회 등 기획 호응
지역 열린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단기출가학교 대박… 2천여 도반 배출
지원자 대거 몰리고 경쟁률 높아져
'자기성찰' '진리추구' 등 동기 부여

수행 · 문화 · 복지 등 3대 비전 제시
'만불선원' '문수선원' 등 잇달아 개원
문화올림픽 중심될 '탑돌이' 재현

이들에게 출가수행 체험의 기회를 마련한 정념 스님은 "도시에서의 생활과 변화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삶에 대한 무상감을 느끼는 게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각 사찰의 수련법회나 템플스테이 등에 몰리는 사람들이 이를 말해주지요. 나이 드신 분에게는 오욕락(五欲樂)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가,나는 무엇인가' 라고 되묻는 자기성찰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은 자기를 확립하고 삶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수행자적 삶이란 진리를 추구하고 이상적 인격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런 기본을 갖춰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 바로 단기출가학교입니다."

월정사가 단기출가학교를 열자마자 실제로 머리 깎고 한 달 동안 출가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무려 2천여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릴만큼 폭발적 인기를 모으며 화제를 뿌려왔다.

"단기출가학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추진은 하면서도 솔직히 이 힘든 과정에 과연 얼마나 올까 걱정도 했지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갖가지 사연을 간직한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고 회가 거듭될수록 경쟁률도 높아져 지금 이 시대가 이 같은 수행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단기출가체험이 우리가 군복무하듯 일생에 한 번은 하는 것이 불문율로 돼있지만 한국 불교에선 없었거든요."

출가수행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회일반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만든 것이 단기출가학교라는 설명이다. 정념 스님은 '블루오션 전략' 을 절집에 도입해 성공시킨 셈이다.

산중사찰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

실제로 정념 스님은 산중 사찰도 사회의 변화에 맞춰 변신해야 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쏟아냈다.

지난 2003년 11월 주지 부임 이후 월정사가 벌여온 산사영화제,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월정사 주지배 평창군 족구대회와 축구대회, 평창군민 노래자랑대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한 · 중 오대산 수행 교류,미얀마 마하시수도원과 자매결연 및 수행 교류,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전나무 숲길 도로포장 제거 추진 등의 행사 등 손에 꼽기 버거울 정도다.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너무 산중(山中) 중심이어서 승속(僧俗)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묘법(妙法)도 멀리 있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정념 스님은 출가 직후부터 은사인 만화 스님을 모시고 참선수행의 길로 나섰고 1992년부터 12년간 상원사 주지를 맡으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행대중과 함께 안거에 들었던 수좌 출신이다. 이러한 수행 정진은 월정사 주지를 맡은 10여년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산중의 정적인 수행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寺' 는 '社' 가 아니지만 경영마인드 분명 필요

"사찰의 경영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불교도 크게 변하지 않으면 화석화되고 말 겁니다."

정념 스님은 "절집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정사의 수입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걷는 문화재관람료가 절반가량입니다. 나머지는 기도비 · 불전 보시금 · 인등수입 등이지만 사찰의 전통적인 수입기반은 갈수록 줄어드는게 현실이지요."

새로운 경영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그래서 정념 스님은 일찌감치 10여년전부터 월정사의 비전을 수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로 불교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정립하다

21세기의 나란다 불교대학 '영산불교대학' , 560명 불자들이 신심(信心)과 정견(正見)을 연마하는 한국 최고의 불교교양대학



영산불교대학 수업장면

■ 2014년 입학생 560명 감로의 정법으로 신심을 불태우다 : 최고 교수진의 열강, 불자들의 열화같은 호응

영산불교대학은 많은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2010년 3월에 개교한 이래로 해마다 불자들의 열화같은 호응과 성원으로 매 학기마다 수강하는 불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주분원에서 불교대학을 개원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내외의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통신강좌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 수는 560여 명에 달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1000여 명의 불자들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과목과 정법에 정통한 우수한 강사진의 열강을 통해 방대하고 심오한 부처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세계불교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불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 : 세계불교를 쇄신시킬 정법의 가르침

영산불교대학은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경전 학습을 기초로 해서 두분 큰스님께서 저술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2〉에서 밝힌 우주적 진리인 신불교 교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32상 80종호를 갖춘 빛의 인격체로서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부처님 실존론 ▶인간의 본체이며 윤회주체인 인간 영혼체의 깊은 비밀과 실체를 밝힌 인간 본체론 ▶사후에 가는 지옥 · 천상 등 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의 실존과 정확한 실상을 밝힌 윤회 · 해탈론 ▶인간과 우주만물 탄생의 지고한 비밀을 인류사상 최초로 밝힌 우주론(공아자성기론)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타력중심의 팔정도칭명염불 수행론 등입니다. 특히 불과를 증득하신 두분 큰스님께서 전하는 부처님세계의 소식과 부처님 말씀을 불자들에게 생동감있게 전해드립니다.

■ 영산불교대학의 교육목표 : 세계불교를 이끌어갈 신심과 정견을 갖춘 불자 양성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의 '무아론(無我論)' 을 잘못 해석하여 인간본체인 영혼체의 존재도 나아가 부처님의 실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보살이 되는 정통수행법도 없는 3무불교(三無佛敎)로 왜곡되고 왜소화되어 버렸습니다. 영산불교에서는 2000년 이상 왜곡되어온 이 무아론을 바로잡아, 무아는 인간 영혼체를 부정한 교설이 아니라, '현상계의 나(我)의 실체없음' 과 '나(我)라는 이기적인 생각' 을 버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영혼체 윤회론' 이라는 신교설을 불교사상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부처님의 실존에 대해서 기존 불교의 추상적인 '불신론(佛身論-삼신론)' 을, 불과를 증득한 두분 큰스님의 수행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께서 '무아속 절대계(연화장세계)' 에 여여히 계심을 증명하여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禪宗)의 영향으로 '마음이 부처' 라는 잘못된 교설에 익숙해져 있고 또 방대한 8만장경의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영산불교대학은 정견과 신심을 확고하게 정립해드립니다. 영산불교대학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불교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불자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4학년 졸업식

■ 2600년만에 내리는 감로의 정법 :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

초기불교는 부처님 재세시의 직접 교설을 담은 아함부 경전의 가르침으로서 생천(生天) · 해탈(아라한) 중심의 기본 가르침이고, 〈열반경〉에서 말하는 반자(半字)의 가르침입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구도에 따라 사바세계에 몸받아온 붓다의 화신들께서 쓰신 대승경전 중심의 가르침으로서, 초기불교 보다 한 차원 높지만 불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영산불교 신불교는 현지사의 광명만덕 · 자재만현 두분 큰스님께서 불과를 증득하시고 부처님 보신불이신 노사나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아 펼치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세계불교계의 왜곡되고 왜소화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대승경전에서 미비된 교설을 보완한, 삼계를 벗어난 보살 붓다됨을 목표로 하는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영산불교대학에서 우주적 진리인 신불교의 만자의 가르침을 만나보십시오.



졸업식 장기자랑

출가 : 청정한 수행의 길,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길
지금 현지사로 젊은 인재들이 출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참선수행을 열심히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사를 만난 이후 염불이 정법임을 알았습니다."
– 대성행자 (00승가대학 졸업)



"저는 현지사의 스님이 되는 길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 원오행자 (고려대 영문과 졸업)



"어렸을때 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 자성행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젊은이들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로 행복해 지는 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 혜주행자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통역과 졸업)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수행, 문화, 복지의 조화



5월 열린 걷기대회서 참가자들에게 환호하고 있는 정념 스님



단기출가 참가자들과 오대산 북대산행을 하며 주변역사를 설명하는 정념 스님



정념 스님이 단기출가학교 참가자에게 출가전 삭발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

행 · 문화 · 복지 등 3대 영역의 조화로 잡았다.

"오대산 일원에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적 수행 · 문화 · 건강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월정사 경내는 선원과 노인복지시설, 단기출가학교를 포함한 시민선방, 템플스테이 체험시설 등을 갖춘 종합 수행 · 신행 · 문화 도량으로 가꾸게 되지요."

2012년 불교수행관 문수선원 개원

2012년 5월 불교수행관 문수선원을 개원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향후 월정사가 지향하는 목표도 밝혔다. 정념 스님은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해발 700m 고지의 월정사는 전나무 숲길 등 풍성한 자연환경과 적멸보궁 및 다수의 산내 암자 등 수많은 불교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 오대산은 템플스테이뿐 아니라 명상, 수행, 치유를 위한 최적의 요건을 두루 갖춘 최고의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정사 불교수행관 문수선원(선원장 정경 스님)은 2009년 12월 착공, 2년 6개월 공사 끝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2464.04㎡(745.37평)로 건립됐다. 지상은 요사채와 사무실 등 5개동 474.48㎡(143.53평)이며 지하는 1개동으로 1989.56㎡(601.84평) 면적에 수행관을 비롯해 관리실과 기계실로 구성됐다. 최대 150~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상설 수행관이다. 문수선원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행공간이다. 월정사는 지난 2008년 스님들 수행처인 '만불선원' 개원에 이은 문수선원 개원으로 명실상부 강원도 최고 불교수행 도량으로 거듭나게 됐다. 정념 스님은 "문수선원은 자연과 불교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재충전 장소이자 수행처로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수성지 오대산서 피어나는 수행 열기는 한국 불교에 큰 희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웰빙 명상수행단지 조성이 큰 숙원불사

앞으로 정념 스님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은 월정사 사하촌에 '웰빙 명상수행단지'를 조성하는 일이다. "자연 속에서 평온하게 지내면서 사색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자 하는 현대인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명상수행 공간과 약초 산채 등 산촌의 건강음식, 한방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웰빙 명상수행단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또한 정념 스님은 오대산만의 특화된 산중 스토리를 현대에 맞게 콘텐츠화해 대중 앞에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오대산에 있는 국보 48호인 월정사 8각9층 석탑은 한국 석탑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문화재입니다. 탑돌이 문화를 잘 복원해 현대적으로 변용시킨다면 특화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정사 탑돌이'가 문화올림픽의 중심이 되려면 전통을 살려 보존하는 것과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해 현대화하는 이원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탑돌이 원형은 보존하면서 한편으론 뮤지컬이나 전통공연과 접목해 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월정사 앞마당을 무대와 관객석으로 활용하고 각종 의식과 공연을 대중들과 함께하는 형태로 만든다면 평창을 찾은 외국인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정념 스님은 "현재 힐링 문화들이 서구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불교는 힐링에 대한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힐링문화를 불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불교적 수행법을 모델로 해서 현대인들에게 어필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산중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완공해 세계인들이 한국적 불교 힐링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불교 문화가 세계 속으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법일기

내가 포교 당했던 때

8월의 마지막 밤의 날씨가 제법 선선했다. 참으로 계절 주관자가 누구일까. 달력도 보지않으면서 어떻게 9월이 오는 것을 알았을까?

아침에 어느 보살이 초하루법회 하냐고 물었다. 초하루 법회가 아니고 오늘은 음력 초여드레 약사재일법회 한다고 일러주었다. 약사재일법회 던 무슨 법회 던 9월 첫째 날 하는 법회면 그것도 초하루 법회 아니냐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언젠가 법타스님께서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한지 오래 지났는데도 절에서 음력을 기준으로 법회를 하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양력에 맞춰 생활하는 사람들의 패턴과 이격되어 불교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하셨다. 공감이가는 말이다. 주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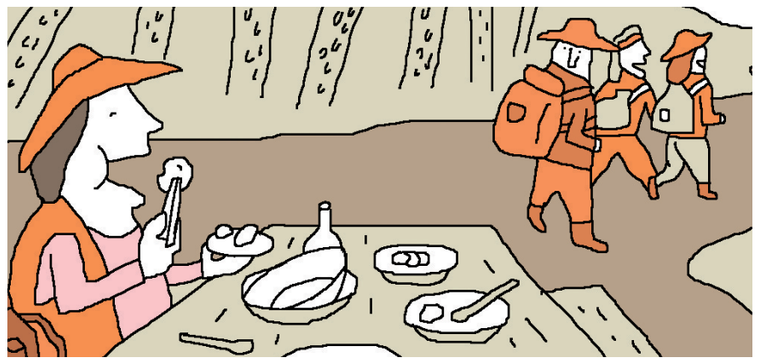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중심으로 사찰이 운영된다고 하여 보살절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기에서 탈피하려면 반드시 사회의 생활양식과 사찰의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이와 함께 법랍도 늘다보니 이제 자꾸 불교계와 승단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불교의 사회적 위치와 승단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보답 할 수 있을까를 자주 생각하게 한다. 어떻게 내가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느꼈던 환희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초발심자들을 더 깊은 불교의 깊고 환희로운 세계로 이끌어 들일 수 있을까? 늘 안타까운 마음과 불교계에 빚진 듯 한 생각에 젖어들곤 한다.

처음 불교에 발을 들인 기억을 떠올려봤다. 참으로 인연의 시작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 시작 되었다. 언젠가 덕유산으로 등산을 갔을 때였다. 산행을 하고자 아침을 준비해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같이 식사를 하던 여자대원이 음식이 조금 남았으니 다 같이 깨끗이 먹자고 말 했다. 대부분이 만족 할 정도로 식사를 마친 후라서 일어나버렸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른 불평 없이 혼자 힘겹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져 먹는 걸 도와(?) 주었다. 그때 그는 씩 웃으며 태연하게 '아침 조금 든든히 먹어두면 낮에까지 배가 잘 안고파져요' 라고 했다. 잔반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은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닿아 왔다. 산행을 하면서 자꾸 그 여자 대원의 행동과 말이 떠올랐다.

한참 후 어느 토요일, 산행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그 보살을 마주했는데 조계사 청련회에 간다고 했다. 젊은 사람이 무슨 이유로 절에 갈까 생각했지만, 그날 산행에서 보여준 행동에 관심이 끌려 같이 조계사로 가게 되었다.

그날 첫 걸음이후 불교는 더없는 매력으로 내게 닿아 왔고, 6개월 후 출가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출가 후 지금까지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던 그날 그 사람의 모습은 늘 일상의 지침이 되고 있다.

전법은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대한 활동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음식을 함부로 남기지 말라. 이 작은 규범을 지키려 애쓰던 어린불자의 모습으로 인해 한명의 불자, 한 스님이 되게 한 인연이 되지 않았는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위의를 지키며, 항상 유화선순(柔和善順)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활전법이요 포교활동일 것이다.

가을이 왔다. 고깃배 불빛 가득한 서귀포 앞바다를 바라본다. 나도 이 가을 누군가의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싶다.



성원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관음성지 용왕 전문도량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스님**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아래와 같이 불교TV에서 경전 강의

- 아 래 -

- 경전 : 법진스님의 수행의 근본지침 -42장경
- 일시 :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9월 24일은 강의 없음>
- 장소 : 불교TV 1층 무상사 법당(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문의 : 02)3270-3300



법진스님

무상사 법당에 오시면 직접 법진스님의 법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법진스님 〈42장경〉 강의 불교TV 방영시간 안내 *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 화요일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10시와
매 일요일 새벽 2시에 불교TV(BTN)로 방영됩니다.

■ 불교 TV 채널 안내
* IPTV : KT(233), SK(555), LG(185)
* 스카이라이프 : 411(전국공통)
* 케이블TV 채널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전화문의 바람(02-3270-3355)
* 인터넷(www.btn.co.kr) 및 모바일(m.btn.co.kr)에서 무료 다시보기 가능



대기업 된 소림사, 영리사업 '도마' 위로

이종격투대회 추진,
지난 달엔 무술 모바일 게임 개발


무술의 본산인 소림사가 무술학교 등 9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본분을 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불교를 상업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 소림사가 태권도, 가라데 등 무술 고수를 초청해 최고를 가리는 세계무림대회 개최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소림사 주지 쓰융신 스님은 지난 8월 개최된 선불교 관련 포럼 폐막식에서 "세계 무술 고수들이 참여해 서로 일합을 겨루는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확한 시기와 추진 방향, 시합 규칙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현될 경우 1500년 소림사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무술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 언론인 차이나뉴스닷컴은 쓰융신 스님의 말을 인용, "소림사를 거쳐 간 전 세계 쿵푸와 태권도와 가라데, 킥복싱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무술'을 대표하는 실력자들도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실전 무예의 한마당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불교 신자와 네티즌들은 신성한 참선의 도량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소림사는 최근의 변신이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데 기여하는 만큼 상업성을 초월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경제면 톱기사를 통해 "소림무술 자체가 비즈니스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의 탄압에 1980년대까지 밥 한 끼 먹기 힘들었던 소림사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이미 대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연간 3백만 명의 입장료로 290억 원을 버는 소림사는 무술쇼와 무술학교,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하고, 온·오프라인에선 기념품과 무술 책을 팔고 모바일 게임 사업까지 뛰어들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무술학교 등 9개 계열사 거느려

홍보직 채용에 교수·언론인 등 몰려

네티즌 "이윤 추구 본분 망각"

쓰융신 주지 "중국문화 전파 계기"

소림사는 2010년 중국의 페이스북이라 불리는 '시나 웨이보'를 개설해 소통을 시작했고, 현재 팔로워는 15만 명에 이른다.

지난 3월에는 쓰융신 스님이 구글과 애플 등 거대 IT기업의 본고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소림사의 새로운 행보를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무술 체험 교육프로그램은 소림사의 상업화에 일조했다. 경내에는 외국인 전용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소림사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사찰의 성장을 방증하듯 소림사는 얼마 전 홍보 책임자와 편집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소림사 무형자산관리센터 한 스님은 "나날이 국제화되는 소림사의 발전에 발맞춰 이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우수한 작문 실력과 영어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하고 뉴미디어 관련 경력도 있어야 한다. 중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실행 능력, 소림사 문화 전파와 발전 의지 등도 모집 조건에 포함된다.

지원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네티즌들은 채용 조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채용 담당자는 "성별·결혼 여부 등은 상관없고 출가하거나 채식할 필요도 없다. 무술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직이 빈번해서는 안 되며 불교, 특히 선종 사상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임금은 일반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고가 난지 이틀 만에 지원자는 300명을 넘었고 일차 심사를 거쳐 이력서 80통 정도가 추려졌다. 이 가운데 25%는 해외 유학 경험이 있었고, 대학교수를 비롯해 불교에 관심 있는 주요언론 경력자와 지역신문 편집장 등 쟁쟁한 지원자도 있었다.

이렇게 소림사가 재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경영학석사(MBA) 출신인 쓰융신 스님의 공이 크다. 쓰융신 스님은 뛰어난 사업수완을 발휘해 황폐해진 소림사를 재건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신성한 종교단체가 돈벌이에 눈이 멀어 영리단체러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평론가 왕다웨이는 "최근 소림사의 변화는 소림사의 근본마저 배반하고 있다"며 "소림사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깨끗한 마음으로 몸과 정신을 수련하는 선(禪)과 무(武)의 결합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쓰융신 스님은 "소림사의 이익추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림사의 자회사들은 합법"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싱가포르, 게이랑 불교도서관 오픈



다시 문을 연 게이랑(Geylang) 불교도서관 오픈 기념식 사진. 이날 테오치헤안(Teo Chee Hean)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참석,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년간 보수 공사로 새로워진 게이랑 불교도서관이 지난 7일 문을 다시 열었다.

〈Straits Times〉 지는 "1백만 달러를 들려 공사를 마친 게이랑 불교도서관이 7일 1년만에 문을 열었다"고 밝히고, "게이랑 불교도서관은 10만여 권의 불교 관련 전적을 소장한 스리랑카 최대 불교도서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불교도서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오치헤안 장관이 참석,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념식에서 "싱가포르는 인종과 종교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한 테오치헤안 장관은 "게이랑 불교도서관은 싱가포르 불자들의 심신의 귀의처이자, 타 종교와 교류하는 '아고라' 로써의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거리의 예불 공간, 지역 사회 힐링



지난해 오클랜드 11번가에 세워진 '예불 공간' 전경.

2평 남짓한 예불 공간만으로도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

미국 CBS 방송은 17일 "오클랜드의 대표적인 우범지대로 꼽히는 11번가에 작은 예불 공간이 들어선 뒤로 범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오클랜드 11번가는 중국·베트남인과 흑인 등이 뒤엉킨 곳으로 마약?폭력 관련 범죄로 악명 높은 곳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크리스티나 모익로(Christina Moicillo) 씨 등 지역 자치위원의 제안으로 '부처님을 봉안한 예불 공간'을 개설한 뒤로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예불 공간이 힐링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모익로 씨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5% 정도 범죄율이 낮아졌다"며 "예불 공간과 범죄율의 상관 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 없지만, 이곳이 지역 사회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장 스님, 中·印 국경 평화 지켜낼 수 있을까?

고대 불교문헌이 인도와 중국, 두 나라의 평화를 다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Nation〉 지는 "인도 구자라트(Gujarat) 주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수상이 9월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자라트 방문에 앞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국 당나라의 구법승 현장 스님 관련 고대 문헌을 게재했다"고 전하고, "이는 우방국으로써 두 나라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치적 어필"이라고 주목했다

모디 수상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대 문헌〈사진 참조〉은 7세기 중엽 구자라트 주의 바드나가르(Vadnagar) 지역을 방문한 현장 스님을 묘사한 자료이다.

특히 이 고대 문헌이 중국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배경으로 게재됐다는 점에 주목한 〈Nation〉 지는 "중국과의 유연한 관계를 원하는 모디 수상의 뜻이 담겨있다"고 풀이했다.

〈Nation〉 지에 따르면, 모디 수상이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를 환영하는 연설에서 "당나라 고승 현장 스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구자라트 주는 고대 불교 유산의 보고"라며 "7,000여 건에 달하는 고대 불교 유물은 중국과 인도 양국 유대의 역사성을 고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배경인 셈이다.

그러나 모디 수상의 바람은 요원한 듯하다. 〈Reuters〉 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국경문제 등을 본격 논의했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국경 문제가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와 중국은 국경선을 확정짓지 못한 3300여㎞ 구간에 사실상의 국경선의 역할을 하는 LAC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최근 구자라트와 인접한 국경 지역에서 도로 건설을 시작하며 인도 구자라트 주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Reuters〉 통신에 따르면, 모디 수상은 "국경지역의 평화가 양국 관계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고,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국경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인도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ation〉 지는 "모디 수상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랄 때마다, 당나라 구법승 현장 스님에게 주목했다"고 전제하고, "지난 2011년 모디 수상이 '대사'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현장 스님을 모티브로 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중국과 인도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 구자라트(Gujarat) 주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수상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당나라 고승 현장 스님 관련 고대 문헌. 이 문헌은 구자라트 주의 바드나가르(Vadnagar) 지역에서 발견됐다.

'개고기' 단속 나선 불교국가 태국

국제사회 관심과 지지 얻으려는 속셈으로 해석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태국 군부가 개고기 단속에 나섰다. 태국은 불교국가라 대부분 개를 먹지 않는데도 개고기 단속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태국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식용견의 도축과 매매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지난 9월 12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국가 신용도 하락 경고를 받은 태국 군부가 개를 사랑하는 서방의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 불교국가인 태국은 불교의 윤회사상 때문에 태국인 대부분이 개를 먹지 않고 식용 목적의 개 도축과 판매도 금지돼 있지만 개를 방생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를 무단 포획해 개고기 수요가 많은 베트남과 중국 시장 등에 내다파는 경우도 많다.

태국 북동부 현지 시장에서 팔리는 개고기는 1kg에 한화 1만~1만6천원 정도다. 1~3만원 하는 개들은 해외로 팔려나가면서 최대 10배까지 가격이 치솟는다.

태국에서 중국, 베트남 등으로 옮겨지는 개들은 밀수업자들이 트럭 1대에 1천마리씩 가득 실어 이동 과정에 부상이나 질식, 굶주림으로 죽는 경우도 많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태국 정부를 압박해왔는데 태국 군부가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수미단, 닫집, 영단, 법상, 경탁 등 법당장엄 일체 제작
각종 법당불사 컨설팅 해 드립니다.

성 불 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KBB 한국불교방송

- 전국 지사 및 취재본부 모집 -

(주)한국불교신문방송은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지역뉴스,사찰행사 등의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라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한국불교신문방송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회사업,문화사업,해외사업에 동참하여 함께 성장해 나갈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전국 지사장 모집
전국, 시, 군 단위

모집부문	인 원	구 분
기 자	00명	※ 35세 이상 ※ 남녀 불문 ※ 경력자 우대
홍보기획팀	00명	
광고팀	00명	

(주)한국불교신문방송
www.koreabb.co.kr www.한국불교방송.kr 대표전화 1688-9097 경북북부취재본부 010-8822-2584

- 업체 및 사찰 홍보용 영상광고 무료게재 -

(주)한국불교신문방송 홈페이지에 업체 및 사찰 홍보용 광고를 무료로 2개월동안 게재하여 드립니다. (광고 문의전화 : 1688-9097)

(주)한국불교신문방송 영상사업부 사업분야
사찰행사 (산사음악회 등 사찰행사) /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
업체 및 사찰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기타 모든 영상물 맞춤제작

칠성상회 복합기 사은할인 판매



OKI MB471 DN -흑백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 해상도 1200dpi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420,000원(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68,000원(용량:4,000매)
임대시 : 4만원/월



OKI MC561 DN-컬러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컬러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자동양면 인쇄 가능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565,000원 (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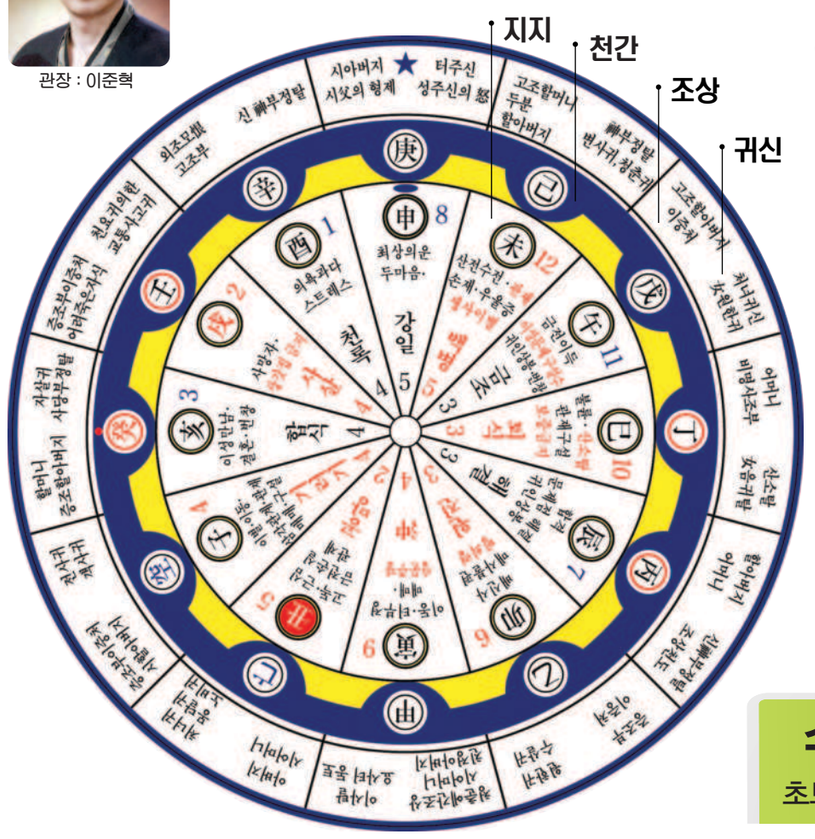
토너 별도구매 :105,000원*4색(용량:5,000매)
임대시 : 5만원/월

구매 문의 및 상담 :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www.7-star.net
입금계좌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관장 : 이준혁

백발백중귀장술 쉽게 보는 백문백답 회전원판, 내 손 안의 귀장술입니다 (극비 도궁술 추가 강의)



언제까지 손으로 짚어서 상담하시렵니까?

1)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2)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3) 백발백중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수작업으로 제작.
· 원판크기 지름 15.5cm
· 재질 : PC
4) · 초기원판 업데이트
· 크기확대 보기 편함
· 귀장 내용 추가

특허출원번호 : 30-0721929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명분

산사의 하루 나무에 새기니 '無'가 되었네

현찬 스님 서각전 9월 28일~10월 7일 나무 갤러리서


경북 영덕 옥천사에서 수행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현찬 스님. 스님 옆, 밑 빠진 항아리를 화분으로 탄생시킨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나무뒷박에 새겨진 정갈하고 소박한 '무(無)'는 공의 의미를 단박에 말해주고, 돌에 먹으로 새긴 화락(和樂)은 화평하고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나무, 돌,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추상문자를 새긴 현찬 스님(옥천사 주지)의 서각 작품이 대중들을 찾는다. 9월 28일~10월 7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의 주제는 '산중일기'다. 경북 영덕군 달산면의 옥천사를 지키고 있는 스님은 산중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일기처럼 작품에 새겨 넣었다.

승가대 재학시절 교내에서 몇 번의 전시를 가지기도 했지만 스님은 주지소임을 맡으면서부터는 작품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중에게 오래만에 선보이는 이번 전시가 스님에게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옥천사 주지를 살면서 10년 정도 유치원을 운영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시골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경영이 여의치 않았어요. 2년전 유치원 문을 닫게 되었고 제 시간이 생겼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 재주는 없는데 손재주가 좀 있어요. 사물을 보면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 느낌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스님은 오랜만에 여는 전시이기도 해 많이 떨린다며 솔직한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 글자를 새겨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틈틈이 취미로 전각을 해왔지만 전시를 위해 오롯이 작품을 만든 것은 너무 오랜만이에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스님의 목소리는 수줍었다. 이번 전시 작품에는 지난 12년간 수행하며 틈틈이 전각을 새겨온 스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화려한듯하면서도 소박하고, 세련된듯하면서도 수줍은듯한 글씨들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을 안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돌 나무 스티로폼 등 재료에
부처님 말씀 추상문자 완성
경계 넘어선 자유로움 표현

스님의 소재는 자유롭다. 나무뒷박, 돌,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 내니 스님의 작품에는 경계가 없다. 그 중에서도 '무'는 나무뒷박 뒷면에 글씨를 새겨넣어 눈길을 끈다.

"골동품상에 갔더니 주인이 뒷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여기에 글자를 새겨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무의 선질감을 살려 글자 문양 자체를 자유롭게 표현해봤어요. 틀에 박힌 형식은 탈피하고 문자추상화를 새겼죠. 저는 스님이니 경계가 없잖아요.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해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선, 요산요수 등도 뒷박을 활용해 완성한 작품으로 산속에서 고요히 수행하는 스님의 삶을 담았다.

금강경의 '법회인유분'도 주목할만하다. 나무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금강경의 구절과 함께 부처님의 모습을 새겨넣었다. 여기에 분채를 활용해 고분의 비석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했다. "제 전시를 찾는 분들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부처님의 뜻을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가을에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따뜻한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좋은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옥천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스님 옆에는 깨진 항아리가 근사한 화분 조형물로 놓여 있다. 밑빠진 독을 스님이 화분으로 다시 만들어냈다고 한다. 상의 경계에서 자유로운 스님의 손길이 항아리에게 새 삶을 부여해 낸 것이다. 이와 같이 스님의 작품은 늘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스님의 자유로운 손길은 부처님의 뜻을 새겨 넣어 한 발 한 발 대중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었다.


금강경 '법회유인분' 분채로 고분의 느낌을 표현해냈다.

한편, 현찬 스님은 1987년 영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1996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97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현재 옥천사 주지, 영덕경찰서 경승으로 활동하고 있다. (010)3531-938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화락' 돌에 화평하고 즐거움을 돌에 새겼다.


'무' 나무뒷박에 글씨를 새겨 소박함을 더한다.

르네상스 명작 고려불화를 만나다

정해진 작가 '호피명작' 전 10월 2일~11월 30일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회임을 알리는 장면을 그려낸 명작이다. 이 작품을 고려불화의 기법을 응용해 그려낸 '마리아와 동자'는 동자승이 마리아에게 회임을 알리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정해진 작가는 비단 채색의 고려불화 기법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명작을 그만의 시선으로 재탄생시킨다.

정해진 작가의 '호피명작' 전이 10월 2일~11월 30일 파주 헤이리 갤러리 아다마스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전통채색화인 '진채' 기법을 이용한 명화들을 부활시킨 그녀의 작품들은 익숙한듯하면서도 새롭다. 정 작가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의 기법으로 복원된 르네상스 시대의 명작들을 표현했다. 비단 바탕에 천연물감인 석채를 이용해 우리 고려불화와 같은 느낌으로 되살려냈다. 동양과 서양의 채색은 서로 다른듯하지만 공통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서양화를 동양적 미감으로 되살리려는 시도를 해보았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연꽃에서 피어난 비너스' 역시 눈길을 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는 분명 조개껍질에서 비너스가 탄생하지만 이 작품은 연꽃에서 피어나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수태고지'에서 모티브를 딴 '마리아와 동자', '팔라스와 켄타우로스'를 모티브로 한 '평화의 여신'에서는 관음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서양화의 여신들에게도 담겨있다고 생각했어요. 평화의 여신은 정병을 든 모습으로 또 마리아는 법을 구하는 동자승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서양 명작 모티브로 수월관음
진채기법 응용한 작품 눈길


정해진의 '마리와아 동자'

진채기법을 응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만의 미술 세계를 만들어온 정 작가는 앞으로도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통해 그만의 창작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비단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진채기법은 작가들이 꺼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법을 서양화에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작품에서 보여주었으니 앞으로 좀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해진 작가는 동국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동국대, 한성대, 서울ESMOD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동서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31)949-0269 **정혜숙 기자**

오색 빛깔 담아 '마음의 여행' 떠나요

홍미림 초대전 9월 30일부터 세종갤러리서

바쁜 삶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좀더 충만해질 것이다. 마음으로의 여행을 작품에 담아온 홍미림 작가의 전시가 9월 30일~10월 12일 세종호텔 세종갤러리에서 열린다.

홍 작가는 동양화의 전통채색과 먹(墨)의 혼용을 통해 중후하면서 아름다운 색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생각의 나무, 연꽃, 끈, 시계, 희망의 결정체, 복주머니 등 다양한 형상을 등장시켜 마음속으로 꿈꾸는 이야기나 진리를 말한다. 또한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 행복, 슬픔, 화 등 다양한 마음의 감정 상태도 그려내고 있다.

특히 화면에서 먹으로 표현된 나무와 복주머니 등은 작가가 생각하는 진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주변에 다채로운 색상으로 표현된 형상들과 대조를 이룬다. 즉 먹으로 표현된 부분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에 반해 다채로운 색상의 물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느끼는 것들을 자유로운 형상과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 외에도 과거 연(蓮)의 상징성을 주제로 표현한 연꽃 작품도 여러 점 선보인다. 화려한 색채의 향연과 함께 마음 여행으로 행복의 길을 찾고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2)3705-9021 **정혜숙 기자**


홍미림의 '꿈의 세계' 한지에 먹과 채색으로 현실의 세계와 진리를 표현했다.

고판화박물관 '전통 판화 공모전'

일반인 참여 가능…11월 3일~8일 접수

강원 원주시 치악산 명주사의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제2회 전통 판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전통 판각술을 복원하고자 마련된 전통판화공모전은 올해 창작판화와 생활판화 분야를 신설해 대중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판화작가는 물론 일반인도 참여가능하며 접수마감은 11월 3일~8일이다. 대상은 문화재청장상과 상금, 최우수상은 강원도지사상과 상금, 우수상은 원주시장상과 상금, 특별상 수상자는 박물관장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한선학 관장은 "참가 분야를 확대한 만큼 많은 대중이 참여했으면 한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계 최고의 해인사 대장경 변상도를 제작한 선조의 영광을 재현해 판화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선정된 작품들은 고판화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연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판화박물관 홈페이지(www.goapnhwa.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033)761-7885

정혜숙 기자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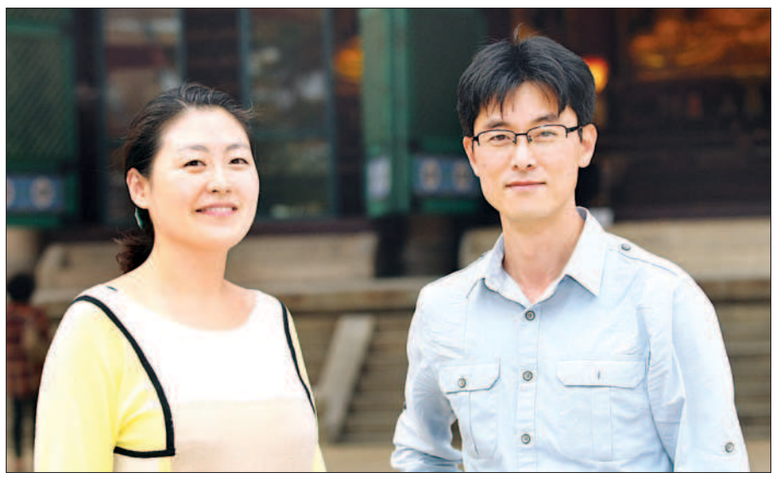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문화人

“우리는 찬불가 알리는 명콤비 불교음악 세계화 꿈꿔요”

‘무소의 뿔’ 무료 공연 여는 작곡가 이진구 · 성악가 유현주



찬불가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발원한 작곡가 이진구(사진 오른쪽) · 성악가 유현주 씨. 이 씨가 작곡한 곡을 유 씨가 부르며 세계 창작찬불가 대회 대상, 창작 찬불가 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하며 둘은 15년 간 명콤비로 활약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15년전 어느날이었다. LMB싱어즈 공연을 찾았던 작곡가 이진구(47 · 진구리 밴드 마스터가) 씨의 귀에 성악가 유현주 씨(39)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늘 찬불가를 세계화 · 대중화시키고 싶다고 발원하던 이 씨는 자신이 작곡한 ‘작은 마음의 노래’를 유 씨가 불러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찬불가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같음을 알았고, 작곡가와 성악가는 콤비가 되었다. 함께 순회공연을 다니는 등 호흡을 맞췄던 둘은 큰 성과를 낳았다. 2005 창작찬불가 공모전에서 ‘내 마음의 부처’로 대상을 수상했고, 대만에서 열린 ‘제4회 세계 창작 찬불가대회’에서 ‘자유 · 평화 · 행복’으로 대상을 받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뮤지컬을 공부하기 위해 이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유 씨는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사 과정에 들어가 찬불음악을 공부했다. 물론 둘의 교류는 계속 되었다. 이 씨가 미국에서 작곡한 곡을 유 씨가 한국에서 부르며 알려가는 등 둘의 음악적 교감은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그간 조금씩 준비해왔던 둘의 찬불가가 대중들 앞에 오르는 무대가 마련된다. 이진구 · 유현주 씨가 기획한 ‘무소의 뿔’ 공연이 9월 26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전석 무료로 이진구 씨가 그간 작곡한 찬불가 13곡 등을 성악가 유현주, 수안 스님, 정묵 스님, 그레이스 신 등이 공연한다. 여기에 권성혜 씨가 반주자로 지선사, 연화사, 금륜사, 다워 합창단 등이 참여하고, 드럼에 송지훈, 베이스 기타 박성환, 바이올린 박세영, 색소폰 송하철 등이 무대에 오르며 한마음선원 합창단, 무용가 정인정 등이 특별출연한다.

그렇다면 이진구 씨는 왜 찬불가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꿈꾸게 된 것일까? “음악을 하는 불자로서 찬불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불교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불자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기회도 없으니 이런

작곡가와 성악가로 만나
15년간 찬불가 대중화 매진
불교음악의 현대화 시도하는
9월 26일 찬불 공연 기획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무소의 뿔 공연은 저의 오랜 고민들이 낳은 결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백미는 범패를 현대화한 ‘산사의 새벽종소리’로 정묵 스님(조계사 기도법사)과 유현주 씨가 듀엣으로 공연해 눈길을 끈다. 유 씨는 이번 공연이 찬불가의 새로운 시도이며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만남이라고 강조한다. “어렸을 적부터 어린이 법회를 다니면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고 찬불가를 부르며 음악가의 꿈을 키운 제가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산사의 새벽종소리’는 우리 고유의 범패를 현대화해 대중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너무나 뜻 깊은 곡이 될 거 같습니다.”

‘무소의 뿔’ 공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진구 씨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며 진구리 밴드를 결성해 무대를 펼쳐왔다. 그는 지난해 미국의 원각사와 불광선원 등에서 ‘무소의 뿔’이라는 이름으로 첫 공연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이번 공연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 씨는 11월 2일 미국 뉴욕 원각사에서 범패 등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깨달은 자, 싯다르타’ 공연의 쇼케이스도 가질 예정이다.

“무소의 뿔은 공연 이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무소의 뿔’이라는 팀을 이루어 매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뮤지컬 ‘깨달은 자, 싯다르타’ 또한 미국에서 올해 쇼케이스를 갖고 내년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진구 씨가 활동하고 있는 진구리 밴드는 지난해 뉴욕 원각사 등에서 ‘무소의 뿔’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앞으로 이 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찬불공연, 뮤지컬 등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날마다 만 번 씩 염불해 만일에 이르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㊲ 건봉사 ㊦





한국 전쟁 때 건봉사는 대부분 폐허가 되었지만 불이문만은 유일하게 화를 면했다.

허균이 건봉사에서 지은 시에서 시적 반전이자 허균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대목은 “어찌 마음 씻고 참선 배워 인간의 노병사를 마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다. 허망한 명리를 따라 다니지 말고 불성을 찾아 자유로운 길을 가라는 건봉사 스님의 충고를 듣는 대목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의 전개를 보면 허균은 스님의 충고를 슬쩍 비켜간다. 그는 조선 전기의 경직된 도학주의 문학에서 보다 개성적이고 자유분방한 문학을 지향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건봉사라는 공간은 ‘인격의 완성’이라 할 성불을 추구하는 공간이기보다는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내일이면 떠나야 할 현실을 들춰냈다. 그 시의 말미는 다음과 같다.

초창산문역이별(招 山門亦離別)
명조불서척공장(明朝拂曙擲笻杖)
하인갱방원통경(何人更訪圓通境)
은해연공월일편(銀海連空月一片)

서글퍼라 산문에서도 이별해야 하니
내일 아침 새벽을 떨치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리.
누가 다시 원통의 지역을 찾으랴
하늘에 잇닿은 은빛 바다에
한 조각달이 떠있네.

역사속의 절, 오늘의 깨침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건봉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건봉사에서 선비들이 시심을 열고 느끼는 것이 바로 역사속의 건봉사이고 건봉사 속의 깨달음인 것이다. 간성 현감으로 좌천되어 왔던 택당 이식 역시 누구보다 건봉사를 자주 찾았고 거기서 마음을 다스렸다.

봉석총림구(鳳石叢林舊)
봉방겁화여(蜂房劫火餘)
삼년동군리(三年東郡吏)
일탑반승거(一榻半僧居)
설창초분간(雪漲初分磵)
송량정만주(松凉正滿廚)
귀참호계반(歸 虎溪畔)
위이갱주저(爲爾更躊躇)

총림의 옛 터 건봉사 바윗돌
병화를 이겨낸 벌집 같은 승방
동쪽 벼슬 생활 3년에
반은 승려인 듯 한자리 얻어 살았네.
눈 녹아 산골 물 불어나기 시작하고
서늘한 솔 기운 공양간에 가득한데
조랑말타고 호계를 건너려 하다
그대로 인해 다시 주저 되는구나.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식은 간성에 현감으로 있는 동안 건봉사를 자주 찾았다. 그래서 ‘반은 승려인 듯’ 하다고 술회할 정도다. 그러므로 건봉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지방관리 생활에서 오는 객고를 절의 풍경 속에서 풀었을 것이다.

이식은 시의 전반부에 건봉사의 역사성을 드러내며 거기에 자신의 역사를 오버랩 시켰다. 자신은 간성 현감으로 삼년을 지내면서 반은 승려인 듯 절에서 방 한 칸 얻어 자주 찾아 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역사인 것이다.

시의 후반부는 눈이 녹아 산골 물이 불어나는 모습과 공양 간에 서늘한 솔 기운이 가득하다는 설명으로 시작되는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처지가 변하여 이제 지방관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호계는 중국 여산 동림사에 있는 계곡의 이름이다. 여산은 장시성(江西省) 구강시(九江市)에 남쪽에 있다. 1996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등재한 명소다. 여산에 동림사가 있는데 혜원(334~416) 스님이 서기 386년경에 창건했다. 혜원 스님은 30년 이상을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수행에 몰두 했다. 손님을 배웅할 때도 절 앞의 호계라는 계곡을 건너지 않았다. 그래서 여산의 호계는 수행에 몰두하는 수행자와 세속과 의 경계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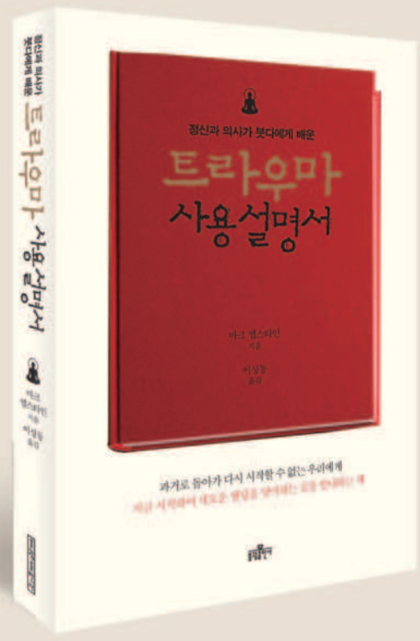
염불소리 가득한 도량

건봉사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신라 때부터 이어져 오는 만일염불결사다. 19세기를 대표하는 고문(古文)의 한 사람인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금강산 유람길에 건봉사에 들러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만일염불회다. 그가 건봉사에 들린 것은 1811년 전후로 1802년에 결성된 만일염불회가 이어지고 있던 때였다.

유학자로서의 깊은 지식을 갖춘 선비 홍길주는 건봉사 만일염불 결사를 보고 감동을 받지만, 동참 승려가 30여명에서 절반으로 줄어 든 현실을 비꼬기도 하고 불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물론 선비의 자세를 철저히 지키면서. 그의 문집 〈현수갑고(峴首甲藁)〉 하권에 ‘건봉사만일염불회’라는 시가 있다.

일일나무아미불(一日南無阿彌佛)
이일나무아미불(二日南無阿彌佛)
일일만년도만일(日日萬念到萬日)
변화억신개응출(變化億身皆應出)
삼천삼백일미만(三千三百日未滿)
삼십승여십육칠(三十僧餘十六七)
백발체단견가사(白髮剃短肩袈裟)
당종격고성부절(撞鐘擊鼓聲不絕)
이심무불염무익(爾心無佛念無益)
이심유불불염길(爾心有佛不念吉)
아유일부논어서(我有一部論語書)
욕독삼만육천일(欲讀三萬六千日)

첫째 날도 나무아미타불
둘째 날도 나무이미타불
날마다 만 번 씩 염불하여 만일에 이르면
억의 화신이 응하여 나타난다네.
삼천삼백일도 차지 않았건만
서른 명 승려 중 남은 이는 열 예닐곱
짧게 깍은 백발에 어깨에 걸친 가사
종치고 북치는 소리 끊이지 않네.
마음속에 부처 없으면 염불해도 득이 없고
마음속에 부처 있으면
염불하지 않아도 길하다네.
나에게는 한 질의 논어가 있으니
삼만 육천일 동안 읽으리라.

붓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다!
The Trauma of Everyday Life
태어난 지 7일 만에 엄마를 잃은 아기 붓다의 가슴에 새겨진 트라우마
붓다의 구도 여정은 트라우마를 넘어 정신의 완성을 이뤄낸 과정이었다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시작하여 새로운 엔딩을 맞이하는
길을 안내하는 책
“일찍 어머니를 여읜 부처님의 아동기 트라우마와, 완전한 지혜와 자비에 이르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연결시키는 저자의 시각이 인상적이다. 40년 가까이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에 앞장서온 저자는 불교의 핵심 교리와 정신치료의 전문적 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풍부한 사례를 들며 현대인의 눈높이와 필요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이 불교와 명상, 심리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서광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치유하는 유식 읽기』, 『치유하는 불교 읽기』 저자)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 지음
이성동 옮김
18,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남산율종의 11대 조사 홍일 대사의 사유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다움’을 떠올려본다
홍일 대사 지음 | 전영숙 옮김 | 14,000원
마음 없는 시대에 참사람이 되고자 한 홍일 대사의 사유록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세월을 수행으로 생각했던 고승들의 꼿꼿한 수행을 만나다

청일전쟁, 신해혁명, 중일전쟁, 국공내전, 공산화 등 급변하는 중국 근대를 살다간 고승 19명의 삶과 수행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김영진 지음 | 18,000원
전쟁터이자 혁명의 장이었던 격변의 근대 중국 그곳에서 활약한 고승 19명의 생애와 사상
근대 중국의 고승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0 ~ 9/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3	수트라(여시아독)	범일	김영사
4	사랑이 온다(화해와 치유의 힐링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5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김영사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7	법성게 강해	김상백	운주사
8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	불광출판사
9	아함경 (전12권)	학담	한길사
10	달라이 라마 마음의 고향을 찾아	가연숙	참글세상



니르바나,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붓다의 물리학

니나 판 고르콤 지음 | 위오기 옮김
공주대학교 출판부 펴냄 | 1만5천원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들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 또 모든 정신-물질과 그 원인을 세 가지 통찰지혜에 의해 알지 못한다면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없다. 세 가지 통찰지에 의해 그것을 아는 자만이 니르바나에 이른다."

부처님께서 〈쌍윳다니까야〉 삼매의 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고통을 끊고 윤회를 종식시키는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물질에 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계정혜 삼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은 역자인 위오기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사진〉가 선정을 체험하고 물질과 마음의 궁극적 실재에 대해 깨닫고 난 후 '물질현상' 을 잘 설명하고 있는 니나 판 고르콤의 저서 〈물질현상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The Buddhist Teaching on Physical Phenomena)〉을 번역한 것으로, 아비담마 길라잡이와 해설서 및 청정도론을 참고해 보완하고 본인의 수행경험 사례를 추가하여 2013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보리수선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이며,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했던 것이다.

니르바나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질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매에 들어야 한다.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선정수행으로 해야 하는데, 불변하는 하나의 개념을 대상으로 집중해 가면 표상이 나타나고 희미한 '익힌 표상' 을 더욱 더 집중해 가면 마침내 매우 깨끗하고 밝은 '선명한 표상' 을 얻게 되고 이 표상을 더욱 더 집중해 가면 근접삼매나 본삼매에 이르게 된다. 본삼매에 들고 난 후 선정에서 나와 선정요소를 회상하면서 어떤 선정에 들었는지 확인하고 점차 더 높은 선정으로 집중해 나가면 색계선정의 정점인 사선정에 이르게 된다. 사선정 후 밝게 빛나는 마음이 만든 물질인 빛을 이용해 위빠사나를 하면 심안으로 물질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장애의 방해 없이 궁극적인 실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역자는 2004년 겨울 미얀마의 파아욱 센터에서 파아욱 사야도의 지도하에 호흡관 사마타를 통해 선정을 체험하고,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통해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는 첫 번째 통찰지혜를 얻어 모든 물질과 마음현상을 명확히 보고 한국에 돌아와 〈청정도론〉과 〈논장〉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보았던 모든 것이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물질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 있어야 윤회 끊고 니르바나에 이를 수 있어"
'궁극적 실재' 공부하면 '자아' 없음 깨닫고 니르바나에 도달

흔히 경전이라고 하면 '경장' 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논장' 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된 역자는 물질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서의 원서를 번역 출간할 뜻을 세웠다.

'불교의 심리 윤리학' 으로 번역된 아비담마 7론 중의 첫 번째 책인 〈담마상가니(법집론)〉는 실재하는 모든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집대성한 것이다. 물질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본 책(〈붓다의 물리학)〉의 출처는 이 주제를 다룬 〈담마상가니〉의 일부와 'Expositor' 로 영역된 〈담마상가니〉의 주석서인 붓다고사 스님의 〈앗타살리〉이다. 붓다고사가 지은 수행에 관한 백과사전인 〈청정도론(The Path of Purification)〉도 참고했다. 책은 독자들이 마음과 물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바른 지혜를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비담마' 에서는 삶의 모든 현상을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으로 나누어서 열거하고 분류하고 있다. '봄(眼識)' 은 정신현상이며, 눈의 문을 통해 색깔을 지각한다. 보이는 대상인 색깔은 물질현상이며, 이는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으며, 인식의 대상이 된다. 색깔이 감지되어지는 눈의 문으로 기능하는 눈의 감성 역시 물질이다. 색깔, 소리, 맛, 접촉대상 이런 감각대상인 물질들과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감성기관들도 물질들로서 대상을 인식하는 정신현상의 조건이 되며,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책은 마음과 물질이 궁극적인 실재라고 말하며, 궁극적인 진리(실재)와 관습적인 진리(개념)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관습적인 진리란 사람, 나무, 또는 동물과 같은 개념들의 세계를 말한다. 불교적 시각 밖에서 보면 관습적인 진리, 즉 개념의 세계만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진리이다. '나무' 라는 이름은 개념이며, 또 '나무' 라는 말에 대해서 형성된 생각도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변하지 않으며, 이름 붙이지 않아도 지각될 수 있다.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색깔은 항상 색깔이며 단단함은 항상 단단함인 것이다.

책에 의하면, 물질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의 기회는 두 번 주어진다. 첫 번째는 통찰지혜인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는 지혜' 에 이르면 삼매의 힘으로 마음의 창에 드러나는 물질들의 성품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확연히 알게 되는 것은 네 번째 지혜인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 의 단계에 알게 된다. 부처님이 설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물리학의 세계와 다르다. 부처님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 라기보다는 '물질의 성질' 에 관한 궁극적인 실재의 세계이다.

궁극적인 실재는 무상한 것이어서 생멸하지만, 사람과 사물이라는 개념은 생멸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궁극적 관점에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개념현상과 물질적 현상은 개념이 아니라 통찰지혜의 대상인 것이다. 팔정도를 닦는 목적은 무상, 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진 궁극적인 실재를 알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개념과 궁극적 실재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팔정도는 계발되지 않는 것이다.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러한 대상들이 경험되는 다섯 감성의 문이나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대상과 문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대상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 실재를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마음과 물질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바로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역자는 물질에 대한 공부는 물리학이나 의학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마음과 물질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아' 라는 잘못된 견해를 뿌리 뽑고 번뇌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육문 중의 하나를 통해 한 순간에 오직 하나의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불변하는 자아나 어떤 사람 또는 실체라는 견해에 덜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궁극적 실재' 를 공부하면 존재나 자아가 없다는 진리에 다가갈 수 있고, 결국 니르바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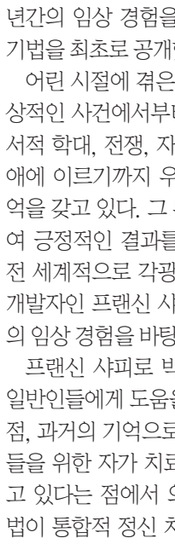
책은 독자들이 이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장의 끝에 질문을 덧붙여 놓았다. 빨리어를 병기하여 아비담마에서 설명하는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했으며 원문도 함께 실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트라우마' 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트라우마, 내가 나를 더 아프게 할 때

프랜신 샤피로 지음 | 김준기 · 배재현 · 사수연 옮김
수오서재 펴냄 | 1만6천원



인간에겐 육체적 상처와 정신적 상처가 있다. 갑작스런 사고와 재난, 성폭력, 가족의 죽음, 이별, 수치심을 느낀 경험, 심각한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 심한 좌절과 불안, 가족으로부터의 학대까지. 인간의 모든 일은 심리학에서 정신적 상처를 의미하는 '트라우마' 가 될 수 있다. 책은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마음과 뇌를 성장시키고 행복한 현재를 살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이다.

미국 정신의학회와 미 국방부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단체가 트라우마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 미국 9 · 11 테러, 태국의 쓰나미, 중국 쓰촨성 지진, 일본 고베 지진 등 세계의 재난 때마다 생존자, 사망자 가족, 구호 요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파견된 EMDR(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안구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치료법이다. EMDR 창시자이자 개발자인 프랜신 샤피로 박사가 2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집대성한 자가 치유 기법을 최초로 공개했다.

어린 시절에 겪은 굴욕, 실패, 거절, 다툼 같은 일상적인 사건에서부터 교통사고, 신체적 · 성적 · 정서적 학대, 전쟁, 자연재해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과거 기억을 갖고 있다. 그 부정적인 과거 기억을 재처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치료법 EMDR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EMDR 창시자이자 개발자인 프랜신 샤피로 박사는 자신의 2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이다.

프랜신 샤피로 박사가 최초로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집대성한 책이라는 점,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불행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자가 치료 기법을 쉽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 EMDR 치료법이 통합적 정신 치료 기법으로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아마존닷컴 심리학 분야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백여 개의 독자 서평이 이 책의 유용성과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자가 치유(Self-Help Techniques)' 를 내세운 책인 만큼 프랜신 샤피로 박사는 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기 내면 탐색 기법, 자가 치유 기법, 안정화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되는 과거의 기억을 찾아내는 '시금석 기억 찾기' 방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관계 문제 등 삶에 찾아온 고통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안전 · 평온 지대 기법, 호흡 전환 기법, 버터플라이 허그, 만화 캐릭터 기법, 역류 기법 등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미래 템플릿 기법, 고통스러운 순간에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라이트스트림 기법, 나선형 기법, 일상의 고통을 스스로 관찰하기 위한 주관적 고통지수, TICES 기록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 권의 책에 담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줬다 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자신을 괴롭혀온 부정적인 믿음, 감정, 행동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공황발작, 발표불안,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부갈등, 대인관계 문제, 만성통증, 수행공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열등감, 지나친 애도반응,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등 100여 명의 케이스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 문제의 기저에는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방임이나 애착형성 문제, 창피 당한 경험에서부터 자연재해, 전쟁, 성폭력과 같은 거친 기억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과거 기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정신 건강의 문제들과 그 문제 뒤에 숨겨진 과거의 기억들. 수많은 사례를 읽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친구에 대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프랜신 샤피로 박사의 〈트라우마, 내가 나를 더 아프게 할 때〉는 결국 무의식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감정에 대해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갖고 행복한 현재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EMDR 치료법은 무엇인가?

EMDR은 혁신적인 정신치료의 한 방법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7만 명 이상의 EMDR 전문가들이 임상과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환자가 치료를 경험하고 효과를 보았다. 1987년, 프랜신 샤피로 박사는 공원을 산책하던 중 자신을 괴롭혔던 복잡한 생각들과 걱정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프랜신 샤피로 박사는 눈을 움직이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기억과 연관된 고통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안구운동이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발전시켜 EMDR 치료법을 개발했다. EMDR의 등장은 학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조상, 부모님의 묘(墓)를 이장 없이
음기(陰氣)의 수맥파(水脈波)에서
양기(陽氣)의 명당(明堂)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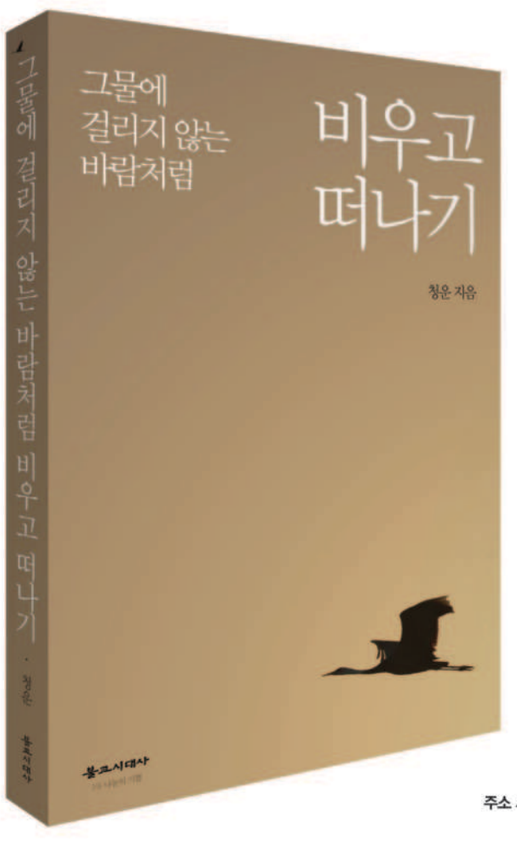
조상의 수맥파가 자손의 혈맥으로 흘러 냉기(저체온)을 유발시켜 각종 암, 신경통 등 성인병질환과 우울증, 정신분열, 빙의, 언어장애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유전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집안에도 액운의 악기가 퍼져 가정불화, 사업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묘를 이장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한국풍수지리사상 처음으로 청운스님만의
수맥파 전환 비법으로 조상묘의 수맥파에서 나오는 가시가 자손의 인체에 감지된 음기를 현장에서 직접 양기로 바꾸어 확인해 드립니다. 지하의 어두운 곳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조상님을 음지에서 대광명의 명당으로 모셔 효도하시고 대대손손 자손창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납골당에 모신 조상님의 수맥파의 음기도
현장에서 100% 양기로 직접 확인하여 드립니다.

선재사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80-1번지
전화 031-595-8767~8

껍데기 속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청운스님이 들려주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몸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求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煩惱를 끊으려는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삼계三界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원력 때문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비우고 떠나기

청운 지음 | 반양장본 | 277쪽 | 값 15,000원 불교시대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전화 02-730-2500 팩스 02-723-5961 e-mail kyoon1003@hanmail.net
1% 나눔의 기쁨

참된 인간 조건… 계율 철저히 지켜라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홍일대사 지음 | 전영숙 옮김 | 불광 펴냄 | 1만4천원



홍일 대사는 속명으로 이숙동이다. 1880년 중국 천주 하동에서 거상 이소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회화, 음악, 시 등 거의 모든 예술 분야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성장했다. 이뿐 아니라 신분에 따른 차별과 인간에 대한 불신에 반기를 들고 사회에 만연한 부도덕을 비판하며 사회변혁 운동에도 참여했다.

1916년 여름,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단식은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단식을 하는 20일 동안 스님의 생활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던 이숙동은 1918년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단 몇 벌의 옷만 챙겨 항주 호포사에서 량오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다.

홍일 대사는 여러 사찰서 초청 받아 강연할 때마다 계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청중을 독려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의복은 늘 소박하고 가지런해야 하며, 신문을 읽지 말고, 항상 노동을 해야 하며, 손해 보는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

홍일 대사는 말년에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접대받는 승려'로 살고 있음을 참회했다. 이런저런 강연을 하고 다니며 곳곳마다 사람들의 예배와 공양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명예를 탐하고 제 몸만 돌보는 꼴이라는 반성이었다. 연회 참석을 줄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열다섯 살 소년에게 받고 문득 깨달아 일체의 연회 참석 요청을 거부할 줄 아는 홍일 대사. 그는 진정 자기 수행에 철저했던 위대한 고승 대덕이었다.

서른아홉 비교적 늦은 나이에 출가해 원적할 때까지 철저히 계율에 맞춰 삶을 보낸 고승 홍일 스님은 근대 중국서 허운, 태허, 인광 대사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4대 고승

홍일 스님, 중국 4대 고승 중 한 분
평생 계율에 맞춰 철저히 수행
스님이 뽑은 101가지 명구도 소개

으로 꼽히지만 한국서 홍일 대사를 다룬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 책은 홍일 대사가 직접 써내려간 글을 가려 엮은 것이다. 이 책에서 스님은 탁월한 예술가의 삶을 버리고 출가를 단행한 이유, 계율과 염불을 중시하는 불교관, 인생을 단련하고 죽음 앞에 당당해지는 방법 등을 전한다. 중국서 남산 율종의 11대 조사로 받들고 있는 홍일 대사.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대사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잊고 사는 '인간의 조건'을 떠올려보게 만든다. 이 책에는 불교 이야기 외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특히 1부에 수록한 단식일지는 홍일 대사가 출가하기 2년 전 신경쇠약증을 치료하기 위해 했던 20일간의 단식 체험이 담겨 있다. 단식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 단식 중 보이는 증상, 단식 중에 마음 다스리는 방법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단식을 계획 중이거나 단식을 하고 있는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각 부를 마칠 때마다 명구들을 수록했다. 이는 1941년 홍일 대사가 서선사서 산문을 닫고 은거했을 당시 불경이나 고승 대덕이 남긴 말씀 가운데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정리해둔 것이다.

모두 101가지 명구가 실려 있는데, 구절 하나하나가 인생에 대한 날카로우면서도 따스한 통찰을 담고 있어 삶의 지침으로 삼기에 모자람이 없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홍일 대사의 즉문즉설

홍일 대사는 강연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고서 그에 성실히 답해 청중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그 수많은 문답 속에는 홍일 대사가 바라본 불교의 고갱이가 담겨 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문: 인생에서 부딪히는 역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답: 고통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업장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청정한 서원이 더 견고해집니다.

문: 정토종은 죽음을 맞이할 때나 필요한 것인지요?
답: 정토종은 대비심으로 중생 구제의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토종을 닦는 자라면 응당 중생을 대신해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문: 임종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가족을 불러 이것저것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미련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승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생에 방해가 됩니다.

문: 계는 일단 받고 보는 것이 좋습니까?
답: 수계를 하고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계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무겁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역량에 따라 수지할 수 있는 만큼의 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 어떻게 자신을 존중합니까?
답: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민속과 불교 시선으로 윤달 속 우리네 삶 분석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복짓기

구미래 지음 |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2천원



윤달은 나라마다 해석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근신하며 액막이를 하는 등 부정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

반면 우리 선조들은 윤달을 오히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덤으로 받은 시간' 속에서 인간을 감시하는 신들도 휴가를 떠난다고 생각했다. 즉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일상의 금기서 해방되는 시간으로 여겼다.

사실 윤달을 지낸 옛사람들의 생활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 윤달의 길흉 양면성, 윤달에 부각되는 신(神)의 존재 유무와 성격 등에 따라 윤달에 대한 해석과 그 시간을 보내는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렇듯 복잡한 윤달민속의 양상을 분석해 관념적으로 변화해 온 윤달 속의 삶을 바라본다.

특히 '나와 남을 위해 복덕을 쌓는 시간'으로 승화시킨 불교적 관점서의 윤달에 주목한다. 불확실한 시간에 대한 불안감을 선조들은 '기도하면 감응하는 달'로 여기면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덕을 지어 왔음을 피력한다.

이런 윤달의 대표적 불교의례로 꼽히는 예수재와 삼사순례 및 가사불사를 비롯해 윤달이면 사찰을 찾아 불공을 올리고 영가천도를 하는 풍습이 오랜 역사에 걸쳐 전승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승되는 '윤달 복 짓기' 풍습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선조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달'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비일상의 시간'이라는 의미서 확장돼 평소 부족한 마음공부에 힘쓰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으로 옮기는 나날이 되도록 이끌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윤달 불교민속을 주목한다. '생전예수재' '삼사순례' '가사불사'가 그것이다. 윤달의 대표적 불교의례인 이것들은 복을 구하는 기도서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며 보다 큰 공덕을 실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살아 있을 때 자신의 극락왕생을 위한 불공을 드리는 '생전예수재'는 죽음을 내다보면서 소홀했던 자기수행을 점검하고 선행을 발원하는 의례이다. 또 세 곳의 절을 밟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사순례'는 삼보를 찾아가는 길이 곧 자신의 참마음을 찾아가는 자리요, 부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위한 발원과 성찰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옷을 스님에게 보시하는 '가사불사'는 삼보를 섬기며 불교를 꽃피워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공덕이 큰 보시다.

예수재를 비롯한 윤달의 민속은 재가신도들로 하여금 청정한 신심으로 보시를 행하게 하여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도록 한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공양이야말로 선업 중의 선업이며, 작은 악행이라도 과보를 피할 수 없듯 작은 선업이라도 그 과보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 내용의 주가 되는 세 불교민속에 대한 저자의 시선은 '기복적' 측면에 있지 않다. "복은 '비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평소 부족했던 마음공부에 힘쓰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기복적 불공서 벗어나 마음을 닦는 데 뜻을 두고, 삼보와 이웃을 향한 공덕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일깨운다.

이 책은 결국 공덕을 쌓는 일에 있어 특별한 시공간이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공덕을 쌓기에 힘든 중생에게 '윤달'이라는 종교적 시간 동안만이라도 참된 불자의 마음가짐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김주일 기자

지친 마음 치유하는 처방전
시화집(詩畵集)이 아닌 시화집(詩花集)

석성우 · 허충순 시화집

성우 스님 · 허충순 지음 | 월간 다도 펴냄/1만7천원



"흔적서린 첩첩한 소줄당/국화 한송이 쪽빛에 젖어있네/저녁을 맞듯이 바라보니/묵은 마룻결따라 행다시연 옛 모습 모시버선 걸음걸이 저미며 감도네/훗날 바람물결로 다시오면/그날도 이대로만/그날도 이대로만"(충렬사에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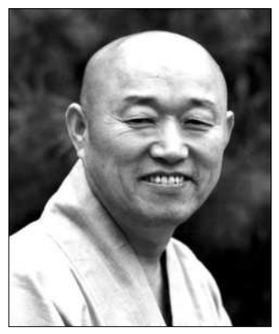
불교TV회장 성우 스님〈오른쪽 사진〉이 오랜만에 선시집을 펴냈다. 월간 〈다도〉에 연재한 것을 묶은 것이다. 성우 스님은 율사이지만 문학가로도 유명하다. 197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산란〉이 당선돼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스님은 시와 차, 태교에 관해 여러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 글들은 주로 수행 생활서 얻은 사유의 낱알들을 튼실하게 엮어 힘든 이들에게 영혼을 위로해주고 밝히는 역할을 했다.

이번 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특이하게도 꽃꽂이 작품을 성우 스님의 시에 곁들인 것이다.

마음에 위안을 주는 따뜻한 시와 차를 마실 때 찻자리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찻자리꽃을 함께 엮었다고 지은이들은 말한다. 찻자리꽃은 서양 꽃꽂이와는 조금 다른, 동양의 선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예술의 또 다른 영역이다.

이번 책에 실린 것들은 한국꽃꽂이협회 청향회 허충순 회장의 작품들이다. 허 회장은 엉겅퀴, 우산나물, 범부채, 코스모스, 상사화 등 다양한 화재를 써서 조아하면서도 단아한 찻자리 분위기를 연출했다.

93수의 아름다운 시와 찻자리꽃이 수록돼 있어 이 책은 시화집(詩畵集)이 아닌 시화집(詩花集)인 셈이다. 시에 그림이 아닌 꽃이 곁들어져 있다는 의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로 테마를 나눠 놓은 이



책은 총 93수의 성우 스님 선시에 허충순 회장의 찻자리꽃이 나란히 배열돼 있다. 책을 펼쳐보면 왼쪽은 회 회장의 꽃꽂이 작품이, 오른쪽에는 성우 스님의 시가 배치돼 읽기에도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다.

흔히 시화집(詩畵集)이라고 하면 시와 그림이 함께 들어간 책을 뜻한다. 하지만 〈석성우 · 허충순 시화집(詩花集)〉은 제목이 말해주듯 시와 꽃이 어우러졌다.

꽃에 입문한 지 50년, 거의 평생을 꽃예술과 함께 한 허충순 작가는 도자기와 같은 기물과 꽃을 매치시켜 예술로 승화

93수 아름다운 선시 수록
찻자리꽃 사진도 함께 실어

시켰다. 다도에서 찻자리꽃이라 부르는 이 장르는 대개 차를 마시며 곁에 두고 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작가는 독립된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가치를 부여했다.

이 책에는 실제로 이런 작품들로 가득하다. 사계절로 챕터를 나눠 라일락, 맥문동, 엉겅퀴, 산호, 아네모네, 국화, 왕풀 등 자연 그대로 담은 꽃과 오브제를 기물과 함께 책에 담아냈다. 개개의 찻자리꽃과 어울리는 시는 석성우 시인과 허충순 작가가 쓴 것들을 선별해 묶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를 꽃과 함께 읽다보면 어느새 일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잊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소반 위의 작약꽃, 허충순 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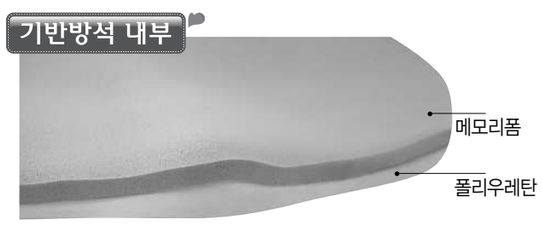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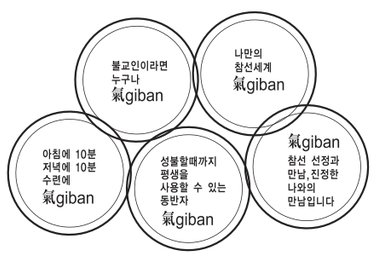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명평화’ 화두… 죽음 초연 자연인 그려

불교로 읽는 古典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김기철
도예가

1904년 미국에서 태어난 헬렌 니어링은 문학을 좋아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재원으로 그의 어머니는 화가이며 음악 애호가인 아버지는 뉴욕의 성공한 사업가였다. 한때 크리슈나무르티의 연인이기도 했으나 스물네 살에 스코트 니어링을 만나 삶의 방향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다. 스코트는 당시 마흔다섯이 었는데 마치 나병환자처럼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으며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상태였다고 그녀는 전한다.

헬렌 니어링은 영혼의 동반자 스코트 니어링과 53년을 함께 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8년 뒤(그녀의 나이 87세) 이 책을 펴내면서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밝혔다.

“이 책은 스코트의 전기나 자서전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헌사이다. 나는 원칙에 충실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지적인 변혁가의 면모와 아울러 꾸밈없고 친절하고 현명한 남편으로서 스코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싶다.”

반세기 동안 땅에 뿌리박으며 조화로운 삶을 이룩한 이들 부부의 모습에서 필자는 참으로 많은 감명을 전해 받으며 생의 전범(典範)으로 삼고 있다. 그는 평생을 통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백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살고 자의로 삶을 마감하는 순간 ‘좋다’ 라는 희열을 내뿜으며 지극히 편안하게 고승의 열반처럼 의연하고도 담담한 모습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상류층의 아들로 태어난 스코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동정을 보였으며 대학교수가 되어서는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광산에서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엄청난 급여 차이와 생활조건의 차이를 발견하고는 이에 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20대였던 1905년 그는 자유주의적 개혁에 관한 공개강연을 했는데 이것이 사회봉사의 시작이었다. 공개적으로 기존제도와 권력을 비판함으로써 근무하던 대학에서 쫓겨나게 된다.

1932년 가을 버몬트 남쪽의 황량한 지대를 찾아다니다 오래된 나무집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 농사일과 산림관리, 집짓기, 돌담 쌓기 등 육체노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펜실베니아 할아버지 농장에서 일찍이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예를 들면 단풍나무 수액을 뽑아 오랜 시간 끓여 시럽을 만드는 양이 연간 수천리터가 되었고, 〈사탕단풍(The Maple of Sugar)〉이란 책을 펴냈는데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남아있다.

스코트는 버몬트에서 일하는 동안 〈통합된 세계〉 〈세계권력 소련〉 〈민주주의로는 충분치 않다〉 〈제국의 비극〉 〈전쟁이냐 평화냐〉 〈우리시대의 혁명〉과 같은 사회과학 안내서들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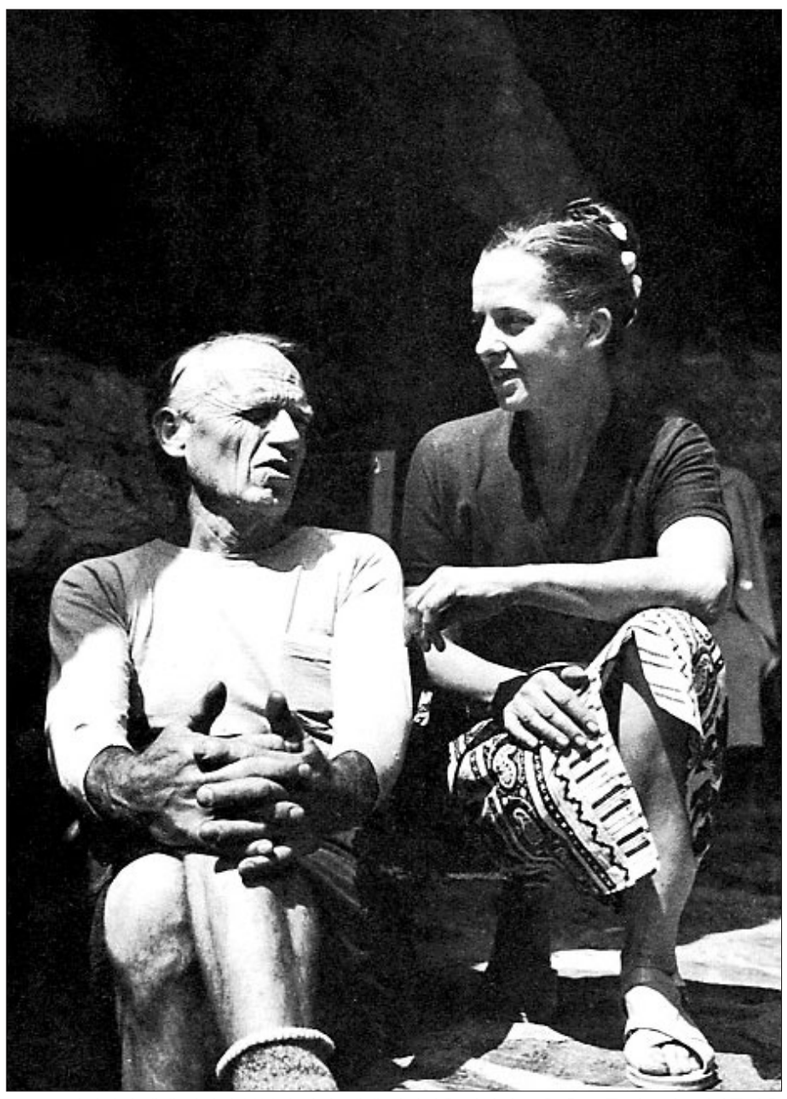
그는 텔레비전은 이류의 사람들이 공급하는 맛없는 음식과 같다고 하며 위험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한 최면상태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겐 혐오스런 물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나쁜 미끼로 보았다. 또 개인을 현실과 갈라서게 하고 무의식속에 해로운 상을 불러 넣으며, 의식을 둔하게 만들고 환각상태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스코트는 번잡한 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자연 속에서 노동하고 명상하고 책 읽고 글쓰고 음악 듣고 연극하는 것을 최선의 삶으로 여겼다.

20년 동안 정붙여 산 버몬트가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상류층의 별장과 숙박지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이 계곡 속으로 밀고 들어오자 캐나다 쪽 메인 주의 목조집이 딸린 곳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으며 집과 돌담을 쌓았다. 마지막 지은 그 집에 〈헬렌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소로(Thoreau)의 〈월든(Worlden)〉에서 이 구절을 좋아했다.

“사람이 자기 집을 스스로 짓는 일은 새가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 때와 똑같은 합목적성이 어느 정도 있다. 사람이 제 손으로 살집을 짓고 자신과 식구들을 위해 간소하면서도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생산한다면, 새가 그런 일을 하면서 언제나 노래 부르듯이, 사람도 시심이 깊어지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아! 우리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찌르레기나 뻐꾸기처럼 산다.”

스코트는 어떤 사람인가? 그 인물됨에 대해 교회 목사인 스테픈 트리치맨은 이렇게 말했다.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의 사진. 헬렌 니어링은 남편이 죽은 후 그를 회고하는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펴냈다. 이 책에는 자연으로 돌아가 단순한 삶을 살면서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한 스코트의 삶과 사상이 잘 녹아있다.

헬렌 니어링, 남편 스코트의 삶 회고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정리
자연과 함께 노동하며 살아간 스코트
육식 등 인간이 가진 모든 탐욕 비판
“모든 것은 변한다” 조화로운 삶 강조
수행자적 삶 실천… ‘반면교사’ 해야

‘스코트 니어링은 나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대차에 대한 매우 잘못된 생각, 곧 젊은이들만이 기쁨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의 불합리함을 깨는 능력을 상징처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카잘스, 피카소, 듀브아와 마찬가지로 스코트 니어링은 나이, 인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원기왕성하고, 깨어 있으며 두려움이 없는 모든 이들의 지도자입니다. 그이는 우리 삶에 필요한 철학과 훈련을 구체화했으며, 나아가 스스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내게 냉정하면서도 애정이 있고, 사람을 흔들어 놓으며 계시하는 정의의 예언자요, 상식의 본보기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썩어가도록 쓰지 않고 있는 두뇌의 70퍼센트를 쓰는 용기와, 전혀 쓰지 않는 양심의 98퍼센트를 실천하는 용기의 본보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새 시대에, 말 많은 바보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고, 손가락은 대중들의 잼 항아리에 넣고서 양심은 꽁꽁 묶어 놓은 채 대중을 속이는 분별없는 지도자들이 들끓는 이때에, 스코트 니어링 덕택에 우리는 좀 더 용기 있게 오늘의 이 세상과 마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스코트 니어링만큼 내 명료하지 못한 마음과 겉으로 들어난 양심, 나의 도덕적 오만과 혼란스런 정치관을 날카롭게 다듬는데 모범이 된 교사를 알지 못하며 그에게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이는 내게 있는 인본주의 성격과 사회주의 성격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이의 백 번째 생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과연 그의 일생은 평화주의자, 인권옹호자, 생태주의자, 귀농운동가, 미래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 경제학자, 국제사회주의자이며 좌파 정치인이었다. 그의 사회 개혁운동은 전쟁을 없애는 것, 가난을 몰아내는 것, 그리고 모든 형태의 살육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채식주의를 주장하고 몸소 실천하였다. 우선 윤리적으로 생명체에 대한 견해가 확고했다. ‘모든 동물들은 우리 형제들이다. 동물들은 열등하지 않으며, 형태가 다른 자아들이다. 인간 역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가운데 하나일 뿐, 이런 창조물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 고 주장한다.

그는 계속해서 ‘인간은 셀 수없이 많은 숲을 파괴하고, 고기를 얻으려고 지나치게 많은 목초지를 만들고, 드넓은 땅을 황폐화시키고 말았다. 또한 온갖 새와 물고기와 짐승을 죽였다. 그렇다고 볼 때 인간은 단연코 으뜸가는 ‘해충’ 이라고 단정한다. 나는 여기에서 ‘하늘과 땅은 나와 같은 뿌리(天地與我同根)’ 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는 생명존중사상과 몸소 자비를 실천하는 거룩한 수행자와 다름없었다.

어느 날 그는 또 종교나 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우주, 모든 것이 그 나름으로 구현되어 있는 우주를 믿는다. 나는 또한 우주는 순간순간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언제나 변화하는 전체로서 그것이 있음을 믿는다.”

‘모든 것은 인과율의 흔들리지 않는 법칙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과 이어져있다’ 는 인연 생기(生起)의 도리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어떤 것도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 없다’ 는 불생불멸에 대한 그의 언급을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런 삶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모든 것은 덧없으며 사라진다’ 고 역설한다. ‘진실보다 고귀한 신앙은 없다’ 고 나무판에 새긴 벽걸이는 아마도 그의 좌우명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리고 그는 ‘가장 위대한 성공은 일하는 것’ 이라는 신념과 더불어 ‘쓸모 있고 조화로우며, 해를 끼치지 않고 뭔가를 생산하는 당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고 충고한다. 거기에 정신적으로는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과 원만하고 균형잡힌 인격체를 완성하는 삶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복(五福)중에 마지막은 고종명(考終命)이요 우리 속담에도 죽을 때 잘 죽는 게 최상의 복이라고 하듯 누구나 죽을 때 자신은 물론 주위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눈을 감기를 원한다.

스코트의 최후는 자의에 의한 끝맺음이었다. 100세가 되고 3주 후에 메인에 있는 ‘헬렌의 집’ 에서 일부러 음식을 끊음으로써 삶을 마감했다. 참으로 평화롭고 조용히 위엄을 잃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을 쓰고 보니 수십 년 전, 저녁 무렵 수덕사를 참배하고 내려오는데 비구니 스님들의 선방이 저만큼 바라다 보였다. 사위가 어둑하게 장막이 내리는 듯한 마루 위에 여러분의 노스님들이 마치 백학이 날개를 접고 내려와 쉬는 것처럼 앉아서 독경도하고 서성대는 모습이 마치 천상세계처럼 고결하게 느껴졌다. 그분들은 열반에 들 때 다 타고난 재가 날아가듯 피안의 세계로 가볍게 건너 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겐 결코 고통이나 험악한 죽음의 그림자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받았는지 모른다.

우리 모두에겐 죽음이라는 가장 궁극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우주만큼이나 불가사의하고 해결할 수 없는 정체불명한 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와 덮쳐버릴지 모른다. 제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하늘을 찌를 듯 기세를 떨친들 죽음을 비켜갈 수는 없다.

나같이 맹물처럼 살아오면서, 배고프면 밥 먹고, 잠이 오면 잠이나 자는 단순한 사고의 틀을 가진 맹문이가 죽음에 대해 천착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막상 코앞에 닥쳐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맹랑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로 멍청이도, 하물며 미물까지도 다 아는 죽음이건만 알려고 파고들면 들수록 수천수만 갈래의 미로가 얽혀져 한도 끝도 없이 뻗어나가 그놈의 정체가 어떻게 돼먹은 것인지 손을 들 수밖에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결국 결론은 죽어봐야 알겠는데 그것 또한 깜깜절벽이다. 어쩔 수없이 스코트의 견해로 그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변화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사람의 몸뚱이는 생명력이 빠져나가면서 먼지로 바뀌지만, 다른 모습을 띤 삶이 그 생명력을 받아 이어진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변화는 우리 몸으로 보아서는 끝이지만, 같은 생명력이 더 높은 단계에 접어드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되살아남 또는 이어짐을 믿는다. 우리 삶은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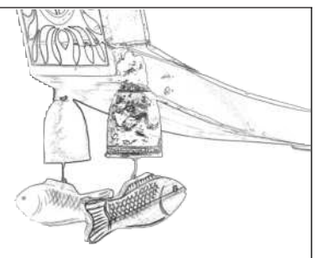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 내어 오욕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 광박엄정불퇴전륜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9909-0602

달마도 치고 사주도 보고 각종 재도 할 수 있는 스님입니다 좋은 인연처를 구합니다

010-8786-6148

가난한 비구승입니다 거처할 포교당이나 창고 등 무료로 임대하여 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이천시내)
010-9109-8360

비구니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844-6444
051)721-0449

산새가 울고 물 좋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수정사에서 암투병 환자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을 모십니다

제사한 사항은
031)333-50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 정 사

스님이 없는 절이나 포교당 원합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리며 공양주도 구해 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어려운 절만)
010-4882-3838

노후에 부처마을 불지사에 편안히 모십니다 노부부 10분정도, 소정의 보시금으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031)332-9001
070-4128-7011
010-8736-7301
동선 합장

수련생 수시모집

- 건강,의료치료기공사(3-6개월)
- 손빛 氣치료
010-4611-1296
- (역학강좌) 운기명리학,점술 등
- 역학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무료제공
010-8477-7952
다음카페 : 일묘심 약사선원
네이버카페 : 묘심기공
1호선 지하철 신설동역 11번출구 직진 100m

최 면 공 부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715
주1~2회, 총10주 이상, 100만원
*내용 : 의학최면 중점
공부중 정신, 에너지, 영혼,
신마음, 의식, 무의식, 업,
귀신, 자아, 기 신령 등
여러 이름을 이해하게 됨
010-9609-1919
덕인 합장

지리산 청학동 산신봉 줄기 도량에 빈집 독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참선 수행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무보시 수행 공부하실
보살님을 함께 찾습니다)
055)883-7385
011-759-0183

천도재 20만원, 제사 20만원, 49재(77재) 140만원 천도 정성껏 올려 드립니다

010-8412-7623
문수암

도심사찰 전세를 구합니다

010-2168-2800

불심이 깊은 독신자 60대 주지 보살을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관혼상례, 화환, 케이크 유능한 지점장

시,군,구 지역별 차등 등록
비. 5년계약, 성실한 분
등본,이력서,사진부착,종교
기입,신분증,건강진단서
070-8849-3011
사회적상부상조 협업

천둥 · 번개 · 벼락

- 천둥번개를 부리는 무서운 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도법 : 사주비술 : 현공풍수 : 천신기 전수

역학을 가르치는 학원은 많은데 왜? 도사는 나오지 않는가 누구한테 배우던
금전과 시간낭비 스승을 만나는 것 쉽지 않다.
신명같이 운명 예측가능하면 초염력역학 풍수 도사가 되느니라.

- 개강 : 2014년 9월 27일(토)(일) 주간, 야간반 13시 ~ 20시까지
- 종합개인지도. 수시모집 (4개월 과정)
- (1) 사주, 작명, 래정장자비술 (2) 현공풍수, 수맥, 명당찾는법
  (3) 빙의, 영가천도, 기받는법, 치유법 (4) 전통활기법(통증, 난치병완쾌)

장소 : 서울 전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혜민병원 뒷길
약 400m 사거리 국민은행 가기전 24편의점 뒷집 대흥사
대흥사 : 02)447-3789. 010-6350-3789
* 도사나 도인이 되실 분, 배우러 오시라요.

인연을 찾습니다

고향 충청도, 나이 43세
현재 서울에서 잔치국수
체인점 운영. 월수입 500-700
같이 알뜰히 인생을
설계할 여성분 연락주세요
010-5766-1191

비구니 기도스님 부처님 공부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010-3579-6444
010-2844-6444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천일기도 노전자리 구함

목소리 굵음, 신심나는 목소리
사찰이 원할 시 천수경
기초교리 강의
재미있게 해드림
50대 중반,
조계종 사찰을 원합니다
010-2606-1299

영가천도 본인이 직접 시켜 보세요

기도 기간 중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말하게 함으로써 천도를
확실히 시키는 특이한
기도요령을 지도해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내지
7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사람에 따라 기도 그 기간이 짧아
질수도 길어 질수도 있습니다
010-4508-5087
대각(大脚)스님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함께 할 종도를 모십니다

부처님의 원융평등 사상과 관음보살의 자비 보시 정신을
실천하는 모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분담금 없는 종단 * 등록비 없는 종단
* 금전과 감투싸움 없는 종단
우리 정겹게 수행하며 봉사하는 종도로 함께 합시다
불교통합조계종 054)439-4600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377번지

박사학위(명예) 미국령 꼭 필요하신 분

055)384-203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바다의 땅 통영! 아름다운 편백
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조계종 사
찰에서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실
50대 공양주 한분 모십니다
보시는 월 130만원, 개인방사,
2박3일 휴가,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
055)645-5324
(24시간 상담)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재단법인 법보선원
- 법 명 : 이사장 송담 정은(正隱),
  상임이사 환산(還山), 이사 동해(東海),
  상봉(常逢), 서봉(瑞峯), 성문(性文),
  성조(性照), 인법(印法), 일상(一常)
  (이사명은 가나다 순),
  감사 인봉(仁峯) 총 10인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염로 43
  (구, 주안동 16-113)

상기 재단법인 법보선원과 이사회 임원 일동은
2014년 9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귀 종단의 탈종을 공고함.

불기 2558년 9월 15일

재단법인 법보선원 이사회 임원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법륜사
- 주 지 : 중현(김영태)
- 주 소 : 부산 동구 수정4동 1182-7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원사
- 주 지 : 법진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1-18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이제부터 기도는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동안 살아 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7일마다 한번씩 20분 정도 쉽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 넣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는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 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서, 이 기도로서 업장과 전생의 빚이 모두 소멸되어 자신의 운명과 운세가 좋게 바뀌는 것을 경험 하실 것입니다.

전화 주시면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시와 사랑스러운 말을 즐기고 자비한 마 음으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염려하면 이러 한 인연이
진실이 된다"

- 제법집요경 -

사 찰 안 내

사찰부지 및 토굴
- 위치 : 양산 물금 (국도접)
- 총부지 : 자연녹지 10,000평
- **낙농강변 전망 최고 위치**
- 가액 : 6억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양도세. 취 · 등록세 전문상담(무료)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오래된 사찰
- 위치 : 부산 사상구 • 대지 : 239평
- 건물 : 법당 (목조) 21평
- 요사채(대형) 98평
- 주차장 51평
- 최고 위치 (뒤에는 산)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경주시 폭포 사찰 양도
- 단청법당36㎡. 삼성각29㎡
- 요사채90㎡.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 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 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경전 봉안 불사중

010-3403-3355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재개발 예정지
- 삼존불,신중,칠성탱화,산신,용왕
- 기도하기 좋고, 상담하기 좋은곳
-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성도 좋음
- 대지 : 약 85㎡
- 가액 : 4천 5백만원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커배로 153번길18
051)861-223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부지 : 60평 ◎ 종교용지 : 1300평
◎ 법당 : 30평 ◎ 법당: 30평 외 전각 3채
◎ 요사 : 60평 ◎ 차량진입, 배산임수
◎ 양도가 : 10억원 ◎ 양도가 : 15억 5천만원

※ 40년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10-4586-4525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원주 도심 부근 좋은 위치 사찰
* 목조단청법당 80㎡ 목조요사 150㎡ 산신각등
* 토지850㎡ 주자창과 교통 편리한 남향사찰
* 금액 : 6억 3천만(융자있음). 실인수가 4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 3층 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 1, 주방 1, 화장실 1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 2,700만원(답사후 절충 가능)

011-309-3535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제주도 서귀포시 사찰임대

- 사찰내로 연중 한라산물 흐르는 명당사찰
- 큰법당, 산신각, 요사채, 주차장 완비 • 시설비 없음
- 보증금:3000만원, 년세:300만원 (월세전환시 월30만원)

010-3111-1275
064)724-4690
추기 : 사찰넷 사진 참조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 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 15억

010-8625-122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 건물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전망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

010-6288-9067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1층 건물 100평
- 시설일체 특
- 주차시설완비, 온천수 펑펑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가액: 전세 3,000만원 월세 30만원

010-3574-3303 스님
010-3577-9947 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 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채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232-4853 / 010-8518-55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마을지나 산을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량
- 법당 30평, 요사40평, 대지 465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1-503-051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부근
- 대지 175평, 법당11평
- 친견실, 요사채, 방2, 거실, 주방, 텃밭, 아미타도량
- 가액 : 9,275만원(시설비 포함) 8,750만원(시설비 제외)

010-8503-5769
055)833-57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평수 183평, 인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건강상 부득이 급양도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시장
- 4층 건물 중 3층, 37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탱화
- 법당, 상담실, 공양간, 방 1개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집기 시설및 비품 1200만원

010-4112-0108

포교원(급)안내

- 강원도 동해시 시청 옆상가 2층 독채
- 상가평수 50평(등기평수보다 넓음)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66만원 (부가세 관리비 포함)
- 시설비 : 1천5백만원
- 법당, 삼성각, 공양간 완비 방2개, 화장실 겸 샤워장 2개
- 즉시법회 가능합니다 (소승 건강상 급 양도)

010-9018-6656

(신축)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 (방2, 화장실2, 컨 1동)
- 가액 : 융자 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공원내 1등 바위 밑
- 법당 (대웅전), 요사채, 창고
- 문화재 - 조선중기 석불 1점, 집샘 1점, 주차장에서 5분거리(바로 법회 가능)
- 점유부지 400평
- 전망최고, 대형 우물샘 있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644-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1640평
- 건물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전망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12억 5천만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평시장 근처
- 약 100평, 삼존불 연등 300개, 방4개 법당용 부엌 공양간 따로 있음
- 창고 LED 등 일체 유동인구 많음
- 현재 비구니가 운영하고 있음
- 몸만 오셔도 됨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80만 시설비 3,500만

010-8754-67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신대구 고속, 상동 IC에서7분, 남해고속, 동김해 IC에서 15분거리)
- 종교용지외 930평, 임야 2870평, 법당 목조 22평(단청완벽)
- 요사채 2동, 종각, 산신각, 용왕각등 100평
- 법종시설, 법당, 요사채,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 포함
- 복지시설, 선원, 연수원, 기타개발최적지
- 가액: 12억

010-3847-4705

포교원 안내

- 위치 : 청주시내 중심권 포교원
- 3층건물 3층 80평, 심야전기, 차고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 집기시설 최상, 음향시설, 몸만오시면 됨
- 법당, 아파트식 요사채, 방5개, 사무실, 주지실
- 가액 : 1)보증금 3,000만원 월 25만 2)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집기 1,500만원

010-9546-2255
꼭 하실분만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부근
- 3층 건물 중 2층 42평
- 삼존불(동불), 아미타, 약사, 소불100여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500만 월 60만 시설비 1,500만

010-2656-7775

포교원안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1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비품대 200만원

011-9308-08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법당 : 40평, 총평수 80평
- 방 : 2개, 창고 : 2 개, 종무실, 최고의 시설, 시장옆, 전망
- 좋은 요충지. 오래된 포교원
- 보증금 3,000만원 / 월150만원 시설비 조금. 전화주세요

핸드폰 010-6722-22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573-4438

사찰(전원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마산합포구 자동차 전용도로옆 창원 마산시내 5-7분거리
- 대지 160평, 건평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주차장완비
- 1층 근린생활시설용도, 방 5, 욕실 1, 화장실 5, 철학최적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가액 : 3억4천(융자1억8천포함) 가액 절충

010-8008-79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도심속의 암자(급)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 이내
- 문중부지 (대지 200평, 건물 40평)
- 시설비+건물 7천원(지상권만)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사찰(터) 안내

- 위치 : 남해군 고현면
- 면적 : 임야 4450평 중 전 200평 불사가능
- 조건 : 마을과 인접하고 큰저수지가 있어 전망 좋음
- 도로와 접해 있음
- 가액 : 6500만원(사정상급양도)
- 가족 묘지터로도 적합

010-4512-0596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현재사찰운영중 모든조건 완비
- 서울상계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최상
- 3층건물 중 2층 전체 40평
- 주불 아미,관음,지장,소불,인등설치
- 법당, 친견실, 스님방, 공양실, 실내화장실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비품 및 시설비 1천7백만원. 약간 절충

010-2553-882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 대지 64평, 법당 10평
- 삼존불, 지장, 관음, 산신탱화 소통가능
- 가액 : 6천 5백 조정가능
- 조용하고 아담한절 운영하실분

010-4040-3588
054)742-8780

포교원선원

-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강남역 인접 역삼역 3분
- 4층 중 4층. 15평
- 보증금 1000만원, 월세7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5백만원(절충가능)

010-9019-381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 대지 : 302평
- 법당 20평, 주방 10평
- 요사채 2동, 창고 1동 목욕실, 화장실 1동
- 교통편리하고 주차공간 많음 텃밭도 있음
- 가액 : 3억 2천만원

011-882-2897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진천IC에서 6~7분
- 부지 : 556평(실사용 1000여평)
- 요사채 40평 운영중
- 특징 : 혁신도시 5분, 산과 강, 넓은 도로, 아늑한 곳
- 금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2723-3638

암자 임대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면소재지
-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공양간 요사채, 방 5개
- 가액 : 1년에 3,000,000만원 (삼백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54)475-2108

사찰(터) 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공리 982-3번지
- 땅 320평, 옆쪽 계곡 있음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여 먼 앞쪽에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토성 작업 완성되었습니다.
- 땅까지 포장도로 되있음. 대형차 진입가능
- 정남향 좌청룡 우백호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 사찰 전원 주택 팬션 적합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 가액 : 7천만원

010-3544-977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평수 33평, 방 2칸
- 법당 20평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3738-6393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전원주택(한옥)

- 땅을 알고 터를 잡으시고
- 좋은환경,좋은이웃 찾아오세요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목조, 기와집
- 황토방, 정자(이민관계로 양도)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3703-58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 경찰서 뒤
- 3층 35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인등, 소불
- 시설환경 위치 특A급(완벽함)
-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함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비품 및 시설비 1천만원

010-4624-0260

사찰(전원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마산합포구 자동차 전용도로옆 창원 마산시내 5-7분거리
- 대지 160평, 건평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주차장완비
- 1층 근린생활시설용도, 방5, 욕실1, 화장실5, 철학최적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가액 : 3억4천(융자1억8천포함) 가액 절충

010-8008-7913

사 찰 안 내

- 대지 2,103㎡
- 건평(법당,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거제시 중심부
- 답사후 절충 요함

010-7582-0098

명당터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신축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전망 뒤에는 산, 땅모양 좋음
- 귀농 귀촌 하실분, 사찰 암자, 휴양지 적지 아주좋은 명당터, 조경석, 잔듸마당
- 총면적 1025평, 대지285평
- 신축 건평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미터 암반약수
- 속리산 물줄기가 건물 (주변) 앞,뒤로 물줄기 흐름
- 가액: 3억8천만원

010-5458-2258

생각사용 설명서

전현수 박사 (정신과 전문의)

〈2〉 알아차리는 훈련하기

좋은생각 나쁜생각 다 내려놓고 생각을 없애라

알아차림이 생각을 다스리는 첫걸음

생각을 다스리려면 첫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난 뒤 현재 집중을 놓치면 카드에 기록을 해서 가져오라고 한다. 그때 현재 일어난 일에 집중하다가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라고 하는데 만일 첫 생각을 놓치면 표시를 하라고 한다. 첫 생각을 놓치면 과거 습성대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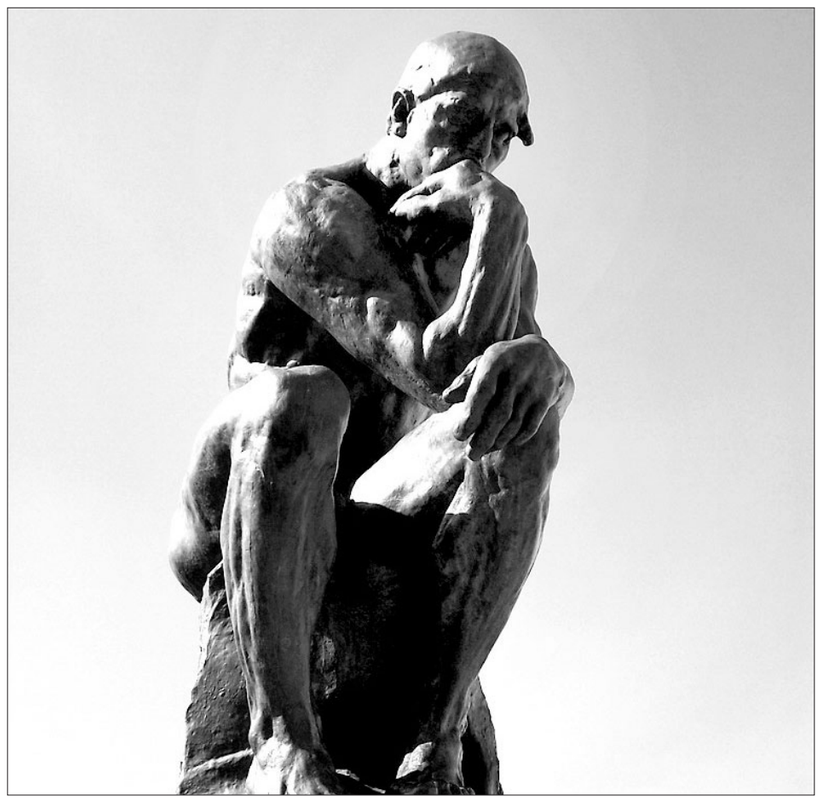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놓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생각이라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꼭 필요한 생각이 나면 기록을 해놓으면 된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하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을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가 없다. 그것이 문제다. 좋은 생각은 나쁜 생각보다는 좋지만 생각하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니다.

가끔 환자들에게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생각이 없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나쁘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뭐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그런데 이때 생각이 없는 것은 멍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꼭 말해준다. 대부분의 환자가 나쁜 생각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이 생각이 없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는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좋은 생각은 내용이 좋긴 하나 생각이 붙어 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 나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보호된 것이다. 그러니 생각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생각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나쁜 생각이 나면 정지하고 좋은 생각이 나도 정지해야 한다. 어떠한 생각이 나도 정지하고 현재 하는 일로 돌아온다. 그러면 생각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떤 생각도 말을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항상 환자나 일반 사람들은 질문을 한다. 아니 항변을 한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지난 10년 가까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도 살아가는데 아무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일은 일대로 별 무리 없이 하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별로 없다. 생각을 안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할 일을 하고 있다.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어떤 환자가 살도 빼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한 수련단체에서 하는, 자연 속에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등산을 한다든지 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곳을 며칠 다녀왔다. 그 단체에서도 하루 종일 호흡을 관찰하면서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고는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평소 생각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환자가 그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잘 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감으로 하게 된다' 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은 달라도 내가 평소 하는 말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렇다. 사실 생각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데 장애를 준다. 생각은 사실 모르니까 하는 것이다. 알면 아는 대로 하면 되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모르는 것을 생각할 때 바른 길을 찾아서 가기도 하지만 잘못 될 수도 있다. 모르는 것이 생각을 해서 풀릴 수 있는 것이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모르는 것이 그렇지 않은 성격일

첫 생각 알아차리는 훈련은
생각 다스리기 첫 단계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놓는 것이 중요
생각 없는 것은 멍한 것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때 잘못 된 길로 가기 쉽다.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확인이 곤란한 내용을 생각할 때는 제대로 답을 얻을 수 없고 도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하고는 바로 "여보, 이게 뭐에요." 하고 물어본 경우와 그것에 대해 며칠을 생각하고 난 뒤에 물어본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바로 물어본 경우에는 남편의 대답을 통해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은 대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며칠을 혼자 생각하다 보면 혼자 한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꼬이게 되고 남편에게 확인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남편의 대답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해도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모를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뭐지요?' 하고 묻는데 신기하게도 이때 거의 모든 환자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환자의 대답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모르는 것을 생각하다가 잘못 되는 수가 많다. 모르는 것을 해결할 때 모르는 사안에 따라 모르는 것을 아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 방법이 보여야 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다 그런 경우다. 뭘 모를 때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안 보일 때는 생각을 멈추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도 생각을 다스리는 한 방법이다. 모를 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다보면 모르는 것이 풀릴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일 수도 있다.

생각이 앞서 가면 그만큼 걱정거리 늘어난다

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를 받는 동안 집에서는 무슨 생각이 나든 내려놓고, 자신이 할 일이나 현재에 집중을 하고 가급적이면 치료 시간에 와서 이야기 하라고 한다. 치료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든지 자유롭게 하게 한다. 가능하면 과거를 치료 시간에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힘든 과거가 생각날 때 그것에 끄달려 가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고 과거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수술 날짜가 잡히면 수술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수술을 받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서 한 발짝이라도 앞서면 앞선 만큼 괴로움이 생긴다. 수술실에 누워 있을 때까지는 수술에 대한 생각을 안해야 한다. 수술실에서도 그 순간만 알아차려야 한다.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갈 때는 그 나라가 어떤지 알 수 없다. 그 나라에 가서 순간순간 구경하면 된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여행하듯 이 미래를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과거로 채운다.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나에게 상담치료를 받는 30대 남자가 어디서 봤다면서 이런 말을 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면 미래가 다친다."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면 미래에 손상이 간다는 뜻일 것이다. 생각을 통해 과거와 미래로 간다. 생각이 줄어들면 현재에 있게 된다. 그래서 순간순간 살아간다. 틱낫한 스님은 '나는 고향에 있다(I am home)' 라는 말을 자주 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고향에 편안히 있다는 것이다. 과거, 미래로 가서 괴롭고 방황하지 않고 현재에 편안하게 있다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이 항상 강조하는 마음챙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과거와 미래에 있을 수 없다. 과거와 미래의 산물인 화나 불안, 걱정이나 들뜸이나 설렘 없이 현재에 담담히 있다. 생각을 다스려 생각이 줄게 되면 괴로움 없이 순리대로 그 순간순간 과거와 미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 없이 살게 된다.

생각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하루 종일 떠오른 생각의 숫자를 적는 것이 있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다. 이 방법을 쓰기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현재 뭘 하든지 알아차리는 것이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한다. 그래서 첫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거의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시작한다. 이 방법을 쓰면 생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생각을 줄이는데 아주 유용하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을 표시한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한 생각의 횟수를 매일매일 적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생각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어떤 상황에서 떠오르는지 알게 된다. 생각의 속성을 알게 된다. 생각이 나는 것을 적으면서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 번뇌도 같이 적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하면 마음 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때 번뇌는 크게 세 가지로, 욕심과 화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다.

생각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이 내 눈앞에 없으면 머릿속에 담지 않는 것이 있다.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내 눈앞에 없는 사람을 머릿속에 담지 않으면 생각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내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 어떤 주부는 군대에 간 아들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다. 어떤 남자환자는 동창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가려고 하니 동창들이 문상을 올 것이고 그러면 동창을 마주칠 텐데 동창들이 요즘 뭐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나 하고 고민을 했다. 하지만 문상을 갔는데 동창을 한명도 못 만나 괜히 헛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생각하다가 지치면 사랑을 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애착이 생기거나 걱정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만날 때 좋은 마음으로 만날 수 없다. 내 눈앞에 없는 사람은 머릿속에 담지 않고 내 눈앞에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호흡을 맞추어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 불가피하게 약을 써야할 경우가 있다. 약을 써야 하는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노력을 하기에 힘들 정도로 생각이 많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이다. 이미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생각을 다스리는 건전한 노력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어떤 환자는 약을 먹으면 생각이 나긴 나지만 둔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약을 먹지 않을 때는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이 둔하게 느껴지면서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했다. 약은 우리의 정신 작용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해 생각이 적게 나게 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덜 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약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전현수 박사의 〈생각사용 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1011호

TEL 02)2004-8213(直)
FAX 02)737-0696
(원고접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포교원 선원
- 위치 : 부산 연제구 진남로 610-1 (2층)
- 법당 완벽(순금 개금 삼존불)
- 살림도구 완벽
- 43평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답사후 절충

010-3832-4170
010-3895-1021(청하)

포교원 선원
- 위치 : 부산시 동구 수정동 (버스정류장) 전철역 1분거리
- 상가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무량수전, 지장전 등)
- 공양간, 방 3개 등 생활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10-6413-0463

사찰안내
- 위치 : 부상기장 사찰 최고자리
- 대지 200평, 건물 150평,
- 은행 2억 5천 안고 3억 5천 인수
- 급 안내

(주)한길부동산중개 연제구/서보호 이세하
010-3808-4499
051)925-380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삼존불)
- 법당,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뜰밤나무도 있음
- 기도하실 스님이나 보살님 대환영
- 가액 : 8,500만원(조절)

010-3321-683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2동
- 3층건물 3층 30평
- 아담한 법당 포교도량으로 최적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포교도량으로 최적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7740-6004

포교원 선원
- 위치 : 광주 운암동 위치 최고 큰도로변
- 3층 건물중 2층 32평(맞은편 중형마트)
- 법당,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탱화 불단원목, 연등, 영가등
- 인등전기, LED전체리모델링 인터버 냉난방기 2대 방3개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 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천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62)513-039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1,500만원

010-4680-9322

암자안내
- 경남 하동군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아름다운 수행도량임
- 법당 1칸, 요사 1칸, 부지 220평
- 스님이 갑작스런 자리변동으로 부득이 본 암자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 법당 정남향 뒤 계곡이 있으며 참선과 수행 기도는 최적지입니다
- 가액: 1억원(조정가능), 임대도 가능

010-7702-6296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광주 20분거리 무안 - 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 건축물 목조 대웅전 29평, 요사채20평(방4,욕실1)
- 공양간 10평 방1, 해우소3평반 3칸
- 지하수 130미터 물수량 100톤 일급수
- CC카메라 9대시설, 사찰경내지 계곡물 흐름 잔듸조경 완벽
- 사찰 진입도로 현 3m에서 2차선으로 진입 확정
- 가액 : 3억8천

010-9338-011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두 반송2동
- 평수 : 50평, 4층건물중 4층...정원이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또는 1,0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별장지 및 사찰터 최적지
-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 백두대간 예천테라피 자연 치유공원내
- 별장,사찰 최적지
- 사철계곡에 물이흐르는 자연경관 최적지(도로접)
- 답 1800평(평당가 33만원)
- 답 1900평(평당가 18만원) (당가 절충가능,주인직접)

010-2608-727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 2층건물 중 층, 약50평
- 옥상별도사용가능
- 즉시법회가능함
- 청동불4자석가모니불, 청동불3자반 지장보살 청동불3자반 관세음보살
- 보증금300만원 월33만원
- 시설비2천만원, 시설물일체양도

010-8528-9093

절터자리로 좋은 곳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사계절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음
- 토성작업이 완성된곳
- 마당까지 대형차진입
- 3천여평 외
- 가액 4억(현세에 맞지않음)

010-6253-3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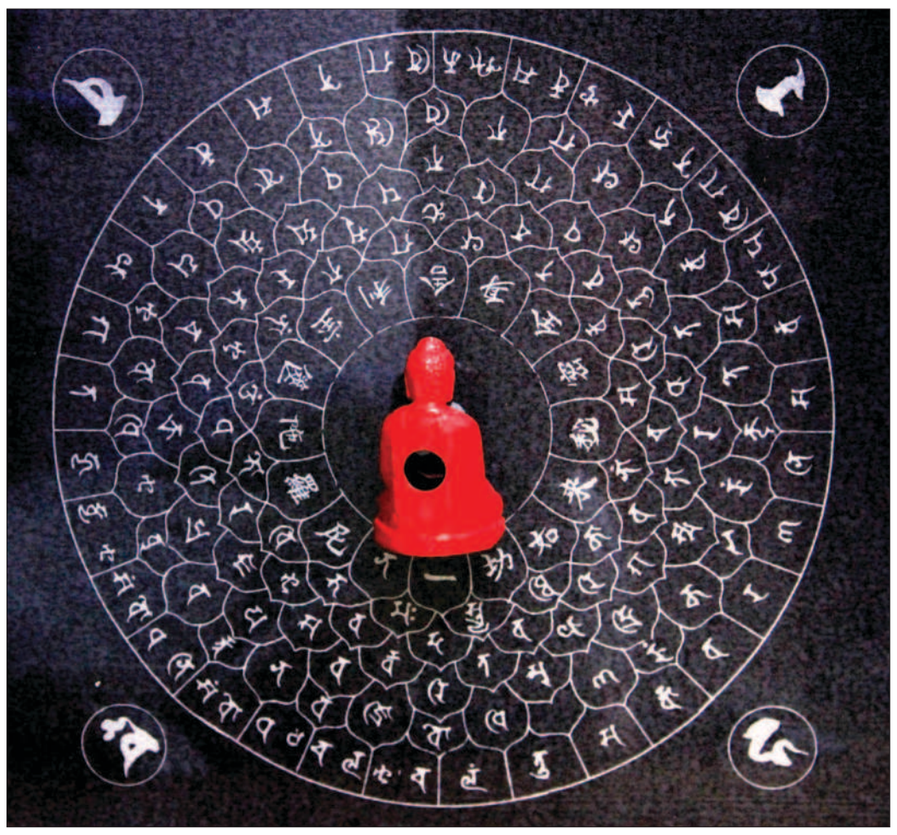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90평. 2층 공양간, 3층 법당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56-1099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갤러리 색즉시공



寤寐不忘(오매불망)

도라는 것은
정성으로써 들어가며 침묵으로써 지키며 부드러움으로써 쓰나니
정성스럽기를 어리석은 듯이 하며 침묵하기를 어눌한 듯이 하며
유순하기를 못난 듯이 하나니, 대저 이와 같이 하면
가히 더불어 몸을 잊을 수 있음이요.
가히 더불어 나를 잊을 수 있으며
가히 더불어 잊었다 하는 것도 잊을 수 있다.
도에 드는 자는 그침을 알고
도를 지키는 자는 삼가함을 알고
도를 쓰는 자는 미묘함을 아나니
능히 미묘함을 알면 혜광(慧光)이 나고
능히 삼가함을 알면 성지(聖智)가 온전하고
능히 그침을 알면 태정(泰定)이 편안하리니,
태정이 편안하면 성지가 온전하고
성지가 온전하면 혜광이 나고
혜광이 나면 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리니
이를 이름 하여 참으로 잊음이라한다.
오직 잘 잊음으로서만이 잊지 아니 할 수 있고
잊는 가운데 가히 잊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음이라
잊을 수 없는 그것이 곧 지극한 도니라.
지극한 도는 결코 잊을 수 없음이라.
자나 깨나 잊지 말라.

미술 · 글 선진 스님

좋은 사람과 지내면 좋은 사람이 된다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친구 모친 보며 어머니상 그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어머니의 마음이 불성임을 알려준 두 분

나의 은사님이 "당신은 신사임당과 같은 어머니야."라고 하시면서 훌륭한 어머니가 되라고 격려해주셨다면, 나의 오랜 친구 은선의 어머니는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하신 분이다.

은선이는 지금 이대 작곡과 교수로 있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때 혜화동에 있는 그녀의 집에 가끔 놀러 가면 그녀의 어머니가 찻상을 직접 들고 오셔서는 무릎을 꿇은 채 딸의 친구들에게 차를 손수 따라주셨다. 성치 않은 우리 딸을 찾아주어 고맙다는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 같다.

언제 가도 한 결같이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당신 딸의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이를 낳으면 저런 엄마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은선의 어머니 모습에서 덕행을 갖춘 신사임당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싶다.

세 살 때부터 혼자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소아마비를 앓은 딸을 위해 일하는 아이를 학교에 딸려 보내서 딸을 공부시킨 은선의 어머니는 국산 피아노가 생산되지 않을 때 딸을 위해서 해외에서 피아노를 공수해올 만큼 헌신적인 사랑을 보이셨다. 어머니의 헌신에 답례라도 하듯 페달을 밟을 수 없어 피아노를 칠 수 없었는데도 은선이는 이대 작곡과에 입학해서 이대 음대 사상 첫 장애인 입학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교수까지 되었다.

은선이가 텔레비전 다큐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친구 대표로 출연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여원을 열었을 때 사군자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사군자반을 개설해 함께 그림을 배웠다. 혼자 힘으로 2층을 올라올 수 없어서 업혀서 2층에 올라와 그림을 배우던 친구의 열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녀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은선이 어머니는 '어머니' 라는 존재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한번은 친구 집에 갔을 때, 은선이가 지금까지 나한테 선물하나 못했다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농지기를 여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서 모시 한 필을 내놓으며 같이 해 입자고 했다. 이 기회에 옛날 어머니는 모시옷 손질을 어떻게 손질 했는가 물어보니 한꺼번에 손질해서 입고 한꺼번에 세탁을 해서 보관했다고 전해준다. 나도 오십이 넘어 손이 많이 가는 모시옷을 입기는 하지만 은선 어머니가 주신 모시 옷감을 바로 해 입지 않았다.

그러다가 반기문씨가 유엔총장이 되었을 때 텔레비전에서 그의 부인을 보고는 "저분도 남편 못지않게 큰 어머니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마침 조계종 포교원에서 정전 60주년 기념으로 유엔본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은선 어머니가 주신 겨자색으로 물들인 모시로 한복을 지어 지인들 편에 보냈다. 신사임당과도 같았던 친구의 어머니가 주신 옷감을 세계적으로 큰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분에게 드릴 수 있어서 기뻤다. 치수는 텔레비전에 비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어림잡아 지어달라고 옷을 만드는 이에게 부탁했으니 웬만하면 맞았을 것이다.

나에게 여성성을 일깨워준 또 한 분이 있으니, 원불교 교무님으로 계신 분이다. 일본에서 열리는 차 문화 세미나에 갔다가 교무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종을 사서 선물해드린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

교무님께선 내가 가정 법회를 이십 년 동안 지속해온 것을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하셨네요." 하시면서 칭찬, 격려해주셨던 분이다.

일흔에 가까운 교무님은 지금도 "나의 정체성은 첫째 여성성, 둘째 봉사자, 셋째 교화자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여성성을 강조하고 계신 분이다.

세미나를 끝내고 종교지를 순례를 할 때도 교무님은 동참자들을 눈여겨보시곤 "동정 하나 제대로 못 달고 머리 하나 제대로 묶지 못한다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차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 이전에 여자로서 예의를 갖추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교무님이 말씀하신 여성성이란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 말씨를 포함한 여성의 몸가짐을 살리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보통 알뜰한 분이 아니어서 누가 옷감을 주면 "이건 승복처럼 입으면 좋겠다." 하시곤 내게 보내오신다. 당신은 거친 밥, 해진 옷을 입어도 괜찮다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도들 위주로 살며 금생에 깨친다는 것은 욕심이고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에 공을 들이지요." 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사람을 키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평소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에겐 무조건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다. 꽃꽂이, 다도, 북이나 가야금, 요가 등을 배우게 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발전시키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았다.

여여원을 운영할 때 원불교 교당을 모델 삼아 인테리어도 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배운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무님과 함께 교당이나 교도집을 다녀 보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청정했다. 내가 선방 분위기에 맞게 놓여 있는 회색 방석을 마음에 들어 하자 부산에서 방석 값을 준비해 보낼 만큼 자상하게 보살펴 주셨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늘 정중히 하셨고, 누가 되었든 상대방을 자신보다 항상 상석에 앉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보내는 철저한 배려와 신의를 배웠다. 그분에게는 세상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은 물론 보이지 않는 사람도 배려하는 무한한 사랑이 있었다.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어떤 것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즐거이 받아들여 해결하는 것을 배웠으니, 수순중생을 배운 것이다. 정말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친 교무님이 아니었나 싶다.

돈씀씀이 말씀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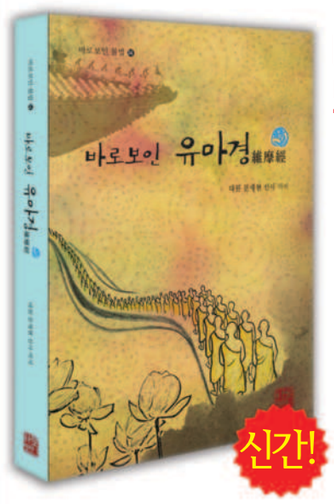
옛 사람은 알았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는 우리 속담이 있고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몽골 속담도 있다.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하라는 말이 있듯이, 말 한 마디로 백만금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가 하면, 말을 할수록 본전 잃고 빚쟁이가 되는 겨우도 있다. 오늘의 사람들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성공하고 말로 실패하는 말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나의 말 씀씀이를 되돌아보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내 말(言)은 과연 얼마짜리인가. 말의 중요성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핵심이다. 오륙년 전에 추석을 지내고 낙산사 홍련암에 갔다가 묵던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방 한가운데서 간밤에 함께 묵었던 보살님 한 분이 입속으로 뭔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자세히 들으니 '나쁜 말 가위로 똑 잘라 주세요.'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 말로 짓는 죄가 너무 많으니, 이번 백일기도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대신 '나쁜 말 가위로 똑 잘라 주세요.' 를 주문으로 외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백일기도 염불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양반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극단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어도", "절대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등의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극단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을 온화하게 하고 대답을 쉽게 하지 않는다. 말끝마다 맞장구를 심하게 치지 않고 표정이 온화하고 눈매가 부드럽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이 아름답고 평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여원 원장〉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67권째 저서 출간!



바로보인 유마경
신간!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행 스님

중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세계를 굴릴 수가 없어요

왜 마음 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인지요

문)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바르게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마음 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정신이 없으면 무효예요. 육신이 무효예요. 송장이 된단 말입니다. 정신과 그 자기 마음, 이렇게 해서 총동원해서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언제나 빼놓고 자기 마음, 자기가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는 폭이 되죠, 자기가 알기를.

본래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영화배우들이 감독에 의해서 모든 거를 소임을 맡아 가지고 영화 탈렌트가 돼야 되는데, 감독은 쑥 빼 버리고 자기 자유껏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자체에 정신세계의 참자기가 있고 지금 물질세계의 현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아니게끔 같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그거를 납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죠. 정신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앞으로 점점 살기가 점점 급박해져요.

지금 모든 게 과학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해도, 로케트가 올라가고 컴퓨터가 이렇게 저렇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간다 이러면 그냥 나온 대로 이게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하지만 내가 마음먹는 대로 비행기가 움죽거린다면 그건 첨단의 일이에요. 이 공부가 그러한 공부예요. 자기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중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중세계를 굴릴 수가 없죠. 중세계가 요렇게 이 컵이라면 아니, 이 중세계가 버스라면은 버스 속에 다 타고 여러분이 다녀도 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죠? 그 버스 안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유 권리가.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정신계에 집중을 안 하고 모른다면은 물질계에도 발전이 못 돼요.

그리고 과학이다 이러는 것도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테두리가 있어서 요거는 요렇고 요건 요렇고, 즉 말하자면은 과학이라는 테두리에 덮여 있는 뚜껑이 덮여 있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러니까 글로 써 놓는 거는 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의 뚜껑을 파헤쳐야 진짜 과학이 나올 수 있어요. 자유, 자유권의 과학이요. 이 모두를 여러분이, 지금 한창 자라가는 젊은 세대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은, 앞으로 드문드문 그런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나온다면은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전에 내가 한 스무 살 가까이 왔을 때 그, 접시 비행기가 뜨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난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접시 비행기는 자유권을 가진 그 마음으로써 그대로 움죽거리는구나 하는 거를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를 넘어볼 수도 없고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댁의 집을 내다보는 거나, 저 우주 세계를 내다보는 거나 똑 같아요. 맞먹어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이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안의 눈을 갖는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뭐, 이 사물의 모든 거를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말을 하는 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남의 속을 아는 거, 어디서 온 거, 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신족통, 이 모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그 가운데서는, 바로 오신통 가운데서는 누진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거기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이라는 게 이 진리이니까요. 이 진리를 벗어나야 진리를 굴리죠.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천차만별의, 모두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방에는 금이 모이는 데지 넝마나 무쇠나 모이는 데가 아니죠? 또 무쇠전에 금이 갈 리 없죠. 넝마전에 금이 갈 리 없고 깡통 공장에 금이 갈 리 없고. 사람 사는 것도 그래요. 모두 차원에 따라서 노동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 공무원들, 또 기사들,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이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차원대로 모두 살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가 같이 모이지 말라 그래도 같이 모여요.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죠. 누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스스로서 모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더러 가르치지 않아도 금반지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져가시겠어요? 금방으로 가져가죠? 그거 보세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그 물질을 봐서, 이게 어느 차원인가 봐서 아주 차원대로 그냥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 생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모르고야…. 그래 사대성인들이 다 말씀하셨죠. 모두가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이랬거든요. 너부터 모른다면 이 우주의 섭류를 다 모르느니라. 네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류를 알며 상대성 원리를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있기 때문에 너를 먼저 알고 너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태양력을 받아서 전력으로, 갖은 각색으로 용도로 다 써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배워야 하겠죠? 알아야 하겠죠?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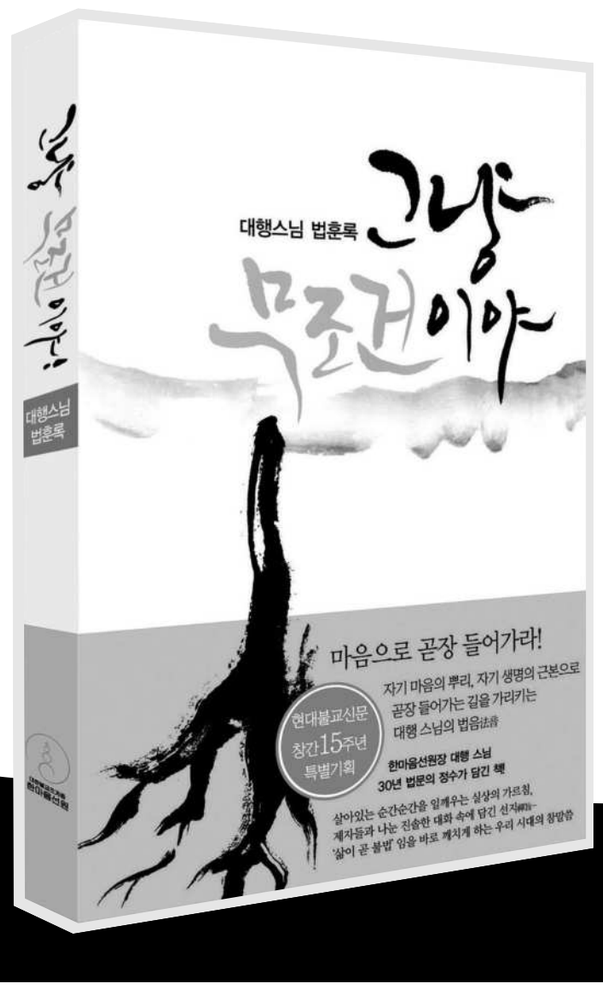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저 같은 범부가 마음을 내도 통할까요

문) 길을 가다가 소 떼가 트럭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아프지 않게 몸 벗고 인도환생 하라고 마음을 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범부가 그런 마음을 내도 그게 통할 수 있을까요?

답) 그러니깐 '나는 중생이 돼서 몰라.' 이렇게만 하고 주저앉아 있질 말고 나는 더하고 덜함도 없이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고 닥치는 대로 할 것이고 닥치는 대로 걸을 것이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투철하다면 지나가다가 남들도 건질 수 있고 지나가다 그 불쌍한 사람 있으면 관해 주면 그냥 그 사람 괜찮아질 거고. 그런데 나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몰라서 저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내버려두는 수가 있거든요. 내버려둬도 그 길을 터득을 하게끔 내버려두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사람이 털털이로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는 거지 그게 내버려두는 것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공용을 하시라 이겁니다. 공용으로 공식을 하시라. 우리가 전부 사는 게 일체 만물만생이 다 공생이 아닙니까? 아니, 작게 보시면 여러분의 몸체 속에서도 공생하고 있죠. 그리고 공체죠. 내가 봤다고 나 혼자 볼 수 있나요? 여기의 생명들이 다 뒷받침을 해 주니깐 보는 거죠. 한 군데만 무너져도 그냥 쓰러지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깐 이거는 현재의 일들이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에 지금 그렇단 얘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가는 길에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뚜벅뚜벅 갈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데 정신계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대치해 나가고, 보이는 데서는 당신네들 몸으로, 보이는 육체로 대응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걸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데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안 보이는 게 문젭니다. 세균 하나가 악성이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주둔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대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 하게끔 돼 있는 게 모두 공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둘 아니게 대치하거든요. 내쫓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마음법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기묘하고 광대무변하단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변경이 돼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립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 여러분이 때로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 놓고 이거 안된다고 팔팔팔 뛰는 거예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요. 아프다고 그러고요.

이 몸뚱이는 넉넉하게 그냥, 자기 그냥 가는 대로 가게 내버려두고 그 주인공하고만 하세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아무리 해 봐도 병만 나고 쓰러지게 되지 소용없어요. 이 주인공을 하나 붙들면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붙잡을 수가 있죠. 또 주인공을 믿고 나가는 데는 급하면은 저런, 하다못해 그 녹암주나무라든가 이런저런 저 이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향나무 한 그루만 가져도 그 이파리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파리 숫자대로 만약에 영혼이 한데 합쳐진다면, 그 이파리 하나마다 영혼이 돼서 다 합쳐 준다면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예가 있죠. 옛날얘기 책입니다. 전에 나 아주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박 부인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얘! 박 부인은 이 세상에 아주 못나디 못나게 태어나서 그냥 시집을 갔는데 장군인 남편이 붙들려서 갇혀 있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그리고 인제 너희 집으로 쳐들어온다 그런다면 너는 어떡하겠느냐?" 하고. 그래서 박 부인이 그렇게 못났는데 그냥 백마를 타고 그냥, 이건 앞뒤를 끊어 버리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그냥 남복을 하고 말을 타고 가서 그냥 포위된 남편을 꺼내 주고선 그 남편이 알까 봐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급할 때마다 그렇게 어느 장군이 와서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 장군이 이거 오기만 오면 한번 누군지 쫓아가 보겠다 그러고 있는데 또 와서 포위가 된 거를 꺼내 주고선 그냥 뭐 비호같이 달아나가거든요. 그래서는 비호같이 또 날쌔게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깐 갑옷을 벗지 못한 채 그냥 붙들린 거죠. 못났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그 방엘 안 들어 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장군이 당신이구료." 하고선 "당신은 보통 그냥 여느 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밉게 보이게 했지?" 하면서, 그 사람도 그런 장군으로서 아마 폭이 넓었던 모냥이죠. 그날부터 그 방엘 들어가니깐 그 얼굴 모양이 아주 우스웠었는데 그냥 하얗게 다 그냥 탄생을 했더래요.

또 한 번은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이 초당 그 언저리에 전부 저런 향나무를 심어서 울타리가 됐는데 급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부인이 그 녹암주나무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전부 그냥 군사를 만든 거예요. 저쪽에서는 전부 군사로 보이게끔요. 그러니까 거기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후퇴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쪽에 군사가 많으니까. 이게 부처님 법에서는 거짓이 아니지만 여러분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걸 말이라고 하나 이럴 수도 있고, 저거 할 말 없으니깐 저런 말을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허허. 그러나 그것이 실지라니까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99%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런 것이 뭔 줄 아세요? 99%. 그거는 왜냐하면 마음 하나만 까딱 하면은 100%가 된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사람이라 하면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자격이 100% 다 있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그렇게 수없이 살아오던 그 습이, 관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관습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게 탈이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자기 마음을 가지고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나 이거예요. 그까짓 거 어떻게 들어오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까짓 거 내팽개치고 하는 건데 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처음 여기 왔을 때 김장땐 데 그릇이 없어서, 내가 그 말을 가끔 해요. 그릇이 없어서 이런 다라도 하나 없거든요. 항아리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에 뭐 처음 여기 와서 신도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깐 한생각을 내기를 '야, 김치는 해 먹어야 될 텐데 다라가 없고 전부 그릇이 없잖아. 항아리도 없고. 알아서, 당신 알아서 해!' 이러곤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거 여러분이 만약에 배추 뽑아다 놓고 그런 지경이 됐으면 아등바등했을 테지만 나는 김치를 못하든 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김치를 못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습니까?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거 하니까 아, 그날 저녁에 밤에 말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청량리에서 사셨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별안간에 그냥 여길 오고 싶더라는 거죠. 별안간에 오고 싶은데 뭐 김장 때 그릇도 없을 게다 그러고 다라를 그냥 큰 거 댓 개를 사고 항아리 뭐 이런 거를 주근주근, 지금 시대엔 항아리 왜 잘 쓰지 않잖아요? 그 집도 그냥 항아리 다섯 개 있는 걸 다 싣고 온 거예요, 큰 거를. 그런데다가 쌀 또 두 가마니 싣고. 그래서 밤중에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허 참! 있긴 있구먼.' 허허. 있긴 있구먼.

그래 지금 우리 저기 울산에 집을 짓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근데 신도들은 하나도 생각조차도 없겠죠. 그러니까 네가 있다면 할 거고 없다면 못할 거니깐 그거 1년이 간들 어떻고 2년이 간들 어떻고 10년이 간들 어떻고 100년이 간들 어떠냐 이겁니다. 꼭 지으라고 너의 꼬리표 붙여 놓은 게 아니잖느냐. 부처님이 계시다면 할 거고 안 계시다면 안 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네 자성불이다 이겁니다. 자성불이 있어야 모두 통하는 거지 자성불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알아서 하라.' 고 그랬죠. 우리가 돈을 쌓아 두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린 항상 털털이로 살아요. 털털이요! 털털이 아세요? 허허허. 사람이 털털이로 살면은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기의 관계는 어떤지요

문) 요즘은 제 친구의 권유로 기에 대해 공부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마음과 기의 관계는 어떤지요?

답) 이거 보세요. 기는 마음에 따라서, 그건 따라지에요, 기가. 마음의 따라지. 그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곤하고 기운이 없다. 그래서 일어날 기운도 없고 그럴 때에 '아이, 의욕이 나지 않고 왜 이렇게 기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 하고선 벌떡 일어난다면은 그냥 의욕이 생기고 그냥 기가 생기는 거죠. 기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기운이라고 해도 되고, 기운. 그런데 이거는 기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온통 욕심이 많아 가지고 뭐, 단전호흡을 해서 기를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온통 야단을 해 가지고, 정수리로 화가 미치고 귀로 화가 미치고 등으로 화가 미치고, 온 몸뚱이로 화가 미쳐서 병들이 나 가지고 가정 파탄이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선 슬슬 일로 오는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기가 뭡니까. 정맥 동맥이 잘 돌아가고 핏줄이 잘 돌아가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기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따라지죠. 마음에 달렸다 이 소리에요, 그것도. 전후사가 다 마음에 달린 겁니다. 차가 하나 운행을 하려면 바퀴를 꿴 그 중심과 엔진이 없으면 아예 그건 차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차가 굴러가는 것도? 그런데다가 기름 떨어지지 않게 기름 넣으면 되고 말입니다. 그게 기름과 같은 거예요. 아, 내 몸뚱이 차가 기름이 없게 해서는 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그렇게 하고, 또 이 공부를 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끼고 그냥 무슨 일 할 때 너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겉으로는 종합비타민 하나 먹는다. 또 간장약이 피로회복제니까 두 개를 하루 한 번씩이라도 먹는다, 그런 때만. 그 시험 보고 애쓸 때 그러면은 그게 벌충이 되죠.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에서 마음이 그냥 탁 가라앉아 가지고 짐이 무겁게만 되니까, 기를 성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거죽에서라도 그렇게 먹어서 그때를 메꾸어라 이 소립니다. 이것이 모두가 지혜고 아량이에요. 기가, 지금 그 웃는 얼굴에도 기가 있어요. 기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딴 데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저 나무가 뭐 내가 너를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뿌리니까 그냥 무조건 저 지분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모든 거를 흡수해서 그냥 뿌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렇듯이 또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거를 믿고 진짜로 내 뿌리를 믿는다면은 그 믿는 마음이 즉 태양력과 공기력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라는 이름을 누누이 생각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기운이 생긴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꼽 밑으로 해서 기를 들인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를 모으기만 했지, 무당이 귀신을 몰아만 놨지 내보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일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기를 모아만 놨지 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너무 몸이 부실하고 그러니까는 그 기법으로서 몸을 풀기 위해서 가르친 거지, 그것이 그냥 기에다가 착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면은 그렇게 해서 와짝 풀었지 그걸 넣어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울이 있으면은 전부 그 울 안에 있듯이, 한마음 안에 있으면은 그 마음으로써 다 대치할 수 있는 거지, 기를 왜 미리 창고에다가 잔뜩 갖다 넣고 딴 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래 가지고서는 외려 병을 더 얻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먹을 때에 무슨 그릇에다가 담아서 먹고 그릇을 항상 씻어서 치우지 않습니까. 고 다음에 또 먹을 때에 또 그 그릇을 꺼내서 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릇에다가 항상 담아 놓으면은 그 그릇을 나중에 무엇을 담으려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기를 모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급하면은 저절로 기가 다 생기게 돼 있으니까.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저절로 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동적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봤자죠, 뭐.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탄지탄하고, 기가 없으니까 기를 넣어야지 어쩌지 하면은 '허, 너 실컷 해 봐라.' 속에서 그럴 겁니다, 아마. '네가 너라고 이렇게 자청해서 야단법석인데 네가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 봐라.' 그러고 자기 참자기는 아마 등한시할 거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왜 마음대로 못하십니까.
들어오는 대로 죽든지 살든지 그까짓 거 내팽겨쳐 버린다면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MAI 미얀마 항공 취항 기념 단 한번의 기회

▶ 만달레이 / 양곤 5일 10월 26일 95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10월 28일 특가 ~~249만원~~ ➔ 169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양곤 5일 10월 27일 105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불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 & 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불자 세상보기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한국 국회



정천구
서울디지털대학 석좌교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요즈음 이상하다. 툭하면 의사당이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오고 처리할 의안이 산더미 같은데 5개월 째 일을 안 한다. 그렇게 놀려면 세비를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박근혜대통령의 질책에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회의 인적 구성문제, 사회적 배경, 그리고 집단주의적 이념 성향 등을 그 배경적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어느 조사보고에 의하면 19대 의원 300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의원이 61명으로 20%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27명은 국보법, 반공법 등을 위반한 반국가사범이다. 이런 인적 구성요소를 가지고 국화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는 힘들다. 총선 때 이들을 걸러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면 국민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클 것 같다.

다음으로 국회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는 기강이 무너져 거짓말과 탈법?범법이 횡행하고 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악당들이 입법?사법?행정부의 실세들과 손을 잡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 예다. 정부가 즉시 과학적인 조사팀을 구성해서 법대로 처리했으면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헌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해 놓았으니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정치투쟁의 핵심쟁점으로 몰고 간 것이다.

앞으로 대형사건이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 법은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을 생명으로 한다. 세월호 사건은 특별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일어났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하니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에게 향할 화살을 피하기 위하여 사건을 엉뚱한 정치쟁점으로 만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세기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인간의 영성(靈性 또는 佛性)이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거기서는 개인이 존귀하며 집단은 그러한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생명과 진실을 자신의 증표로 삼는다.

반대로 집단주의는 인간이 물질적 존재이며 정신도 물질의 반영이라고 본다. 개인은 사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에 기여함으로써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본다. 집단주의는 집단을 유기체 또는 사회적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개체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거기서는 진실도 그것이 사회적 삶에 얼마나 복무하느냐에 따라서만 의의가 있다.

20세기에 집단주의의 광기(狂氣)는 나치즘과 공산주의 그리고 천황군국주의로 나타났다,소련의 멸망을 끝으로 전체주의 주류가 무너지자 잔여세력들은 서서히 극단적 민족주의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전체주의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이 먼저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웠다. 러시아와 중국도 민족주의에 호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천황군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이런 집단주의의 재등장을 적극 막아야 할 입장이다. 이를 막을 유일한 세력은 생과 진실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현대적 버전인 자유민주주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국회는 모든 문제를 사리와 분별 대신에 집단의 힘, 떼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집단주의의 숙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인민민주의적 방식이지 민주공화국의 방식아 아니다. 부처님도 칠불쇠퇴법에서 승가공동체와 세속공동체의 운영방식으로 집단주의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화주의 운영방식을 설하셨다.

그럼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할까? 문제가 심각함으로 국회를 국가개조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구성이나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철학으로 볼 때 국회 자체의 개혁은 불가능해 보인다. 국회를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으로 국회 해산 방법이 없으니 대통령과 집권당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야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자진 반납하고 선거를 통해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극단주의자들의 포로가 된 국회를 하루 빨리 구출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동국대 108주년 불사에 거는 기대

동국대가 건학 108주년을 맞아 다양한 불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동국대는 10월 8일 '건학 108주년 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10월 25일에는 교내 운동장에서 불사 봉행법회를 열고 대대적인 모연에 나선다. 불사 증명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할 예정이다.

또한 동국대는 스타 동문들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에도 나섰다.

동국대가 건립을 추진하는 '건학108주년 기념관' 은 지하철 동대입구역부터 혜화문 부지에 거쳐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27,088㎡ 규모로 건립된다. 이를 통해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108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건학108주년 기념관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불교와 전통문화 콘텐츠를 융화시킨 불교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산발적으로 자리한 박물관, 불교학술원 등을 한군데로 모아 한국불교 연구와 불교 인재 교육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불교계에는 출재가 인재에 목말라 있다. 그래서 늘상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종정 진제 스님이 '불광동대(佛光東大) 보조발원(普照發願)' 이라는 친필 휘호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관자(管子)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것은 곡식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거두는 것은 나무이고, 하나를 심어 백을 거두는 것은 사람"이라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좋은 인재가 미래를 이끌어 가게 된다. 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와 집단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동국대가 건학 108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불사가 불교 인재에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寺址에 가톨릭 성역화라니…

한국사회의 종교 중 가장 대중적인 호응을 받는 종교는 단연 가톨릭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종교인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까지 있었으니 순풍에 돛을 단 격이다.

불교도 개신교와는 다르게 가톨릭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불자들 역시 가톨릭에 대한 거부 반응이 별로 많지 않다. 되려 가톨릭의 발전상을 반면교사하길 권한다. 하지만 이제 불교계는 가톨릭의 행보를 주목하고 경계해야 한다.

가장 경계할 부분은 가톨릭이 자신들의 역사를 일반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9월 18일 열린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이창익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교황 방한의 이면에는 가톨릭 순교사를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톨릭은 자신들의 순교 성지로 서소문 공원을 선택하고 성역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소문에서는 단순히 가톨릭 순교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처형을 당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여주 주어사지도 마찬가지다. 이를 원형복원하기 위해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는 기도회를 갖고 있고 연등을 설치했다. 한데 최근 여주 지역 성당에서 연등 철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유는 한국가톨릭계가 정한 '순교자 성월' 을 맞아 신도들이 방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주어사지는 엄연한 사찰터이다. 종교화합의 성지로 만들고 싶다면 가톨릭 강학터 이전에 사찰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찰터 마저 자신들의 성역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교계도 이 같은 가톨릭 성역화 작업과 순교 역사의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 가톨릭의 성역이 되어버린 사찰은 천진암만으로도 족하다. 왜곡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려 하는가.

발언대

중앙종회의원의 자세

오는 10월 16일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다.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스님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사명의식, 종회의원의 기본 자격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본디 승가는 부처님 재세 시부터 갈마제도에 의해 대중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복잡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모든 대중들이 수시로 모여 교단의 많은 일들을 결정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여, 종단은 대중의 위임을 받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종단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니 중앙종회의 기능이다.

이러한 중앙종회가 제대로 기능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불교의 미래가 판가름된다 할 수 있다. 종회의원들이 각 계파나 사익을 떠나서 조계종 중추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의식에 충실하다면 종단은 '불일증휘 법륜상전' 의 소임을 원만하게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종회가 일해 온 방식은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 15대 중앙종회에서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종헌개정안과 총무원장 선거 관련 안건이 무책임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입법기관인 중앙종회가 이렇게 종헌과 종법을 가벼이 여기고 진정성이 없다면 누구인들 종단에 신뢰를 보낼까?

중앙종회는 대의기구로써 조계종과 한국불교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운용하는 시스템과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반면, 법이 일부 미비해도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함양돼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스님들은 책임감과 역사적 소명의식, 확고한 연구자세를 가져야 하고, 선거권을 가진 스님들은 매의 눈으로 살피어 신중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금권선거, 파벌선거에서 벗어나 명실 공히 종책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종단 대표란 책무, 무겁게 여기길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센터장

16대 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향후 종회의원으로 활동하게 스님들이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16대 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인적인 바램은 종교지도자로서 도박, 음주, 여러 불법행위로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원활한 종회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종회의원들의 종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 사실 전문 법조인 출신이 아니고서는 다양한 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법률 지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회 출석률도 문제다. 종단 구성원들의 대표인데, 참석율이 50% 남짓한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다. 최소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15대 말미에 있었던 임시종회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인한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나 시의회 등 입법기관에서는 법령을 만들 때 입법권을 가진 이들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법령 등에 대해 기명투표를 진행한다. 무기명투표를 하는 경우는 인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아직 불교계에는 일반 법령 처리에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종단의 미래와 화합에 대해 자신들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책임있는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구니 스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호계의원 진출 부분은 종헌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부분이다. 16대 종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관리법 문제는 종단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이는 16대 임기내에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재가자들 중에 적극적으로 완전직선제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진보적인 입장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16대 국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에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전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한국 최초의 티벳어 교재!

현재 티벳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일상 구어를
한국어 문법 체계에 기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

쉽게 배우는 현대 티벳어



1 티벳어 문자를 한국어 발음 체계 안에서 소리 낼 수 있도록 한국어 발음을 제시
2 티벳어 문자의 구성을 한눈에 제시함과 아울러 자음이 되는 기본자를 중심으로 결합되는 유두자, 첨족자, 전접자, 후접자, 재접자의 5종류 글자들을 우리말 발음과 함께 설명
3 티벳어 문법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도식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박은정 저/사륙배판/컬러/262쪽/값23,000원

원전을 제대로 읽어야
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무문관

중문학 전공자인 안재철 교수의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문법 해설 및 풍부한 예문, 그리고 태고종 중앙강원 강주 수암 스님의 선지를 꿰뚫는 강의가 어우러져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온전히 전해준다!

안재철 • 수암 공저/신국판/496쪽/값23,000원

초보자를 위한 한국선 입문서

간추린 한국 선사상사

선의 전래부터 고려말까지 한국선이
어떤 흐름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를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저서, 사상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한반도에 선이 전래되는 과정, 구산선문의 성립과 종파의 융성,
조계종의 성립과 전개, 임제종의 융성과
고려말 삼사三師의 선사상 등을 다루고 있다.

정영식 저/국판/214쪽/값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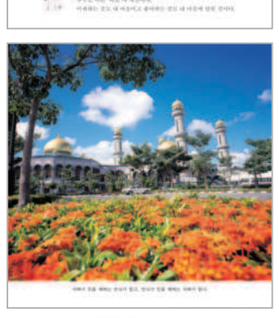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6절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한지달력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31㎝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상호인쇄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650 원
• 규격 : 9.5㎝×13.4㎝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450 원
• 규격 : 8.9㎝×9.5㎝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붓다

위드붓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붓다를 검색하세요.